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로마서 12장 8절

천지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깨닫고 영적 분별력을 갖고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www.chpress.net

주후 2018년 11월 10일 (토) 제 1706호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트럼프는 우리의 고레스인가?

CT, 다니엘 I. 불록 휘튼대학 구약학 석좌교수, 미 중간선거 결과보다 중요한 리더의 도덕성 강조

지난 2017년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 존 파이퍼 목사는 "트럼프 정부 시대에 기독교인이 살아가는 법(How to Live Under a Trump Presidency)"이라는 글에서,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자격미달이라는 점을 분명히 짚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기독교에게 이런 결과는 놀라운 현상은 아니다. 기독교는 트럼프 행정부보다 훨씬 더 열악한 리더십 아래에서도 생성되고 부흥해왔다. 살인자 헤롯 왕(마2:16), 수많은 기독교인을 박해하고 죽인 네로 왕(타키투스, 연대기XV.44)이 존재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던(요18:36)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의 능력과 구속의 힘을 믿는 신앙과 믿음을 꺾을 수는 없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 세상에 나타내신 그 능력은 인간의 시각에서 봤을

때 자격이 충분히 갖춰진 정부의 힘과는 전혀 별개의 힘이었다. 기독교인의 신앙심과 열매 맺는 삶을 위해 기독교의 교회와 집권당의 정치적인 성향을 연결시킬 필요가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오히려 때론 과한 연결고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왜곡시키는 사례가 더 많다. 특히, "세상의 미려한 것들을 택사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고전1:27) 하시는 예수님의 방법과는 상반될 때가 많으며 독점연론, 부와 민법의 싸움을 통해 이뤄지지 않는다. 따라서 2018년 미국 중간 선거 결과로 떠들썩한 이 기간에 그리스도인 즉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 번 짚어본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시대의 고레스 왕으로 비교되고 있다.

작년 트럼프 대통령 취임과 함께 복음주의의 진영 일각에서, 트럼프와 고레스 왕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노출됐고, 지금까지도 상당한 탄력을 받고 있다. 고레스 왕은 페르시아 제국의 창시자다. 그는 서아시아에서 중동에 이르는 제국을 건설하고, 리디아 제국과 신바벨론 제국을 멸망시켰다. 제국을 건설할 대왕 이미지와 달리 인자하고 관대한 왕으로 전해진다. 정복지의 문화와 언어, 종교를 파괴하는 대신 존중했다. 처음으로 노예제와 독재자의 압박을 폐지한 왕으로도 알려져 있다. 그래서 페르시아인들에게는 '아버지'로, 그리스인들에게는 '훌륭한 임명자'로 불렸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여겼다. 구약성경 역대하서(36장)와 이사야서(44-45장)에서는 그를 칭송한다. 고레스의 이름은 성경에 30번 이상 등장한다. 선지자 이사야는 고레스를 통해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성전이 재건될 것임을 예언했다. 고레스는 유대인도 아니었고 유대인들이 믿던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능력을 주었다고 언급한다. "네(고레스)가 비록 나(하나님)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너에게 영예로운 이름을 준 까닭이 여기에 있다. 나는 주다. 나 밖에 다른 이가 없다. 나 밖에 다른 신은 없다. ... 나는 너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겠다"(사 45:4-5, 새번역).

이런 이유로 고레스 왕은 그동안 기독교 세계 안에서 당대 국가 지도자에 비견되며 해석돼왔다. 미국 복음주의의 기독교인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오늘의 고레스'라고 믿는다는 지지를 보낸 바 있다. 지난번에 예루살렘으로 미국 대사관을 이전하면서 이 지지는 더욱 확고해졌다. 휘튼 대학 구약학 석좌교수로 있는 다니엘 I. 불록 교수는 "트럼프는 우리의 고레스인가?(Is Trump Our Cyrus? The Old Testament Case for Yes and No: Christians' eagerness to understand God's will in real time can cause them to

overlook fundamental biblical and divine principles)"라는 기고문을 통해, 고레스와 트럼프를 동일시하는 복음주의자들이 근본적인 성경적/거룩한 원리들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하나님이 고레스를 사용하신 것처럼 트럼프를 사용해 달라"는 바램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부터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성적차별성 발언들, 지나친 자기중심 행동들을 눈 감아 주는(?) 백인 크리스천들이 많이 있다. <3면으로 계속>

압박감 견뎌내는 '낙심 극복' 방법

리더십저널, 존 스토틀 목사가 전하는 스트레스 극복 성경적 원리 소개

크리스천 리더가 받는 압박감은 극심하고 보통 수그러들 줄 모른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우리는 바쁘고 피곤하다. 휴가는 말할 것도 없고 가족들을 위해서도 충분한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 인정받는 리더로 살기 위해 느끼는 책임감도 만만치 않다. 누군가 사역을 비판할 때는 그 비판의 화살을 견디고 힘겨운 결단을 내리는 책임을 감당한다. 우리는 이 모든 문제로 인해 낙심한다. 사실 낙심이야말로 사역에서 가장 위험한 문제다. 낙심은 비전과 열정을 빼앗아 간다. 따라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어떻게 이 압박감을 견뎌 내느냐'에 있다. 존 스토틀 목사는 약관 29살의 나이에 영국 런던의 울소울즈교회의 관할 사제로 임명받아 30여 년간 강력하고 혁신적인 목회 사역을 수행했으며, 반평생 전 세계 복음주의 교회의 리더라고 불리며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면서도 어떠한 오점도 남기지 않았다. 그는 어떻게 한결같이 진정한 리더의 면모를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 바로 자신이 리더로서 몸소 겪은 난관을 통해 성경과 씨름하고 고민하며 체득했기 때문이다.

복음 가리는 수건, 하나님 능력으로 뚫을 수 있어 연약함 끝까지 인내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

고린도후서 4장 1절과 16절에 보면, 반복되는 헬라어 어구가 있다. 그것은 '우크 엔카쿠멘(ouk enkakoumen)'이다. 대부분의 번역은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라고 되어 있다. 바울은 기독교 사역의 영광스러움 때문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크 엔카쿠멘',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고 고백한다. 리더로 섬길 때 낙심을 유발하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사역하는 대상 안에 있는 외적이고 객관적인 문제이고 두 번째는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이고 주관적인 문제다. 첫 번째 문제는 수건(veiling)이라고 부르는 '칼림마(kalyma)'이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15절에서 모세의 글을 읽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마음에 수건이 덮여 있다고 말한다. 이는 믿지 않는 이들의 마음을 덮은 수건으로 복음의 진리를 보지 못한다. 그들은 영적으로 눈먼 상태다. 우리는 복음을 명명백백하게 제시하지만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못한다. 우리는 복음을 아주 단순하게 풀어서 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크리스천 사역자에게 이보다 더 낙심되는 일이 있을까? <3면으로 계속>



시론 최해근 목사

2면



중세교회 1000년 조진모 목사

7면



인/터뷰 김토나스(만규) 목사

16면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온라인으로 공부합니다”
준학사 / 학사 석사 박사 수료증
성서학과, 기독교상담학과 목회학과(M.Div), 신학과, 기독교상담학과 목회학과(D.Min), 교회음악학박사(DCM-온케퍼스) 가정상담 사역자, 유아교육 교사/원장
ATS 정회원
월든대학교 온라인 프로그램
www.wmu.edu
월든대학교 WORLD WIDE UNIVERSITY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admissions@wmu.edu, 213) 388-1000

할렐루야 백화점
성경 / 기독교서적 / 일반서적 / 베스트셀러 / 성구 / 성화 액자 / 기증 / 교회용품 / 영문성경 / 영문기독교서적
교회 · 사업체 · 달력 · 기념패전문
뉴욕 Tel. 718) 762-0011 40-21 159th St., #1B Flushing, NY 11358
뉴저지 Tel. 201) 346-0030 5 Brikerhoff Terrace Palisades Park, NJ 07650
www.bestsaver.us 917-863-0301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Forever 무료 특별할인 판매
그동안 49센트에 판매되던 Forever 무료 (평상 가격만큼 있음)가 곧 60센트로 오를 예정입니다. 특별가액 38센트로 한정 판매 합니다.
www.laboooks.com / cbc0191@hotmail.com
대표 강병찬 323-737-7699, 800-669-0451
1027 S. Western Ave., #2 L.A., CA 90006

영적 성장을 도와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사
교회 음향, 동시통역기, 성가곡집 주문 제작, 타월, 선물 주문 제작
TEL. 714.530.2211 | Fax. 714-530-8080 | biblestore@gmail.com
9838 GardenGrove Blvd., Graden Grove, CA 92844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안기홍
속속감사절 부흥회
“하늘의 권능 받아 땅을 정복하라!!”
일시: 2018. 11. 16(금) ~ 18(주일)
16(금) 7:30pm
17(토) 6:00am, 7:30pm
18(주일) 7:30am, 9:20 am, 11:30am, 2:00pm
장소: 은혜한인교회 비전센터 본당
강사: 이영환 목사(대전한밭제일교회)
이영환 목사
'장자권의 회복과 누림'의 저자
장자권의 회복과 누림
그리스도의 장자권과 하나님 자녀의 권세 누림
일시: 2018. 11. 19(월) ~ 20(화)
강의시간: 19(월) 9am~12pm, 2~4pm, 7~9pm
20(화) 9am~12pm, 2~4pm
장소: 은혜한인교회 웨딩채플
강사: 이영환 목사(대전 한밭제일교회)
대상: 목사, 전도사, 신학생
등록비: \$50(교재, 식사포함), 미지필교회 목회자 \$30
주일예배 | 1부 7:30am | 2부 9:20am | 3부 11:30am | 4부 2pm
은혜세계기도센터 [365일 24시간 OPEN]
예배 | 5:30am, 8pm | 금요일정교회 8pm
은혜기도원 TEL: 951) 277-1188 / 11985 Indian Truck Trail, CA 928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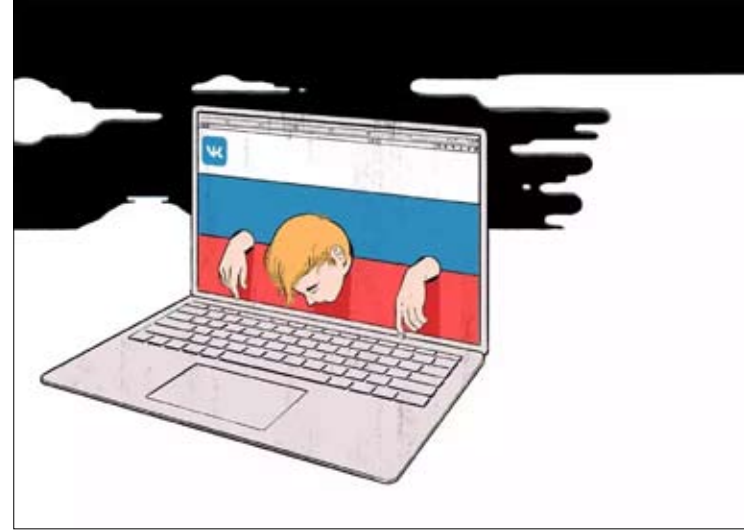
러시아에서 갈수록 사라지는 표현의 자유

뉴스위크, 소셜미디어 통한 표현의 자유 옥죄고 있는 푸틴 정권의 부당한 처사 고발

현재 러시아에서는 소셜미디어에 멋모르고 이미지 게시했다가 극단주의자나 테러리스트 명단에 올라 감옥에 가는 사람 적지 않다. 그리고 소셜미디어에 오르는 반체제 성향의 내용물들을 검열, 감독 그리고 체포하는 국가 기관이 있다. 러시아 반체제 운동가들은 바로 이 기관 즉 "극단주의대처센터" 비밀 요원을 '오호란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제정 러시아 시대 비밀경찰을 가리키던 표현이다. 따라서 뉴스위크는 러시아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옥죄는 크렘린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준다(How a Social Media Post in Russia Can Land You in Jail and on a List With Neo-Nazis and ISIS Supporters).

지난해 7월 어느 날 아침 6시 직전, 러시아 중부 시베리아의 작은 도시 바르나울에 있는 다니일 마르킨의 아파트에 경찰이 들이닥쳤다. 영화를 공부하는 18세 학생이었던 마르킨은 왜 경찰이 자신의 집을 급습했는지 알 수 없었다. 경찰도 처음엔 그 이유를 설명해줄 생각이 없는 듯했다. 그들은 무조건 마르킨의 컴퓨터와 스마트폰 등 전자 기기를 압수하고 그를 '극단주의 대응센터(센터 E)' 현지 사무실로 데려갔다. 막강한 러시아 내부부에 소속된 경찰의 한 부서다.



하는 것과 달리 그런 일은 상당히 위험하다.' 하지만 지금 러시아 반체제 운동가들은 센터 E 요원을 '오호란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제정 러시아 시대에 비밀경찰을 가리키던 표현이다. 대부분의 기소는 서방의 SNS가 아니라 VK에 게시한 글이나 이미지를 대상으로 한다. 비판자들은 러시아 소셜미디어 업체인 VK가 사용자의 데이터를 넘겨달라는 당국의 요구를 고분고분 따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VK는 경찰에 협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항변한다.

SNS에 저장, 재게시 됨 때문에 극단주의 행위 혐의로 기소 작년 411명 기소, 43명 4년 이내 징역형 선고...네티즌 분노

마르킨은 센터 E에 가서야 요원들로부터 러시아판 페이스북으로 불리는 SNS '브콘택트(VK)' 계정에 자신이 저장했거나 재게시한 밈(소셜미디어에서 재미난 말을 적어 넣어서 다시 포스팅한 그림이나 사진이 러시아 정교회를 혐오하는 표현을 담고 있어 극단주의 행위 혐의로 강제 구인됐다고 통보 받았다.

가장 오래된 이미지는 그가 13세였던 2013년 저장된 것이었다. 마르킨은 그 이미지를 직접 제작하지 않았다. 대부분은 온라인에 널리 유포된 이미지였다. 그런데도 그는 지금 유죄로 판명되면 최고 5년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

이처럼 러시아는 소셜미디어 활동을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하는 중이다. 러시아 인권단체 아고라에 따르면 지난해 당국에 의해 기소된 인터넷 사용자가 411명이었다. 2016년의 298명에서 크게 늘었다. 그중 43명이 수개월부터 4년 이내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혐의 대다수는 문제 있는 콘텐츠를 SNS에 재게시했거나 마르킨처럼 소셜미디어 계정의 개인 사진앨범에 저장했다는 것이었다. 주로 러시아 정교회나 크렘린과 연계된 주요 인사를 풍자하는 이미지 또는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내전 개입을 비판하는 이미지가 기소 대상이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18

년 전 통치 초기에 주요 매체를 강압적으로 크렘린의 통제 아래 끌어들이었다. 비판자들은 그때 시작된 '표현의 자유'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이 지금까지 이어져왔으며, SNS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런 기소가 그런 탄압의 최전선이라고 지적한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또 다른 예를 보자.

상트페테르부르크 출신의 실업자인 에두아르드 니키티(42)은 VK에 게시한 정치색 강한 이미지를 통해 '혐오를 부추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5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문제가 된 이미지 중 하나는 푸틴 대통령의 지지자들을 교육 받지 못한 무지한 사람들로 조롱한 풍자 그림이었다.

지난 9월 초엔 러시아 중부 사라토프 출신의 여성 나탈리아 코발레바(42)가 현지 법원의 부패를 조롱하는 러시아 포크송을 SNS에 여러 곡 올린 뒤 극단주의 행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녀에 따르면 급습한 경찰은 사라토프 지역 판사들의 '명예와 품위에 먹칠한' 혐의로 그녀를 체포했다고 말했다. 극단주의 행위자로 기소된 피의자

를 대변하는 변호사 알렉세이 부슈마코프는 최근 러시아의 66.ru 웹사이트에 "경찰은 반정부 시위에 참가하거나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를 지지하는 네티즌을 기소하려 한다"고 말했다.

센터 E는 2008년 설립됐다. 모스크바 본부의 요원 약 100명을 포함해 전국적으로는 수백 명이 그 조직에서 일한다.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정치적인 반대자를 단속하는 것만이 그들의 임무는 아니다. 요원들은 2000년대 말 러시아의 백인우월주의 운동을 무너뜨리려는 과정에서 주된 역할을 했다.

당시 그들은 폭력을 휘두른 초국수주의자들을 대거 체포했다. 러시아의 극단주의를 감시하는 인권단체 소바 센터의 알렉산드르 베르호프스키 소장은 "그런 극단주의자 수백 명을 그들이 감옥에 잡아넣었다"고 말했다. "하루 종일 VK를 들여다보며 클릭

그러나 VK의 모회사 Mail.Ru는 '극단주의' 콘텐츠의 재게시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소된 피의자를 사면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VK 사용자를 위해 콘텐츠를 완전히 비공개로 할 수 있는 옵션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럼에도 기소는 계속된다. 게시된 맥락을 불문하고 나치 상징이 포함된 이미지를 게시하는 것도 극단주의 행위로 분류된다. 4년 전까지는 나치주의를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나치 상징을 게시할 때만 러시아 법에 의해 처벌됐다. 그러나 2014년 법조문에서 '나치주의 도모 목적'이라는 조건이 삭제됐다. 당시 러시아 당국은 '나치주의 부활' 기도와 효과적으로 싸우기 위해 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3면으로 계속)



시론

누가 도둑인가?



최해근 목사 (용곡예배교회)

지난 10월 4일, 미국 블룸버그비즈니스 신문이 21세기 신형스파이 사건이라 할 만한 기사를 실었습니다. 내용인즉 지난 2015년 아마존회사가 각종 동영상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제공하기로 계획하고 그 일을 추진하는 과정 중에 제 3의 기관에 시스템의 보안에 대한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1차 조사에서 의심스러운 부분을 발견한 후 2015년 늦은 봄에 캐나다에 위치한 보안업체에 맡겨 꼼꼼하게 모든 부품들을 점검했습니다. 그렇게 조사하는 과정 중에 모든 데이터를 관리해주는 시스템의 주요부품에서 쌀알만한 크기의 컴퓨터 칩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칩은 원래 도면

에 있는 칩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아마존회사는 즉각적으로 그 사실을 미연방정부에 보고를 했는데 이미 미국의 국방부를 비롯한 여러 기관에서 의심스러운 칩이 들어있는 그 부품을 사용하던 중이었습니다. 국방부의 방어 전략과 중앙정보부의 드론 자료와 같은 것들이 바로 그 칩이 들어있는 시스템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최고비밀을 유지한 채 수사관들이 무려 3년 가까이 조사한 후에 그 칩의 기능을 밝혀줍니다. 칩의 기능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도둑에게 뒷문을 열어주는 역할'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이 칩이 부착된 컴퓨터에 저장된 모든 자료들을 칩을 장착한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훔쳐 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입니다.

이제 핵심은 누가 그 칩을 시스템에 넣었는가 라는 점이었습니다. 그 시스템을 공급해준 회사는 대만계 중국인이 설립한 슈퍼마이크로라는 미국회사로 전 세계 데이터서버 시장에서 무려 10% 정도를 차지하는 1위 기업입니다. 본사가 캘리포니아 산호세에 있는 미국회사이지만 필요한 부품은 중국 현지에서 값싸게 제작했던 것입니다. 이제 전체적인 그림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현지에 있는 회사에 중국정부 요원들이 강압적으로 시스템에 스파이칩을 넣도록 했고 그 스파이칩이 들어간 부품이 미국으로 건너와 각종 회사와 정부기관에 공급되었던 것입니다.

듣고 보면 참 불편하고 기분 나쁜 내용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중국은 역시 그런 나라야...' 다들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사 중 한 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컴퓨터를 훔고 들어가서 정보를 빼오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미국이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부품들이 제조된 후 중간 유통과정에 개입해서 스파이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을 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번에 중국정부가 했던 것처럼 처음부터 부품에 스파이 칩을 심는 방법이 있다고 국가안보국 자료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도 중국도 다 자국에 유리하게 스파이 행위는 하는데 다만 잡히지 않고 누가 더 잘하느냐가 관건인 셈입니다. 영국 버킹엄 대학의 보안 및 정보보호 센터 소장 안소니 글리스 교수는 "기본적으로 전 세계 모든 대사관에 스파이가 있다"고 말합니다. 각 나라는 외교관이라는 신분으로 각색하지만 그들 중의 일부는 외교관 고유의 업무보다는 스파이 업무를 위해 파견된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모든 나라는 다 용인된 국가 간의 도둑질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없어졌지만 70년대 초등학교에서는 용모검사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손톱을 제대로 깎고 다니는지 손은 깨끗하게 씻고 다니는지와 같은 것을 검사하는 일이었습니다. 요즘처럼 가정에서 필요한 온수를 제대로 공급할 수 없었던 시절에 겨울철이 되면 시골학교 아이들의 손등은 때로 덮이고 트는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손등을 검사하던 교사들이 농담 삼아 "까마귀가 보면 할아버지라고 부를 거야"라고 하면서 놀리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렇게 위생적으로 깨끗하지 못한 용모를 지닌 학생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 오십이 넘어 돌아보니 정말 까마귀가 놀랄 사람은 손등의 때를 제대로 씻지 못한 시골학교 아이들이 아니라 그들의 손등을 검사하던 어른들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더러운 때는 손등이 뻥뻥뻥하도록 고급 비누와 화장품을 사용하는 병든 어른들이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모든 나라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알게 모르게 훔쳐가고 있습니다. 다만 잡히거나 들켜지 않고 그 일을 누가 더 잘 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손등을 때가 끼고 그 때로 인해 피부가 트는 가난한 시골아이가 아닌 그 아이들의 손등을 검사하던 깨끗하고 반질반질하던 손에 의해서 세상이 추해져 왔고 추해지고 있다는 슬픈 사실을 보면서, 그리고 그 반질반질한 손에 내 자신도 포함되어 있음을 느끼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밖에는 의지할 곳이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살름...

thechoi82@yahoo.com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타 GPS CENTER

영어판, 중국어판 책도 판매합니다



장사: 라흥채 목사



하나님의 구원계획, 다니엘, 요한계시록, 성경 세미나

도서 주문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타 GPS Center

도서주문 연락처 (917)588-2934, (917)968-1024 / 주소: 27-23 Bayside Ln, #1FL, Flushing NY 11358
Email: Gpscenter2014@gmail.com / 미주크리스천신문 718-886-4400(NY), 323-665-0009(LA)(판매)

트럼프는 우리의 고레스인가?

(1면에서 계속)

이들은 연방대법원 판사 지명이나 동성애, 낙태 금지 등과 같은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힐러리 클린턴과 비교했을 때, '더 나은 사람'(better)이 아닌 '덜 나쁜 사람'(lesser evil)인 트럼프가 기독교 신앙의 수호자가 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블록 교수는 그러나, 토라와 예언자들을 공통적으로 고레스 왕의 리더십 유형이 당신의 백성을 항상 염두에 두시는 하나님의 패러다임과는 부합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고대 근동 국가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왕권은 (1)외세 침략에 대비한 군사적 보호 (2)국민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문제들로 인한 위협 발생 가능한 사법적 보호 (3)국가 우선 순배를 위한 신전 건립이 일어날 수 있

는 신들의 분노를 달래기 위한 영적 보호라는 리더십이 요구됐다.

이런 범주에서 볼 때, 고레스 왕은 성공했다. 그러나 이러한 리더십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세상의 왕권이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준다. 신명기 17장 14-20절에서, 당시 성행하던 왕권의 대안으로, 백성들을 섬기는 리더로서의 모델을 제시한다. 모세는 당시 왕들의 과도한 권력욕을 견제하기 위해서, 왕의 도덕적 성향을 강조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왕은, 자신의 이익을 위한 권력 행사에만 급급한 것이 아니라 토라를 주야로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들을 겸손히 섬기는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 누구나 "나는 저 왕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바라는 모범 시민 자체인 것이다.

결국 이러한 왕권 이미지는 나중에 가서 백성들을 돌보는 목자(시23편, 겔34장)로 그려지고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는 목자(요10:1, 벰전5:1-8)로 전제된다.

그러나 사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사사들이 도덕적으로 훌륭했던 것은 아닌 것처럼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흠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잠시나마 온전히 당신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리더들을 들어 사용하셨다.

따라서 블록 교수는 크리스천들은 반드시 민주, 공화 양당의 정치색보다는 후보자들의 도덕적 문제들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성경에 따르면, 리더십은 효율 이상의 무엇 즉 리더의 성격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양을 위해 기꺼

이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이기 때문이다(요10:7-16).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미국인 먼저(Americans first)"라는 슬로건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우리의 첫 충성은 예수님께로 향해야 하며 성령님의 감동으로 적혀진 성경말씀을 좇아 살아야 한다. 우리가 따라야 할 서약은 바로 하나님께 있지 미국의 헌법이 아니다.

내가 지지하는 당이 과반수가 되지 않았다고 실망해 잠겨 있지 말자. 우리보다도 훨씬 더 열악한 정치와 경제적 혜택 속에서 고통 받으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잊지 말자. 복음을 접할 수 있었다는 측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린 자들이고 우리는 복음에 빛진 자임을 잊지 말자(롬1:14).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도덕적, 사회적 결함들을 큰 문제대미라 여기며 더 큰 그림을 놓치지 말자!

원로칼럼



박종순 목사 (충신교회 원로)

목사와 돈(하)

필자가 예장통합교단 부총회장으로 출사표를 내자 전국 각지에서 "박 목사님, 그동안 어떻게 은혜를 갚을까 고심했는데 드디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지역은 걱정 마십시오. 제가 총대를 메겠습니다"라며 지원군이 경향 각지에서 일어났다. 다른 사람들의 경우를 보면 선거 운동을 위해 총책을 두고 지역별 책임자를 선정하는가 하면, 후보 자신이 전국 노회와 지역을 수 차례씩 방문한다. 그러나 필자는 선거참모나 지역책을 임명한 일이 없었다. 지난날 은혜를 잊지 못하는 동지들이 각 지역과 노회의 중진들이 되어 필자를 돕겠다고 나선 것이다. 되로 주고 말로 받은 셈이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리고 상상도 못할 복을 받았다.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고 드리는 것은 이교도들도 가능하다. 그러나 신앙인의 세계는 드리는 것이 먼저고 복은 그 다음이다.

애들이, 물려줄 게 없구나

필자가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물질적 유산은 아무 것도 없다. 물려줄 만한 경제적 자신이 전무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필자는 부모님에게서 물량적 가치로는 따질 수 없는 천만금보다 귀한 신앙을 물려받았다. 방지방 목사님은 필자를 만날 때마다 "박 목사, 박 목사가 오늘의 박 목사가 된 것은 다 어머니의 기도 때문이야"라고 말씀하시곤 했다.

유산은 크게 삼분할 수 있다. 그것은 물질적 유산, 정신적 유산, 신앙의 유산이다. 셋 중에 가장 위대한 유산은 신앙의 유산이다. 수십조의 돈과 기업을 물려받아도 정신의 맴이 무너지고 신앙의 집이 붕괴되면 경제적 유산은 가치도 의미도 없다. 그리고 관리도 못한다. 그런 현상이 앞뒷집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지 않은가?

솔직히 자식들만이라도 아버지가 걸여온 7년의 길을 벗어났으면 하는 마음이다. 그런데 두 딸, 두 사위, 거기다 아들까지 3남매 모두가 필자의 뒤를 따라 주의 종의 길을 걷고 있으니 부자로 잘사는 것은 기대 난망이다. 빈손으로 오고 빈손으로 가는 것은 인생의 정로이며 성경의 가르침이다. 영원한 세계를 향한 여

행엔 전대도, 두 벌 옷도 필요치 않다.

'애들이, 물려줄 게 없구나. 그러나 내가 물려받은 신앙 자산을 너희에게 물려준다. 이 유산은 천만금보다 귀하고 이 세상 모든 것보다 바꿀 수 없는 유산임을 이해해 줘서 고맙고 고맙다.'

하나님의 것과 가이사의 것은 구별되어야 한다. 내 것과 네 것, 공과 사는 그 한계가 분명해야 한다. 담임목사의 눈물과 맘이 모이고 회생과 헌신이 쌓여 교회가 성장하고 예산규모가 불어났을 때 오는 유혹이 있다. 그것은 '내가 일했다. 나 때문에 필자를 돕겠다고 나선 것이다. 되로 주고 말로 받은 셈이다. 문제가 여기서 시작된다. 그런 사고의 포로가 되면 '돈 좀 쓰세요'라는 게 뭐가 잘못이야? 나쁜데 쓰냐? 다 선교와 교회를 위해 쓰는 건데'라며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 하고 그 결과를 겁내지 않게 된다. 그러나 자고로 그 뒷에 걸린 사람치고 무사태평한 경우는 단 한 사람도 없었다.

필자는 '황금을 돌보듯 한다'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물론 황금에 집착하거나 탐욕을 부리지 말라는 뜻인 줄 알지만 그러나 황금은 황금으로, 돌은 돌로 보는 게 정상이다. 만일 황금을 돌덩이로 여기고 남용한다면 그 결과는 뻔하다. 과욕과 탐욕은 목회자가 경계해야 할 마지노선이다. 그 선을 넘어서면 안 된다.

필자가 구상하고 추진하려는 몇 가지 비전이다. 그런데 모두 돈이 필요한 일들이다. 그렇다고 서두르거나 헛기거나 과욕을 부리면 엄청난 과태료를 지불하게 된다.

돈은 필요가치다. 돈 자체는 중성이어서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다. 어떻게 버느냐 모느냐 그리고 어떻게 무엇을 위해 활용하느냐에 따라 선한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악한 결과를 내일 수도 있다.

돈! 많으면 좋겠다. 하고픈 일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지 돈이 하는 것이 아니다. 돈은 손도, 발도, 눈도 없다. 저 혼자 일을 처리할 능력도 없다. 그래서 선한 청지기할 필요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업을 일궈 나가야 한다.

iamcspark@hanmail.net

압박감 견뎌내는 '낙심 극복' 방법

(1면에서 계속)

두 번째 문제는 '소마'(soma), 즉 몸이다. 우리의 몸, 복음이라는 보배가 담겨 있지만 허약하고 깨지기 쉬운 인간 질그릇이라고 후4:7-18). 우리의 개인적인 약함과 죽을 수밖에 없는 몸으로 허약한 설교자와 눈면 회중이야말로 정말로 난감한 문제다.

우리는 수건을 건어낼 수 없으며 믿지 않는 이들의 눈면 상태를 고칠 수 없다. 또 우리는 마음과 몸의 약함을 극복할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을 마주할 때 어떻게 이 낙심을 극복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수건이다. 사람들이 복음에 반응하려 하지 않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하는가? 우리는 어떤 유혹이 있는지 잘 안다. 우리는 그들이 복음에 반응하도록 강요하고 싶어진다. 또 감정적, 심리적 기술들에 의존하여 사람들을 믿도록 조종하고 싶은 유혹을 받는다. 하지만 그 유혹을 단호히 물리쳐야 한다.

우리는 서로 싸우는 두 신을

만난다. 이 세상의 신인 사탄과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 세상의 신은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은 마음에 빛을 비추신다. 이는 복음의 빛이다.

복음은 하나님이 어둠을 이기고 사람들의 마음에 빛을 비추는 수단이다. 복음 선포는 어둠의 군주를 타도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빛을 비추기 위해 하나님이 정하신 수단이다. 그러므로 '우크 엔카쿰엔',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수건이 사람들의 마음을 가리고 있어서 우리 힘으로 뿜을 수 없지만, 복음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뿜어낼 수 있다.

두 번째 문제인 몸으로 넘어가 보자.

예수님은 바울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를 제거하지 않으셨다고 후12:7). 그럼에도 바울은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한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함이라." 여기서 '하려함'이라는 어구는 고전 2장 3-5



절과 고후 4장 7절을 포함해서 세 번 등장한다. 이는 고린도전 후서의 강조점이다. 즉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의 약함 가운데서 드러나고 하나님의 힘이 죽음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다.

우리는 바울처럼 육체의 가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벗어나게 해 주실 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이 우리에게 거하도록 종종 의도적으로 우리를 약함 가운데 두신다.

19세기 초기에 호주 시드니에 정착한 영국인 이주민 토머스 서트클리프 모트(Thomas Sutcliffe Mort)는 호주에서 유럽으로 고

기를 수출하는 일을 했다. 모트는 유럽에 도착하기 전에 고기가 상해버리는 경우가 여러 번 반복되자 식품을 효과적으로 냉장하는 방법을 발명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이 일을 3년이면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26년이 걸렸다.

결국 그는 냉장된 고기의 첫 배송품이 호주를 떠나는 것을 보았지만, 그 고기가 유럽에 도착하기 전에 세상을 떠났다. 그의 서재에 가면 벽 맨 위쪽 둘레에 자신의 좌우명을 스무 번이나 적어 놓았다. '끝까지 인내해야 성공한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인내하는 은혜를 주신다.

(2면에서 계속)

비판자들은 현재 터무니없는 기소가 자주 있게 된 것이 바로 그런 법 개정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이제 일반 러시아인은 SNS, 특히 VK에 이미지나 글을 게시할 때 망설일 수밖에 없다. 성을 밝히지 말아달라고 요청한 자원봉사자 엘레나(33)는 "걱정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내게 게시하거나 재 게시하는 콘텐츠 때문에 기소될지 모른다는 생각을 떨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런 걱정이 쌓이면서 러시아 네티즌의 분노도

커진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모스크바 센터의 분석가 안드레이 페체프는 "사람들이 자신과 자녀가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법이 불공평하며, 법집행 기관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런 법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잘 안다"고 말했다.

"따라서 당연히 이런 의문이 생긴다. '부패 관리들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풀려나는데 힘없는 대중은 왜 SNS에 올린 대수롭지 않은 이미지 때문에 감옥에 가야 하는가?' 그런 의문을 갖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크렘린이 비

난 받고 궁지에 몰리게 된다."

푸틴 대통령도 이 문제를 우려하는 듯하다. 지난 6월 '국민과의 대화'에서 푸틴 대통령은 "죄 있는 사람에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하면서도 일부 센터 E의 기소가 '불합리'하게 진행될 소지가 있다고 경고했다.

또 지난 10월 3일엔 푸틴 대통령이 '극단주의' 콘텐츠의 SNS 재 게시를 기소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안했다. 그러나 그 법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러시아의 인터넷 사용자는 그런 SNS 활동 때문에 최대 15일 동

안 구금될 수 있다.

현재 재판과 받고 있는 영화학도인 마르킨은 '왕좌의 게임' 캐릭터를 두고 불순한 패러디를 한 '죄'로 자신의 20대 초반을 교도소에서 보낼 수 있는 엄연한 가능성에 기가 찰 노릇이라고 말했다.

"러시아가 서서히, 그러나 확실히, 나를 죽이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푸틴의 러시아에 선 누구에게나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실천적 복음주의 신학의 새로운 물결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학위과정:

성경사역학철학박사 PhD / 목회학박사 DMin / 교육목회학박사 DEdMin / 목회학석사 MDiv

선교목회학 DMin in Missions

설교목회학 DMin in Expository Preaching

목회상담학 DMin in Counseling

미남침례교단 6대 신학대학원 | 탁월한 교수진 | 저렴한 등록금 | 한국부 630명 재학 | HLC & ATS 정식인가 | 상시입학 | 100% 한국어 강의 | 1-20 발행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한국부 사무실

최세롬 사모 816-414-3754; ks@mbts.edu; www.mbts.edu



목양실에서...

노창수 목사
(남가주사랑교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의 또 다른 의미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앞 드러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제가 좋아하는 찬송입니다. 이 찬송가 가사처럼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간절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매일의 삶 속에서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그것이

고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요한은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한다'는 고백은 이웃 사랑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이웃 사랑은 막연한 이론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적어도 두 가지 요소가 내포되어 있는데, 그중 하나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는 행위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웃을 소중하게 여기고 인격적으로 대하는 태도입니다. 이웃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친절하게 배려하며, 함께 웃고 우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모든 사람의 필요를 다 채워 줄 능력이 없습니다. 때로는 이웃이 전혀 사랑스럽지도, 돕고 싶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웃 사랑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웃 사랑이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의 성취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이웃 사랑이 선택 사항이 아닐 것입니다.

이웃 사랑의 첫걸음은 관심입니다. 관심을 가져야 이웃이 보입니다. 헬렌 켈러 여사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이웃의 필요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시력이 아니라 심력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면 무관심과 이기적인 관심에서 벗어나 남다른 관심이 생깁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 보입니다. 특별히 이웃의 고통과 필요가 보입니다.

이웃 사랑은 관심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사랑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릅니다. 사랑하면 계산하거

나 따지지 않고 물질, 시간, 혹은 마음의 희생을 감수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에 은퇴자금이 없어도 학비부터 내줍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 남은 자식을 50:50으로 나누지 않고 서로 양보합니다. 형제가 부모의 재산 때문에 다투지 않습니다. 사랑하기에 양보하고, 사랑하기에 희생합니다. 희생하지 않고는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희생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크리스천입니다. 그러므로 희생 없는 크리스천의 삶은 의미가 없습니다. 희생을 감수해야 이웃 사랑이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먼저 희생할 때에 이웃의 닫힌 마음이 열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작은 이웃 사랑을 실천해 보고 싶으세요? 식당에 가서 식사 후 팀을 넉넉히 놓고 나오세요. 식당 종업원들은 유창한 식사 기도에 감동하지 않습니다. 이웃과 물질적인 관계에 있습니까? 조금

넉넉한 마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로 이웃 사랑을 실천해 보세요. 옥합을 깬 여인처럼,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하기 위해 희생을 감수한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처럼, 강도 만난 자를 돌보기 위해 물질과 시간을 희생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는 만큼, 희생을 감수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상에 전해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의 슈즈 박스'에 동참하는 이유도 제 3세계 어린이들에게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에는 반드시 희생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교회라는 이름 안에 희생을 하는 교회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푸/른/초/장

이영상 목사
(뉴욕중앙선교회)



예레미야 선지자를 가리켜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감정이 풍부해서 눈물이 많았던 것은 아닙니다. 꼭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과 받아들여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과 거리가 너무나 멀었기에 울었던 것입니다.

신이 나게 놓고 있는 백성들에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외침은 허공만 울리는 외침이었고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는 외침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말씀을 외치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경험은 더러 할 것입니다. 그에게 열심히 전하고 외쳤지만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는커녕 점점 멀어져만 가는 그 사람을 보고 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럴수록 더 선지자로 하여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외치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한번만 전하는 것을 듣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된다면 아마 때때로 예배드릴 때마다 어쩌면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인생들은 수도 없이 들어도 더 깊이 말씀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알고 있던 말씀마저 때로는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멈추지 말고 외치라고 선지자에게 명하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외치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시대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그렇다면 들었던 안 들었던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증상살인인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여러 사람의 같은 말은 쇠라도 녹인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어지는 고사성어입니다. 증상이라는 사람은 공자의 제자로서 아주 효성이

극진한 아들이었습니다. 증삼에게는 아주 나이가 많은 어머니가 있었고 증삼은 어머니를 누구보다도 잘 모셨던 것입니다. 증삼의 어머니도 아들 증삼을 굉장히 사랑하고 믿었습니다.

증삼이 공자를 따라 마을을 떠나고 없던 때에 그 증삼이가 사람을

자꾸 우리의 귀에 말씀을 들려주면 결국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스며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마다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많이 참여하는 사람이 아무래도 말씀도 마음속에 많이 담겨 되는 것이고 이것은 어쩌면 당연한 말이기도 합니다. 주

일에 딱 한번 예배드리는 것으로 끝난다면 어쩌면 평생가도 결코 주일 예배 한번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변화를 받는다는 것을 기대하기가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외쳤습니다. 주께서 권유하셨기 때문이라고 본문 7절은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성도로 부름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마음에 명령을 하십니다.

성도가 처음 되고 나서 여러 변화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특징은 입이 근질거리진다는 것입니다. 자랑하고 싶어집니다. 내가 가진 좋은 옷 좋은 차 잘 커준 아들 자랑하고 싶어 입이 근질거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랑을 하고 싶어집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어집니다. 아마 여기계신 우리 모

들이 칭찬하지 않았습니까. 대신 조롱했습니다. 사람마다 종일토록 조롱했다고 말씀합니다.

8절을 보면 내가 말할 때 마다 사람들은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었다고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외치기만 하면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릴 정도로 예레미야는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흘리는 눈물은 말씀을 외치다 치욕과 모욕거리가 조롱거리가 되어서 흘리는 것이 아니라 슬픈 드라마 보다가 흘리는 눈물입니다. 동조하는 얼굴모습이 아닌 것 같은데 드라마 보다 눈물을 안 흘립니까? 저만 그런가요?

두는 누구나 다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입만 열면 예수님 자랑이고 내가 다니는 교회자랑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권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주시는 마음입니다. 예레미야에게도 성령님의 강권적 권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도 외치기가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외칠 때마다 백성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보다 강해서 내가 결국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외친 후의 결과는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야 잘도 외치는구나'라고 사람

선지자는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예레미야만 선지자는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선지자로 주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까 그래서 선지자는 눈물을 흘릴지라도 말씀을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 힘이 들어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다시는 말씀을 선포하지 않겠다고 결심도 했다고 9절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 결심을 하고서 마음이 편안해진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이 불붙는 듯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결국 다시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하지 않는 것보다 차라리 전하는 것이 편한 눈물을 흘리더라도 다시 전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경우를 만났습

다. 그래서 이렇게 고린도전서 9장 6절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하지 않으면 화가 생긴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크게 울린 것은 그를 둘러싼 가까운 사람들의 비방과 그리고 사방의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친한 벗들조차도 저러다 타락할 것이라고 여기고 유혹에 빠트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몰락을 보고 싶어 하는 주변사람들 때문에 선지자는 슬퍼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겪는 일입니다. 특별히 열심을 내려고 하면 꼭 가까운 사람들부터 먼저 비웃음을

당하게 됩니다. 괜히 나서지 말고 조용히 있어, 혹은 언제까지 하나 한번 두고 보지, 아니면 예레미야의 벗처럼 저러다 제풀에 그냥 주저앉겠지 라고 비아냥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만 겪는 경험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만나게 되는 경험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런 환경 앞에 눈물만 흘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11절을 보면 "그러하오나" 이 말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비방과 조롱거리와 모욕과 치욕을 만날지라도" 라는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같이 하시는 고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질 것이고 나를 이기지 못할 것이고 그들이 큰 수욕을 당하게 될 것이며 그 수욕은 영영히 잊지 못할 것이 될 줄을 확신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결코 하나님이 부르신 선지자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눈물이 많아서 연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셔서 힘 있고 능력 있는 자로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또 외쳤습니다. 주님 만나는 날까지 눈물을 흘리며 외쳤습니다. 결코 멈추지 않는 외침이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야 삽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우리에게도 멈춤이 없는 외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만나는 사람들의 영혼을 사랑해서 울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좋으신 하나님이나를 지켜주시는 것을 믿기에 외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처럼 이 땅에 예수님을 전하는 선지자로 불러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드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그 습대로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온 땅에 사람들에게 좋으신 하나님을 외치며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sang78us@yahoo.com

선지자 우는 마음

(예레미야 20장 7-10절)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벤엘교회 담임목사: 백신종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15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45 EWM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410)461-1235, Fax: (410)461-6823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http://www.bethelchurch.org/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5:30 금요찬양회: 오후 8:00 목회, 청년, 종교통발 (주일외) 오전 11:00, (금) 오후 8:00 Tel: (508)435-4579, www.bostonkorea.org 2 Main St, Hopkinton, MA 01748	살롯장로교회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1부예배: 오전 10:45 토요새벽기도: 새벽 6: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대학원: 오후 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영회, 청년, 은퇴: 오전 10:45 중, 고등학생: 오전 10:45 Tel: (704)877-6642, (704)529-0900 701 Scalyebark Road, Charlotte, NC 28209	시애틀평강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1부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일예배: 오후 7:30 토요새벽기도: 오전 6:00(월-금) 토요일: 오전 6:30 Tel: (206)527-0981, Fax: (206)524-1746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www.kpccseattle.org	안디옥교회 담임목사: 강준수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Tel: (702)749-9929, Fax: (702)778-6876 7835 Dean Martin Dr, LV NV 89139 www.omychurch.org	알칸사 제자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1부예배: 오전 11: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501)920-9049, 사택: (501)245-5178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www.jeas.com	앵커리지열린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1부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Tel: (907)344-6446, Fax: (907)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엘파소열린교회 주일1부예배: 오전 9:00(영어)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7:30 Tel: (915)755-1490, 사택: (915)751-4365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백운영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2: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422-0288, Fax: (215)422-9037 706 Witmer Rd, Horsham, PA 19044	킬린은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환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0:50 수요일예배: 오후 7: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찬양회: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Tel: (254)535-1842(H), (254)501-4933(C) 1000 E. Vetsir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	워싱턴메시아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1:30(EM)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www.mpcow.org Tel: (703)941-4447, Fax: (703)941-4448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주 예수교회 담임목사: 배현찬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15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www.jkc.org Tel: (804)560-7500, Fax: (804)560-7514 10201 Robious Rd, Richmond, VA 23235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장호 주일 영어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2부예배: 오전 11시 주일 3부예배: 오후 7시 수요일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화-토) Tel: (253)536-6675, 사택: (253)888-9249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www.tacomacrcc.com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조진모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www.kcup.org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 자연스레 붙여지는 호칭이 있다. '성도'라는 표현이다. 교인이라고도 부르지만 조금은 속된 표현이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 교인, 그것보다는 성도라는 말이 더 맞는 말이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 '성도'라는 말은 참으로 복된 이름이다.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의 신앙생활은 시작된다.

신앙과 삶의 첫걸음
성도의 첫걸음, 신앙과 삶의 첫걸음은 무엇인가? 예배이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배를 드리다가, 예

것이 다
신(新) 사사시대
사사시대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정하신 길과 방향이 아니라 자기 소견을 따라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 그 중심에 예배의 실패가 있었다. 오늘날도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교회와 교회가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사회가 무너지는 것이다. 영적으로 실패하면 삶의 실패와 방향이 열매로 드러나는 것이다.
목회자들 가운데, 자신이 사는 땅을 스스로 저주하듯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한인들이 그 지역을 자꾸만 떠난다는 것

만, 예배가 되지 못하면 사명도 그저 삶을 위한 일거리에 불과할 것이다. 사역자마저도 본전 생각하는 타락한 삶꾼으로 전락하게 될 따름이다.
의인의 삶-포기
많이 가질수록 선한 것으로 인정하는 세상에서 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잘 버리기만 하여도 세상가운데 굳게 일하듯 한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 시간 내 물질 내 인생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가장 고상하고 가치 있음을 생각해야 한다. '하나님 이젠 너무 귀한 겁니다. 이것을 얻기 위해서 제가

받지 못한 채, 어리석은 부자의 길을 반복하며 살게 될 것이다.
전투하는 의인들-교회
땅을 고치는 의인들의 전투하는 군대가 교회이다. 교회만큼 세상을 바꾸는 강력한 집단이 없다. 반대로 교회만큼 세상 앞에 노출되어, 공격공격을 받는 집단도 없다. 로컬체치의 한계 속에서 당하는 어려움들이 크다. 최근 한국의 교회들 가운데 대형교회들이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그런 교회들만큼 일을 많이 하고 대사회적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없어도 불구하고, 사단의 집요한 공격들 앞에 속수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전남수 목사
(알간사 제자교회)

영정귀 가지덤불의 땅을 고치는 의인

-성도, 교회, 세상

배를 통해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된다 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참된 성도의 삶을 기대할 때, 예배를 배우고 가르쳐야 한다. 때로는 율법같이 보일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것같이 보이기도 하지만, 예배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몸이 배어지고 익혀지고 우리 몸에서 나타나지 않고서는 축복의 통로가 열려질 수 없기에 예배를 가르치고 배워야 한다.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예배가운데 기쁨을 얻고 예배가운데 문제가 해결되고 예배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할 때, 오직 한 가지, 예배 잘 드리겠다는 한결같은 믿음과 한결같은 그런 각오를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한다.

교회의 존재 목적

이 세상에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도 결국은 예배이다. 예배 중에 하나님은 영으로 임재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인생들과 같이 거하실 수가 없는 분이요, 왜냐하면 우리하고는 격이 다른 분이시기 때문에 같이 거하실 수가 없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거하시기를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교회이고 예배이다. 하나님께서는 예배가 없는 곳에서 예배가 있는 곳으로, 교회가 없는 곳에서 교회가 있는 곳으로 그 백성들을 인도해 가신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방향이다.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가르쳐주시는 방향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내가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느냐? 내가 지금 어디를 바라보면서 가고 있느냐?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향을 따라 길을 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요, 예배자이다. 주님께서는,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하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예배만으로 만족하지 못할 때 우리는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가 수 없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우리는 천국까지 가는

이다. 이런 저런 이유를 말하지만, 진짜 문제는 땅이 아니라, 그 땅의 교회들과 그들의 예배가 무너지고 있는 이유이다. 어느 한곳 온전함이 없이 지역의 큰 교회들이 분장하여 계속 나뉘지는 흥역을 치렀던 것이다. 영적으로 무너짐이 그 땅을 저주받은 땅, 떠나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사람이 좋아야 땅이 좋아진다. 사람이 좋아질 방법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고, 그들이 섬기는 교회는 예배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지역적일 수 없는 흥년의 때에, 이삭은 어떻게 백배로 결실을 하게 되었는가? 흥년이었는데도 그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기에 그 땅이 기름지고 좋아진 것이다. 결국 인생의 모양이 영터리에도, 좋은 땅에 조상묘만 잘 쓰면 된다는 풍수지리 땅 깨번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야기이다.

영적으로 바로 사람이 서지 못하면, 땅은 버려진다. 인생이 좌를 범하였을 때, 땅이 영정귀와 가지덤불을 내었듯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의 모습이 기준이 된다. 조국 대한민국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다고 난리한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비판적인 일들이 보여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소망이 남아있음은 기도하는 의인들 때문이다. 아직도 새벽을 깨우는 교회들의 간절한 기도의 부르짖음이 조국 교회가운데 여전한 열매를 맺고 있다. 이들이 영정귀를 발명하는 땅을 고치는 의인들이다.

의인의 본질-예배자

땅을 고치는 하나님 앞에서의 의인들은 누구인가? 무엇보다 그는 참된 예배자이어야 한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인생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주시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절대요구는 한가지였다. 만복의 근원이신 당신을 섬기며 예배하라는 것이다. 의인됨을 위해, 한 사람의 성도로서 참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

예배의 훈련도 필요하다. 성도로서 참 예배자의 자세를 배우고 바르게 가지지 못하면, 실패의 참극을 피할 수 없다. 교회에 벽돌 한 장이라도 엮을 수 있는 사명자의 삶도 예배에서 출발한다. 사명도 중요하지

얼마나 수고했는데 주님 요것만은 어떻게 좀 안되겠습니까? 하면 주님이 '그게 그렇게 귀하냐? 그럼 너 그거 가지고 너는 땅이다'라고 말씀하실 것이다.
내가 지금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배치될 때 그것을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인성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실 수 없다. 더 좋은 것을 주시고, 더 귀하게 쓰시려고 함에도, 굳이 그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포기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손에 붙잡힌 의인이 되지 못한다. 어리석은 인생의 단면이다.

우리는 놓아야 한다. 놓을 때, 탁 하고 놓을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할 때에 잘 놓는 사람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잘 놓을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하나님이 다 채워주심을 보며 모두가 즐거워할 것이다.

의인의 순종-소유권 반납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곧 하나님의 것,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때, 비로소 내러놓을 수 있고, 맡겨드릴 수 있고, 나뉘므로 더욱 풍성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러나 인생은 착각할 때가 많다. 착각하면 죽는 것이다. 절대 착각하면 안 된다. 내 인생의 소유권은 나에게 있지 않다. 백년을 살든 천년을 살든 성경에 가장 오래 살았던 므두셀라와 같은 자이라도 인생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이제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인생도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것이다. 단지 우리의 인생은 사용권과 관리권만 있는 것이다.

소유권과 사용권의 사상이 분명할 때, 의인은 순종케 된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을 보라, 비록 백세에 얻은 아들이라 하여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함으로, 순종의 자리에 이르게 된 것이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이를 쓰신다. 왜 순종하지 못하는가? 아직도 인생의 연함과 물질과 관계와 모든 것이 여전히 자기 것인 줄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금도 주님 손에 붙들려 쓰임

무책 당하는 것을 본다.
그러나 그럼에도, 교회는 중국적으로 승리할 것이다. 크고 작은 전투에 넘어지고 때로는 연약하여도 마침내 중국의 전쟁에서는 반드시 승리의 개신가를 부를 것이다. 모든 의로움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 대장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때문이다. 그의 심자가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미 영원한 승리가 보장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여전히 죄인인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고 의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천국은 완전한 의인들의 모임이다. 교회는 가라지와 알곡이 함께 존재하지만 천국의 분점과 같은 역할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 연합함을 넘어 땅을 고치기에 충분한 전투부대가 되는 것이다.

davidnjon@yahoo.com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우리교회 목사님이 설교 중에 WCC에 대해 비판하시면서 그들은 예수님의 유일성을 부인하는 다원주의라고 말하셨습니다. 한국교회도 몇년전 WCC 총회를 부산에서 한다고 말이 많았는데 현 WCC 단체의 교리에 대한 문제점들을 비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LA에서 무명

A: WCC는 영어로는 World Council of Churches 라고 하며 한국어로는 세계교회협의회라고 칭합니다. 몇년전에 한국 부산에서 WCC 총회를 할 때 유명 목회자들과 교회들이 이 운동에 참여하여 한국교회가 시끄러웠습니다. 한마디로 오늘날의 WCC는 종교다원주의(Religious Pluralism)와 종교혼합주의(Religious syncretism)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정은표 목사가 매 달 발행하는 개혁신앙 17호 부록에 게재된 신원균 박사의 "WCC 무엇이 문제인가?"를 보면 조직신학적 관점에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3-44 p.).

1. WCC의 성경론 - WCC의 성경관은 신정통주의, 자유주의, 급진주의 및 로마카톨릭의 성경관이 혼합되어 있다. 1차 총회 직후 소개된 워드햄 문서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

종교다원주의와 종교혼합주의 성격 띤 WCC...

정통 기독교와 성경론 인간론 구원론 기독교론 달라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경험되고 체험될 때만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그러므로 칼 바르트적인 성경관에 영향을 받았고 결국 이것은 성경 그 자체의 권위와 무오성을 부정하고 해석자에 의해 해석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문서로서의 성경은 문자에 불과하다.

비판: "개혁주의 성경관은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본분에 대해 정확 무오한 유일의 법칙이라고 신적 영감성을 주장한다. 우리는 완전영감, 유기적 영감, 축자 영감을 믿는다."

2. WCC의 인간론-정통기독교가 제시하는 죄의 본질, 전적부패, 지옥의 심판등과 같은 죄론을 제거하고 죄를 육신적이며 사회적이고 세속적인 것으로 변형시켰다. 즉 개인의 죄와 비참함을 부정하고 사회적인 부조리, 가난, 질병, 정치적 억압, 남녀불평등 등을 죄의 본질로 취급한다. WCC는 해방신학의 영향으로 죄를 사회구조 악으로 제시한다.

비판: 개혁주의 인간론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육간의 범죄와 타락을 다룹니다. 타락 후에 인간존재는 아담이 자유의지로 선악과를 따먹어 죄에 빠졌고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원수가 되어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는 영원 형벌을 강조한다.

3. WCC의 기독교론-1회 총회부터 WCC의 기독교론은 전통적으로 기독교가 고백해온 "이성일인격(Two nature, one person)과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독특성을 부인한다. 즉 그리스도의 인성을 강조하여 예수그리스도를 교사나 모범으로 여기고 예수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방도들도 인정한다. WCC는 구원도 예수님을 통한 것이 아니라 예수 외에 수많은 종교적 활동을 통해 가능하다는 종교 다원주의의 구원론으로 확장시켰다.

비판: 개혁주의기독교론은 칼케돈 신조의 고백을 따라 영원하신 하나님이지요 성부와 한 본체이시며 동등하신 분이시며 인간의 본성을 취하신 분이요

4-WCC의 구원론-기독교의 전통적인 고백인 죄와 지옥의 심판으로부터 인간구원의 개념을 사회구원, 만물구원으로 변형시켰다. 사회구원론은 사회적 정치적 부조리와 구조악으로부터 해방과 자유와 경제적 발전을 이룩하는 것이며...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기 때문에 WCC는 "교회를 계속해서 분열시키는 어떠한 종류의 개종에도 개탄한다"라는 고백에서도 알 수 있듯이 타 종교인들을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을 금지한다.

비판: 개혁주의 구원론은 오직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며 인간의 행위와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이신칭의이다.

구독신청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 1년 구독료	미국	\$100	유럽	\$190
	캐나다	\$110	남미	\$190
	한국및 동남아시아	\$190	아프리카	\$190

신청 유형	<input type="checkbox"/> 본인구독 <input type="checkbox"/>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냄		
구독자 이름 (혹은 후원자이름)	한글 :	목사 <input type="checkbox"/>	
	영어 :	평신도 <input type="checkbox"/>	
배달 주소			
전화/Fax	()	()	
★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내는 경우에는 받는 분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받는분 이름	한글	영어	
전화번호/Fax	()	()	
배달 주소			
교회/기관명			

▶ E-mail로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E-mail: nychpress@gmail.com

신청일자: 200년 월 일 신청인 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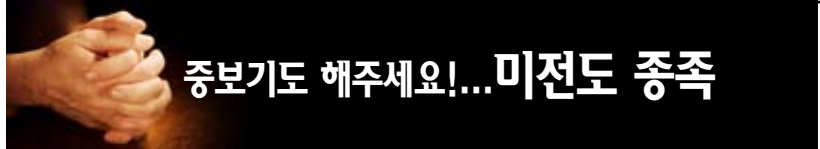
★ 저희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 A: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46
E-mail: lachpress@gmail.com

■ N Y: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아프리카의 하우스(HAUSA)



8개 국가에 거주하는 9개 하우스 종족의 통합 파 일. 2300만이 나 되는 하우스 종족은 중앙아프리카에서 가장 규모가 큰 종족집단이다. 이들의 문화는 이슬람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역사는 이민과 정복으로 점철돼 있고, 19세기 초 이후로 풀라니족(Fulani) 침략자들의 영향을 받았다. 여러 세기 동안의 원거리 무역에 주로 종사해온 데다가 그들의 민족성 자체가 동화력이 있어서, 하우스의 문화적 경계는 점진적으로 확장해왔다.

하우스의 언어는 빠른 속도로 북부 나이지리아의 주요 언어가 되고 있다. 사하라 주변에 사는 다양한 민족들이 하우스어를 또한 사용하고 있다. 토루베족(Torobe)과 펠라타족(Fellata)을 비롯한 풀라니족들 일부는, 하우스 사이뿐만 아니라, 하우스의 문화까지도 받아들였다. 2천만 이상의 하우스족은 나이지리아의 북부지역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이 곳을 "하우스의 땅(Hausaland)"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동부의 수단과 에티오피아와 함께, 대부분의 서아프리카 국가들에도 많은 하우스인들이 살고 있다. 그들은 서아프리카의 주요 도시에서 잘 정착하고 있으며, 문화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매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영향력 있는 강한 크리스천 일꾼들이 되기를 바라고 계신다.

하우스의 문화는 이슬람과 강한 연결고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남부 나이지리아의 크리스천들에 대해서 강한 편견을 가지고 있으며, 크리스천으로 개종한 하우스인들을 강렬히 박해하고 있다. 대부분의 하우스 사회에는 이용할 수 있는 기독교 자원이 있다. 그럼에도 불행한 일은 예수께 마음을 연 사람은 거의 없다는 사실이다. 이슬람이 하우스의 무역상들과 종교인들에 의해 서아프리카 전역에 퍼져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사람들은 하우스인이 무슬림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복음에 계속 저항적인 태도를 보이는 주요 이유 중 하나다. 다른 무엇보다도, 하우스족에게는 현존하는 기독교 자원이 제대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기도가 필요하다.

삶의 모습

하우스족은 주로 농부나 양치기로서, 또는 무역을 하며 생계를 유지한다. 재배하는 작물로는 수수,

옥수수, 쌀, 양, 땅콩, 담배 같은 것들이 있다. 농부나 양치기라 하더라도, 2/3 정도는 농업이 아닌 일을 부업으로 가지고 있다.

하우스 무역상들의 특징적인 외모는 길게 늘어뜨린 가운과 수를 놓은 모자를 쓴다는 것이다. 그들은 많은 시간들을 지방 시장에서 가죽제품과 철제 자물쇠, 마구 같은 물건들을 팔러 다니는데 사용한다. 시장은 하우스 사회의 전통적인 한 부분으로서, 사회적 경제적 중요성을 가진다. 남자친구들과 친척들이 그곳에서 만나서 마을 일을 의논하고, 옷을 잘 빼입은 처녀들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그곳으로 간다.

대부분의 하우스인들은 시골농촌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의 농촌에는 2,000에서 12,000명 정도의 인구가 산다. 촌락의 내외에서 인구의 1/3에서 1/2 정도는 대가족으로 이루어진 소규모 농촌부락을 이루며 산다. 이러한 현상을 바탕으로 경제단위는 가부장적 권위와 지도 아래 유지되는 것이다.

하우스의 사회구조 내에서 개인들은 그들의 직업과 소유재산에 따라 평민 또는 수장(chief)으로

분류된다. 혼인관계는 가까운 친척, 특히 사촌 등이 배우자로 선택된다. 그것은 부계사회로서 남성의 혈연을 따라 후손들이 이어지는 것이다. 부유한 하우스인들의 옷장에는 전통의상에 따라 수를 놓은 가운과 샌들, 가죽 슬리퍼 등이 있다.

하우스의 여자는 12-14세에 대개 결혼을 한다. 이혼률이 높긴 하지만 여자는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압력을 많이 느끼고 있다. 그래서 오래도록 결혼하지 않고 지내는 일은 별로 없다. 혼인 상태에 따라서 여자들을 사회적으로 차별하는 일은 중요하게 여겨진다.

하우스의 여자들은 남자보다 교육의 기회가 적다. 그들은 친척집에 방문하거나, 축제 또는 일터에 갈 때 빼고는 외출에 제한받는 일이 흔하다. 여자들은 아이를 기르고, 잡다한 가사를 하는 등의 일을 주로 맡고 있다. 또 물을 길러오고, 요리할 때 필요한 연료를 구해오는 일도 한다. 밭일도 하고, 남자들이 수확하는 일도 돕는다. 그 뿐만 아니라, 남는 시간마저 시장 일에 쓰도록 하고 있다. 벌어들인 돈은 팔

의 지참금을 저축하는 데 쓰인다. 하우스족은 매우 근면한 민족이며, 나태는 용납되지 않는다. 사실상, 그들은 몇 가지 다른 직업들을 동시에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컨대, 군대에 있으면서 무역과 상업을 하고 사회사업도 하며, 이슬람 전파에도 힘을 쏟는다. 이런 점에서 그들은 자기들이 살고 있는 많은 국가에서 종교와 상업 영역을 독식하게 됐다.

신앙

서기 1500년경에 이슬람교가 북부 무역상들에 의해 하우스족에게로 들어왔다. 도시에 사는 하우스족들은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즉시 받아들였다.

1804년과 1808년에 "성전(holy wars)"이 일어나면서 하우스족은 주변의 강대한 이슬람 종족인 풀라니족에 정복됐다. 그때, 많은 시골사람들도 강제로 또는 돈을 받는 대가로 무슬림이 됐다.

오늘날, 하우스족은 완전히 무슬림 민족이다. 그들은 주변민족들에게 이슬람을 전파하는 데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대단히 독실

한 무슬림으로서, 이슬람의 의식들과 축제 모두를 준수한다.

필요로 하는 것들

하우스의 문화는 이슬람과 강한 연결고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남부 나이지리아의 크리스천들에 대해서 강한 편견을 가지고 있으며, 크리스천으로 개종한 하우스인들을 강렬히 박해하고 있다.

대부분의 하우스 사회에는 이용할 수 있는 기독교 자원이 있다. 그럼에도 불행한 일은 예수께 마음을 연 사람은 거의 없다는 사실이다. 이슬람이 하우스의 무역상들과 종교인들에 의해 서아프리카 전역에 퍼져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사람들은 하우스인이 무슬림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복음에 계속 저항적인 태도를 보이는 주요 이유 중 하나다.

다른 무엇보다도, 하우스족에게는 현존하는 기독교 자원이 제대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기도가 필요하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이집트서 콥트교도 탄 버스에 충격...7명 사망

2일 오후 이집트 중북부 미나 지역에서 콥트교도가 탄 버스 3대에 괴한 일당이 총격을 가해 최소 7명이 숨지고 약 20명이 다쳤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부상자 가운데는 어린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니파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는 무슬림 여성을 체포한 데 대한 보복이라면서 이 충격 테러가 자신의 소행이라고 주장했다.

총격 당시 이 버스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미나 지역의 외딴곳에 있는 성사무엘 수도원으로 향하던 콥트교도 일행을 태우고 가던 길이었다.

이집트 콥트교단의 불스 하림 대변인은 AP통신에 중상자가 많아 사망자 수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슬람 수니파가 대다수인 이집트에서 콥트 교도는 10%(900만명) 정도를 차지한다. IS가 본격적으로 활동한 2014년부터 콥트 교도에 대한 테러가 빈발했다.

IS는 콥트교를 이단 종교라면서 자신들의 원리주의적 종교성을 과시하고 공포를 조장하려고 콥트 교도를 테러 표적으로 삼는다.

이날 테러는 작년 12월 29일 카이로 남부 헬만 지역에서 발생한 마르 미나 콥트교회 총기 난사(11명 사망) 이후 10개월 만이다.

작년 5월에도 IS가 같은 도로에서 성사무엘 수도원으로 가던 버스를 공격, 콥트교도 29명이 숨졌다. 지금까지 IS의 테러로 사망한 이집트의 콥트교도만 100명 이상이다.

이집트 내 IS는 북동부 시나이 반도가 근거지였으나 정부군의 소탕작전을 피해 남하하는 추세다.

피살 케냐 기독교인들 이야기

한 달 전 아프리카 케냐에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게 피살된 기독교인들은 끝까지 신앙을 지키려다 살해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코란 구절을 외우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테러리스트들에 협박에 "예수 그리스도는 내 구주"라고 고백한 뒤 총에 맞았다.



국제기독연대(International Christian Concern-ICC)는 지난달 초 소말리아의 극단적인 이슬람 테러조직인 알샤바브(al-Shabaab)의 테러로 숨진 두 명의 케냐 기독교인의 마지막 행적을 목격자들의 말을 인용해 최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소말리아 접경지대인 케냐 북동부에서 벌어졌다. 피해자인 프레드릭 음구이 음곤데와 조슈아 오코 오빌라 등은 버스를 타고 케냐 가리사에서 마살라니로 가던 중이었다. 7명의 괴한이 총으로 위협하며 버스 안으로 올라왔다.

괴한들은 모든 승객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프레드릭과 조슈아 등 3명의 외지인을 버스 밖으로 끌어냈다. 이들은 버스에서 내린 승객들에게 무슬림임을 밝히거나 코란 구절을 외우라고 요구했다. 3명 중 한 명은 코란을 외워 버스로 돌아갔다.

신앙심 깊은 기독교인인 프레드릭과 조슈아는 괴한들의 요구를 거절했다. 오히려 이들은 괴한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내 구주다. 내 기독교 신임을 부정할 수 없다"고 말한 뒤 괴한들이 총 총에 맞아 현장에서 숨졌다.

프레드릭은 마살라니의 동아프리카 오순절 교회에

다니며 교회 성가대를 이끌었다고 한다. 교회 목회자인 코스마스 므윈지는 프레드릭에 대해 "교회와 가정에서 충실하게 살아온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라면서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언제나 열정적이었으며 다른 성도들을 사랑한 사람"이라고 전했다.

프레드릭의 아내인 페니아 므와타는 ICC와의 인터뷰에서 "따뜻하고 배려심 넘치던 남편이 나와 두 살 아기를 낳고 떠나 고통스럽다"면서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언젠가 천국에서 남편을 꼭 다시 만나고 싶다"고 울먹였다.

조슈아는 버스 회사 기계공이었다. 그의 가족들은 조슈아의 회사 동료인 버스 운전사를 비난했다. 가족들은 "동료인 조슈아가 위험에 처했는데도 무슬림이자 회사 동료인 버스 운전사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말리아에 근거지를 둔 알샤바브는 알카에다와 연계된 테러조직으로 소말리아를 넘어 동아프리카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케냐 등 아프리카 연합이 2011년 소말리아 치안 유지를 위해 다국적군을 파병하자 알샤바브는 세력을 규합해 다국적군 파병국에서 테러를 벌였다.

케냐의 피해가 심각했다. 알샤바브는 케냐에서 2014년까지 100건이 넘는 테러를 벌여 370명을 살해하고 1075명을 다치게 했다. 2015년 4월엔 알샤바브 조직원 4명이 가리사의 한 대학을 급습해 무려 152명의 학생을 살해했다. 2016년엔 만데라의 게스트하우스에서 12명의 기독교인, 2017년엔 라무에서 4명이 각각 살해됐다. 알샤바브는 지난 2월에는 과르사 초등학교에서 테러를 감행해 기독교인 교사 3명을 죽였다.

'말하는 바나나' 가 초교 급식에 나온 사연

가끔은 사소한 행동 하나가 누군가의 삶에 큰 활력을 주기도 한다. 미국 버지니아의 한 초등학교 급식 선생님의 학생 사랑을 엿볼 수 있는 훈훈한 사연이 알려졌다.



투데이뉴스는 지난달 31일 버지니아 주에 사는 스테이시 트루먼씨의 특별한 이벤트에 대해 보도했다. 최근 트루먼 씨는 바나나가 급식으로 나오는 날 한 가지 아이디어를 냈다. 바로 바나나 껍질에 짧은 응원 문구를 적어 아이들에게 나눠주자는 것. 학생들에게 조금은 특별한 메뉴를 전달하고 싶어 떠올린 것이다.

"힘내" "사랑스러워" "포기하지 마" 등 보는 사람을 기분 좋게 해주는 메시지가 바나나에 적혀 있었다. 아이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평소와 다른 바나나의 모습을 보고 '말하는 바나나'라 부르며 즐거워했다.

트루먼씨는 "집에서 제 자녀들한테 해 준 적이 있는데 좋아했다"며 "학생들도 다 제 자녀처럼 생각하는 마음에서 시행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기독교신앙고백 여성 무죄판결에 무슬림 항의시위

기독교 신앙을 고백했다는 이유로 사형 선고를 받았던 파키스탄 여성 아시아 비비(47)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또 다시 재판받을 야 할 위기에 놓였다. 선교단체들은 전 세계 크리스천들에게 지속적인 기도를 당부했다.



4일 파키스탄 일간 돈(DAWN)과 BBC, AFP 등 외신에 따르면 무죄판결에 항의하는 강경 무슬림들의 시위가 확산되자 파키스탄 정부는 비비의 출국을 금지하고 다시 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여러 국가가 비비의 망명을 제안했지만 성사 가능성이 불

투명해졌다.

파키스탄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신성모독 혐의로 8년간 독방에 수감 중이던 비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즉각 석방을 명령했다. 대법원은 "증거가 부실한 데다 적절한 절차도 따르지 않았다"며 "검찰은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사건을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고 판결했다.

기독교 신자이자 네 자녀의 어머니인 비비는 2009년 6월 마을의 한 농장에서 함께 일하던 무슬림 여성들과 말다툼을 하다가 이슬람교 창시자인 무함마드를 모욕했다는 혐의로 고발됐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무함마드는 우리를 위해 해 준 것이 뭐가 있는가"라고 반문했다는 게 주변 여성들의 주장이었다.

비비는 재판에서 신성모독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2010년 1심에 이어 2014년 2심에서도 사형 선고를 내렸다. 파키스탄의 신성모독법은 무함마드를 모독하면 사형 선고도 허용하고 있어 국제적 비난을 받아 왔다.

비비의 무죄 판결이 알려지자 격분한 군중들은 주요 거리를 점거하고 항의 시위에 나섰다. 칸 총리는 지난 1일 TV 담화에서 "시위대는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민을 자극하고 있으니 그 멧에 걸리지 말라"며 대법원 판결을 존중할 것을 호소했지만 역부족이었다.

미국 뉴스는 대법원 판결 직후 비비의 남편이 "하나님께 감사한다. 재판관들이 공정한 판결을 내렸다. 아내를 결백하다"는 소감을 밝혔다. 국제요폰도어선교회 등 비비의 석방을 요구해온 단체들은 비비의 안전과 파키스탄의 기독교 박해 중단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당부했다.

"북한 장마당서 성폭행 빈번"

북한 장마당에서 정부 관리들에 의한 성폭행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는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이유 없이 밤에 눈물이 나오: 북한의 성폭력 실상' 보고서를 발표했다. HRW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집권한 2011년 이후 탈북한 주민 54명과 북한 관료 출신 8명을 인터뷰한 내용을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대 대기근의 여파로 다수 여성이 가족의 생계를 위해 장마당 등으로 장사에 나섰다. 장사를 위한 일종의 뇌물로서 조선노동당 간부, 인민보안성(경찰) 및 국가보위성(비밀경찰) 관리 등은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 및 성추행을 가했다. 케네스 로스 HRW 사무총장은 "북한과의 대화에서 비핵화만 언급하면서 인권 문제는 우선순위에 밀렸는데 근시안적 접근"이라며 "인권 문제와 비핵화 문제를 분리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트럼프가 띄우는 '무역 합의' 혼동...

중국과의 전방위 무역전쟁을 벌이던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돌연 미·중 '무역 합의'를 언급했지만 실제로 양국 간 갈등 현안이 한꺼번에 풀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달 말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통해 양국 간 공정한 무역합의를 할 것이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지만, 실제로 미국 행정부 내에서 장밋빛 전망은 찾아보기 어렵다.

래리 커들로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3일 "좋은 의지와 합의, 두 정상은 개인적 합의라도 있다면 우리는 중국과 구체적 사안을 논의하

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중 간에는 길고 험난한 절차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날 CNBC방송 인터뷰에선 미·중 무역 합의 압박에 대해 "우리는 일상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 큰 움직임이 전혀 없다"며 "합의로 넘어가는 지점에 있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비슷한 입장이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쉽게 해결될 사안이 아니라는 게 지배적이다. 양국 간 갈등이 워낙 복잡하고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 있어 정상 간 전화 통화나 회담 한번으로 모든 현안이 다 풀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2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제품에 고율관세를 부과했다. 이어 2670억 달러 규모의 제품에 추가 고율관세까지 경고한 상태. 여기에 중국이 인위적으로 위안화 가치를 평가절하한다며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의 첨단기술을 중국이 도둑질하고 있다며 중국 산업스파이들을 잇달아 기소했다.

이들 사안에 대한 양국의 시각 차이는 구조적으로 좁히기 어렵다. 미국이 중국에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경제적 항복인데, 이를 중국이 수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중국은 기술강국을 만들려는 중국의 미래 비전과 대국굴기를 포기하려는 요구라며 반발하고 있다. 따라서 미·중 정상회담을 하더라도 모든 문제 해결에 합의하는 차원이 아니라 합의를 위해 협상을 시작해 보자는 차원이 될 것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은 예상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유화 제스처가 미국 중간선거를 며칠 앞둔 시점에 나와 '선거용'이라는 의심도 제기된다.

중국 내에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나온다. 스인홍 인민대 국제관계학원 교수는 4일 "양국 정상회담에서 가능한 최선의 결과는 상호간에 관세부과 유예일 것"이라며 "미국은 중국의 기술발전에 대한 불신을 계속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왕닌난 중국 상무부 부부장은 '평등한 입장'에서 무역 갈등을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시 주석이 5-10일 열리는 제1회 상하이국제수입박람회 개최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상하이국제수입박람회는 130개 국가와 지역에서 총 3000여 개의 기업이 참가하는 초대형 행사다. 그러나 박람회에 참석하는 G20의 정상급 인사는 러시아의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총리 한 명에 그쳐 구 사회주의권과 제3세계 국가들 중심의 반쪽짜리 행사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일제선전 곡조 버리고 '성경목룩가' 새로

한국 기독교인에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로 시작하는 '성경목룩가'의 멜로디는 친근하다. 성경 66권의 제목을 외우기 위해 교회학교에서 이 노래를 가르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이 노래가 일본 제국주의의 선전 도구인 '철도 창가'의 멜로디라는 사실을 아는 이는 드물다.



부산 수영로교회(이규현 목사) 김태영 부목사는 우연히 이 노래가 1900년 일본 메이지(明治) 33년 오노 우메와카가 작곡한 '철도 창가 도카이도 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일제가 도쿄 신바시에서 요코하마 쪽으로 철도를 개통했을 때 지어 부른 4행 66절의 노래였다는 것.

그는 일본 제국주의를 미화하는 노래의 멜로디로 한국교회가 성경목룩가를 부른다는 사실을 안타깝게 여겼다. 그의 제안으로 수영로교회는 새로운 성경목룩가를 제작키로 했다. 예수전도단 찬양인도자 출신 윤주형 찬양담당 목사가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부르며 외울 수 있도록 노래를 작곡했다. 교회 성도들은 음원 제작과 배포를 위해 후원으로 동참했다.

이렇게 탄생한 '성경목룩가 501'이 지난 28일 종교개혁기념주일을 맞아 수영로교회 예배 시간에 소개됐다.

스콜라

‘학교’를 영어로 ‘school’이라고 한다. 이는 ‘여유’ 또는 ‘여가’를 의미하는 고대 그리스어 ‘스콜레’로부터 유래된 것으로, 라틴어로는 스콜라(Schola)로 번역되어 ‘학교’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이는 중세 대학이 세워지기 전 약 9세기부터 가톨릭교회 성당의 부설학교를 중심으로 시작된 교육을 가리킨다.

나아가서 ‘스콜라’라는 단어는 중세 사상가들의 철학체계를 의미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신학을 중심으로 전개된 중세의 철학, 특히 9세기부터 15세기 사이의 유럽의 정신을 대변하는 사상을 ‘스콜라 철학’ 또는 ‘스콜라 신학’이라고 부른다. 이 시기에 활동했던 사상가들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관한 명제들에 대하여 논리적 연구를 활발하게 펼쳐나갔다.

“나는 믿는다. 그러므로 나는 이해할 수 있다”라는 명언을 남긴 캔터베리의 안셀(Anselm of Canterbury, 1033-1109)을 스콜라 철학의 아버지로 부른다. 이성인 신학과 대치되는 것이 아니라는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된 그는 신학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이성을 통해 하나님과 그의 계시를 더욱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확신한 그의 주장은 많은 사람들로 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게 되었다.

랑의 안셈

안셀의 이해를 추구하는 신학 사상을 따르는 여러 제자 중에 랑의 안셀(Anselm of Laon 1050-1117)이란 인물이 있었다. 같은 이름을 가진 선생과 제자는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다. 그는 랑에 성당학교를 세우고 성경과 교부들의 글을 가르치는데 전념하던 신실한 학자였다. 무엇보다 ‘질문’이란 독특한 기법을 통해 신학을 분석하였다. ‘질문’이란, 먼저 특정한 주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질문을 던지고, 교부들과 이에 버금가는 권위를 지닌 자들이 어떤 답을 남겼는지를 살피는 것이다. 여러 답들을 질문에 대한 ‘찬성과 반대’로 배열한 뒤, 논리적으로 자세히 살핀 뒤에 결론에 도달한다.

랑의 안셀의 출발점도 신앙이었기에, 이성의 위치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었다. 신학을 보다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조심스럽게 사용한 것이다. 랑의 학교의 우수성이 알려지자 많은 인재들이 그로부터 가르침을 받기 위해 모여들었다. 그 중 향후 스콜라철학의 판도를 새롭게 변화시킨 한 인물이 있었다. 그 당시 프랑스 철학을 대표하는 피에르 아벨라르(Pierre Abelard, 1079-1142)이었다.

아벨라르는 프랑스 서부 낭트 인근 도시인 팔레에서 태어났다. 명석함을 타고난 그는 어려서부터 공부하는 일을 열중하였으며, 철학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기 위하여 철저히 준비 하였다. 그 당시 유명했던 랑의 성당학교를 찾은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그곳에서 아벨라르는 스승인 랑의 안셀로부터 ‘질문’ 방법론을 잘 습득하였다. 향후 그를 유명하게 만든 사상 체계의 기초를 습득한 것이다. 그러나 그는 선생의 가르침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며, 같은 도

시에서 학교를 세워 선생이 되려 하였다. 원래 거만하고 비평적인 성격의 소유자였던 아벨라르였기에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의 뜻을 펼치려하였지만, 그 지방 주교의 허락을 받지 못해 꿈을 접어야 했다.

아벨라르

시에서 가르치는 선생이 되었다. 그러나 39세가 되던 해에 그는 가정교사의 일을 하다가 평생 집을 지고 가야 했던 치명적인 일을 경험하게 되었다.

대단히 아름다운 미모와 상당한 지적 수준을 갖춘 엘로이즈(Heloise)라는 17세 여자 아이를 제자로 만나 가르치면서 호감을 갖게 되었다. 엘로이즈 역시 아벨라르의 명석함에 반해 버렸다. 결국 두 사람

아벨라르의 저술한 ‘예와 아니오(Sic et Non)’는 스콜라철학을 대표하는 책 중에 하나이다. 그의 초기 의도는 순수한 것이었다. 기독교 신앙을 보다 논리적으로 정교하게 분석하고 답을 얻으려는 것이었다. 그가 랑의 안셀로부터 배운 방법론에 기초하였지만, 자신 나름대로의 이론을 더욱 세련되게 발전시키려 하였다. 단지 그는 그 과정에서 이성 사용을 계시보다 더

보수적 신앙을 가진 스콜라 신학자들은 아벨라르의 사상에 대해 침묵할 수 없었다. 특히 그의 친한 친구였던 생 띠에르의 기욤(William of Saint-Thierry)과 그 당시 많은 자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클레르보의 버나드(Bernard of Clairvaux)가 앞서서 아벨라르의 사상을 저지하려 하였다. 그들이 가장 경계하였던 것은 아벨라르가 이성에 의한 개인의 판단과 믿음의 진리를 동등하게 여김으로, 교회의 신앙적 전통을 거부하려 한 것이다.

이들은 이성 자체를 부정하려한 것이 아니라 이성이 잘못 사용될 때 치명적인 오류를 낳을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성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려 한 것이다.

아벨라르가 중세 역사에서 기억되는 것은 그가 랑의 안셀로부터 전수 받아 나름 세련되게 발전시킨 ‘질문’ 방법론이 중세를 대표하는 신학자인 피터 롬바드(Peter Lombard, 1096-1160)에게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롬바드는 이탈리아 북서부에서 태어났지만 클레르보의 버나드의 추천을 받아 그 당시 스콜라학문의 산실이었던 파리에서 공부를 하게 되었다.

롬바드는 파리의 노틀담 성당학교에서 아벨라르를 만나게 되었고, 학문적 능력을 인정받아 1145년부터 학생을 가르치는 일을 맡게 되었다. 그는 그곳에서 중세 교회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던 ‘네 권으로 된 명제들’이란 제목의 책을 저술하였다. 그는 전통으로 내려오는 보수적 신앙을 버리지 않은 채, 이성을 사용하여 신학적 명제에 대한 답을 얻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중세 대학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교과서로 인정을 받았으며, 성경을 제외하고 사람들이 가장 많은 찾는 기독교 문헌의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

‘네 권으로 된 명제들’에서 롬바드는 ‘예’와 ‘아니오’의 방법론이 선택하였다. 그러나 아벨라르와 달리 교부들의 권위 있는 가르침을 잘 정리하였기에, 서방 교회의 교리적 표준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된 것이다.

1권에서는 삼위일체의 신비를 설명하고, 인간이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의지와 예정 등을 알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다룬다. 2권에서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내용과 함께 죄의 본질과 인간의 의지에 끼친 영향 등을 다룬다. 3권에서는 성육신하신 성자의 신성과 인성과 관계된 여러 주제들과, 성도가 지녀야 할 미덕과 성령의 열매 등을 다룬다. 4권에서는 성례전과 종말을 다룬다. 그가 여기서 제안한 7성례의 전통이 향후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의 법으로 만들어졌다.

롬바드는 스콜라 철학의 방법론, 즉 특별한 명제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예’와 ‘아니오’ 방법론을 사용하면서도, 교회가 인정하는 권위 있는 자들의 객관적 진술을 잘 정리하였다. 어느새 스콜라 신학이 중세 교회의 중심에 자리를 잡게 되었다. 한 권의 책이 당대와 후대 교회에 대단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심지어 16세기 종교개혁자 루터와 칼빈도 많은 영향을 받았으며, 자신들의 글에 인용하기도 하였다.

covenantcho@yahoo.com

중세교회 1000년 - 어둠에 잠긴 구속역사의 현장(23)

조진모 목사 (필라델비아한인연합교회)



중세사상가들 철학체계 ‘스콜라’...하나님과 인간관계 명제 논리적 연구 랑의 안셀 ‘질문’ 방법론, 아벨라르와 롬바드 등 신학자에게 큰 영향

아벨라르는 1140년 교회로부터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다. 보수적 신앙을 지닌 스승 아래서 교육을 받은 그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그는 매사에 대한 ‘질문’에 집중하면서, 이성을 통해 사실을 밝히는 일에 집중하였다.

사실 ‘질문’을 던지는 행위 자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좋은 질문이 좋은 답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벨라

르의 깊은 사랑을 나누게 되었고, 그 결과 엘로이즈는 어린 나이에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게 되었다.

그 당시 사회분위기는 신학자의 결혼을 용납하지 않았었기에, 두 사람은 비밀결혼을 하고 떨어져서 살기로 작정하였다. 그 결과 엘로이즈는 수녀원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의 관계에 대한 소문이 급속도로 퍼져 나갔다. 대성당 참사회 회

중시하는 중대한 오류를 범하게 된 것이다.

그는 먼저 신학적 명제에 대하여 교부들의 답을 돌로 구별하여 나열하였다. 하나는 ‘질문’에 대해 ‘예’라고 답하였고, 다른 하나는 ‘아니오’라고 한 답이었다. 이렇게 나열함으로써 얻는 자연스런 결과는 교부들 사이에 갈등이 존재한다는 사실이었다. 왜 그가 이런 방법론을 전개하였을까?

아벨라르, 이성 사용을 계시보다 더 중시하는 중대한 오류 범해 롬바드, 권위자들 객관적 진술 정리해 교리적 표준으로 자리매김

르가 지녔던 근본적인 문제는, 어떤 질문도 적절한 한계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사실을 부정하려 한 것이다. 즉 그는 신학적 명제에 대하여 이성을 통해 답을 얻어가는 과정에서, 신학적 객관성을 부정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쉽게 표현하자면, 교회의 전통 속에서 결실을 맺은 조직신학을 무시한 채 자기 생각대로 성경을 해석해도 무방하다는 방향으로 잘못 발전시킨 것이다.

아벨라르는 교회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인물이었다. 그의 도덕성 때문이었다. 항상 열심히 노력하였던 그는, 35살에 파리에 소재한 노틀담 성당학교에

원이었던 엘로이즈의 삼촌 풀베르(Fulbert) 역시 소식을 전해 듣고, 크게 분노하여 사람을 시켜 아벨라르를 거세하게 하였다. 아벨라르가 1132년에 저술한 ‘나의 불행한 이야기’에 상세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아벨라르가 교회로 이단으로 정죄를 받은 것은 그의 도덕성 때문이 아니었다. 그의 위험한 사상 때문이었다. 우리도 역시 그로부터 이성을 극대화하려했던 스콜라철학의 위험성을 발견하게 된다.

아벨라르의 위험성

그는 교부들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저술하였지만, 그들도 신학적 명제들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그가 발견한 이성의 위치는 무엇인가?

‘예’와 ‘아니오’ 사이에 생겨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성을 사용하면 신앙을 확증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가 교부들이 전해준 신앙적 전통을 개인의 생각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여겼다는 것은, 그가 신앙을 인간의 견해로 단정하였다는 것이었다.

새로운 전통으로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 On Campus 강의 : 유학생을 위한 SEVIS I-20 발행
- On-Line 방법으로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학점취득 가능
- Blended 강의 : 소집강의와 On-Line 교육을 병행하면서 학점취득 가능

미국 주정부 및 연방정부 교육부의 인준 정규대학교
미국연방정부교육부 USDE 인가 및 CHEA 인가.
ABHE - Midwest University was Granted Accredited Status
USDE (미국연방정부교육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함.
www.ope.ed.gov/accreditation

문의 : 전화 (636)327 - 4645, 이메일 usa@midwest.edu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ESL Program	Certificate Program
Bachelor Degree Programs	BA In Business Administration 경영학 BA In Music 음악 BA In Theology 성서신학, 기독교교육학 Biblical Studies, Christian Education Bachelor of Science in Aviation Management 항공학
Master Degree Programs	MA In Counseling 상담학석사 MA In Education 교육학석사 MA In Music 음악석사 MA In TESOL 영어교육석사 MBA (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 경영학석사 M.Div. 신학석사
Doctoral Degree Programs	Doctor of Ministry 목회학박사 Christian Counseling, Christian Education, Mission Studies, Pastoral Theology Doctor of Music 음악박사 Doctor of Leadership 리더십박사 Ph.D. in Leadership

Midwest University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 (636)327 - 4645 / Fax : (636)327 - 4715
E-mail : usa@midwest.edu

Washington DC Campus
5103-A Backlick Rd. #24, Annandale, VA 22003
Tel : (571)730 - 4750 / Fax : (571)730 - 4751
E-mail : wde@midwest.edu

성경도 신앙(66) 교회와 국가

[알림] 본지 1702호 8면 "자유교회개념을 가진 분리주의자"의 나머지 글을 먼저 게재하고, 1704호 8면에서 계속되는 "교회와 국가"를 그 뒤에 이어서 게재합니다. 필자와 독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합니다.

(1702호에서 계속)
(4) 분리주의자인 미국의 로저 윌리엄스(Roger Williams)

그는 미국의 종교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으며, 특히 종교적 관용의 역사에 있어서 그러했으며 미국의 역사 전체에 있어서도 핵심적인 인물이다. 당대에 그는 비방을 받았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야 그 진실성이 입증을 받았다. 그는 성직자로서 1600년 케임브리지에서 훈련을 받았고 성공회 목사로 장립을 받았다. 그러나 초기부터 그는 그 자리가 별로 탐탁지 않았고 1631년 보스턴으로 가서 거기서 자유를 얻으리라고 생각했다.

보스턴에 도착했을 때 그는 크게 영접을 받았으며 사람들은 그의 성품과 인격을 고상함과 뛰어난 남을 보면서 그를 전체 교회의 교육목사로 지명하고 싶어 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그런 역할을 탐탁스럽게 여기지 않았다. 그는 보스턴에서 만장일치로 교육목사로 선택되었지만 양심적으로 이 제안을 거절하였다. 왜냐하면 그처럼 국가와 교회에 대해 구별 없이 섞여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성직의 역할을 감히 감당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을 시험해보고 성경을 가르쳐보면서 그들이 그런 종류의 사람임을 알게 되었다. 그는 거기 정착한 사람들이 잉글랜드의 교회들과 교통을 갖기 위해 자기들이 회개한 사실을 공적으로 선언해줄기를 원하고 있음을 알았다. 그들은 영국국교회에 대해 아무 것도 말하지 않았지만, 그 영국국교회가 참된 교회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윌리엄스는 안식일이나 십계명의 한 조목을 어긴 사람들을 벌할 권리가 전혀 없다고 가르쳤다.

그가 그런 일에 찬동하지 않는 결과로 보스턴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북쪽으로 더 이동하여 살렘(Salem)이라는 곳으로 갔다. 그



이윤석 목사
(NY 부르크린 제일교회)

곳은 이런 문제들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유명한 장소이다. 거기에 온 그는 다시 목회자로 지명을 받았지만 그는 많은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보스턴에 있는 사람들이 그 전 지역을 관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살렘에서 플리머스(Plymouth)로 가서 2년 동안 있다가 다시 살렘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1636년에 그의 관점 때문에 그곳에서 떠나라는 명령이 그에게 내려졌다. 당시 법정은 사람들에게 "만일 이 관할 하에 있는 어느 누구라도 율법의 첫 돌판에 속한 계명들을 드러내놓고 어진 자들을 심판할 합법적 권한이나 권위가 행정부에게 있음을 부인하면, 그런 이는 추방 선고를 받아야 한다"고 선포했다.

당국은 윌리엄스를 체포하여 잉글랜드로 가는 배 위에 올려놓기 위해 법을 집행하는 직원들을 보냈다. 그러나 그는 즉시 도피하여 프라비던스(Providence) 지역으로 내려와 타운을 설립하였고, 그는 또한 로데 아일랜드주(Rhode Island State)의 설립자가 되기도 했다.

그는 예배의 완전한 자유를 믿었다. 또한 국가는 종교적 신앙을 지지할 어떤 권한도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매사추세츠의 정부와 헌법 아래서는 그 당시 널리 퍼진 관점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했고, 그렇지 않으면 시민이 될 수 없었다. 그는 일차적으로 종교적인 근거를 가지고 그 모든 것을 반대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어떤 정치적인 개념들을 발전시킴으로써 많은 방면에서 미국 민주주의의 아버지 역할을 하였다.

1639년 그는 침례교 관점을 수용하였다. 그때까지 그는 독립 파교도 또는 분리주의자였다. 그러나 그는 침례교도들에게서도 행복을 찾지 못했다. 그를 추방하려고 애썼던 매사추세츠의 총독들도 그의 성품과 그의 경건성에 대해 가능한 최대한의 찬사를 보내었으며 설교자와 교사로서의 그의 능력에 대해서도 그러하였다. 미국 내에서 교회와 국가 사이의 완전한 분리가 이루어진 것은 주로 로저 윌리엄스의 영향력과 가르침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5) 현재의 미국과 영국의 상태

미국은 교회와 국가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 미국인들은 종교적인 자유를 믿지만, 그러나 국교회 같은 것을 믿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와 국가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스코틀랜드는 수정된 국교회라 묘사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교회와 국가가 구분이 되어 있고, 국가가 교회의 영적인 일을 간섭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코틀랜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국가 교회의 개념을 여전히 붙들고 있다. 바로 그 때문에 스코틀랜드교회 총회가 모일 때면, 여왕이 임명한 고등관리(Lord High Commissioner)가 참석하여 총회의 진행과정 속에서 여왕을 대리한다.

아일랜드의 경우 영국국교회가 한때 그곳에 정착되기도 했었지만 아일랜드교회는 19세기에 국교회 형태를 벗었다. 웨일스에서 영국국교회인 성공회가 20세기까지 그곳에서 국교회로 존재하고 있었다. 그런데 1914년에 웨일즈 비국교회화 헌장이 통과된 후 1920년에 그 법안이 효력을 발생했다. 그래서 아일랜드나 웨일즈에 더 이상 국교회는 존재하

지 않는다. 스코틀랜드에서만 수정된 국교회주의자가 존재하고 있다.

물론 잉글랜드에는 여전히 국교회가 존재하고 있다. 로마카톨릭을 선호하는 성공회 교도들은 국교회를 해체함으로써 현재 영국국교회 내에서 주도권을 잡고 있는 자기들의 파가 원하는 대로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랐다.

1928년 앵글로 카톨릭과 사람들은 새로운 공적 기도서를 만들어냈지만, 그것을 영국 의회에 제출했을 때 통과되지 못하고 각각 당했다. 그들은 여전히 국교회가 주는 특권들을 잃고 있으면서도 소위 "영적 자유"라고 부르는 것을 원하고 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히려 복음주의자들은 영국국교회의 해체를 반대하고 있다. 왜냐하면 영국국교회가 해체되면 그 권세가 감독들의 손으로 넘어갈 것이라는 알고 있기 때문이다. 거의 감독들 모두가 현재 교리에 있어서 앵글로

카톨릭과에 속한다. 그러므로 그렇게 되는 것은 복음주의자들을 위해 아주 불행한 일이기 때문에 복음주의자들이 오히려 해체를 반대했던 것이다.

(1704호에서 계속)
4) 일반적 권세의 창조자 하나님

그러나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그렇다고 어떤 특별한 정복자가 반드시 하나님의 세움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다만 정부와 법률과 권위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는 것이다. 사실은 바울이 네로 황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했어야 하지 않는가? 그런데 거기에 대해 전혀 말하고 있지 않다. 그가 말하는 것은 네로황제라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그 황제의 직무가 분명히 하나님께 세움을 받았다는 것이다. "권세들은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는" 것은 구약에서부터 가르친 것이다.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엄격하게 분리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기에 오히려 13장 1절은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을 보여주는 말씀이다. 곧 창조질서나 피조물의 질서가 변화된 것이 없음을 말씀하고 있다.

younsuklee@hotmail.com

영성칼럼



이희녕 사모
(프린스턴한인교회)

축복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그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축복을 해주셨다.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 번성하고 충만해지는 것도 복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정복하고 이 세상을 다스려 나갈 또한 축복이고, 가장 놀라운 하나님을 닮은 형상의 권리라면 그것은 바로 축복하는 마음, 축복하는 말, 축복의 행동이다.

하나님의 심장으로 자신을 축복하여야만 건강하고 행복하다. 축복이 임한 내 영혼이 하나님의 심장의 깊은 사랑의 샘에서 길어낸 생의 기쁨이 넘쳐야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아름답게 보이고 축복이 나간다.

시시 때때로 만나는 문제들을 바라보며 그 문제에 빠져들면 문제가 커 보여 도무지 축복할 맘의 여유를 잃고 문제에 삼켜져 지옥문을 연다. 사람은 홀로 서지 못하고 바라보는 것이 마음에 반영되고 삶에 배어 나오게 되어있다. 당면 열린 지옥문에서 마귀의 형상이 점점 삶을 먹어 들어와 급기야 입을 열면 저주의 마음, 저주의 말, 저주의 행동이 나오게 된다.

자신의 맘을 하나님 닮은 심장으로 지켜냄이 과연 선택이던가? 이 한 마음을 주님의 마음이 머무를 지성소로 지켜 내는가에 과연 죽고 사는 것이 달랐다.

복! 얼마나 우리가 좋아하고 목마른 단어이던가? 그토록 목말라 하는 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풀어놓기만 하면 쏟아질 수 있는 나의 손에 달린 것이었음에 얼마나 놀라운 하늘의 비밀이던가? 내가 받고자하는데로 남에게 할 것이 내게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인생 경영법에 따르면 복만 받고 싶으면 축복하라.

복이란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면 손 안에 쥐어지는 것이 복이던가? 잘 차린 상이 복인가? 상을 잘 차릴 수 있는 능력이 복인가? 다 잡아놓은 물고기를 최고의 솜씨로 요리한 것을 최고급 호텔에서 왕처럼 대접받고 먹게 된인가? 고기 잡는 법, 최고의 요리를 잘할 수 있는 법,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스스로 최고로 요리해 맛있게 함께 즐기며 먹고 나눌 수 있는 그것이 좀 더 멋진 복이 아닐까?

원수가 목말라하면 기쁨으로 그 목마름을 해결해주고 감동시켜 적을 가장 신뢰할만한 친구로 만들어내는 우리 주님의 심장과 지혜가 정말 진짜 놀라운 하늘 복이 아니던가? 우리 주님은 차선보다 최고의 풍성한 생애를 내게 주시고 싶어 애간장이 녹는다.

축복권은 하나님께 속한 자녀에게만 주어지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니 하나님의 형상만 우리 맘껏 축복하여 사막해저만 가는 이 땅에 하늘을 풀어 놓아 보자. 과연 복과 저주가 입술의 열매에 달리지 않았던가?

사랑하는 주님~~
그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던 허다한 쓰디 쓴 일들 가운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자까 좁디좁은 그 마음들을 넓혀 의의 길로 주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함께 주님의 심장으로 손에 손을 잡고 사랑하며 우리 주님을 섬길 수 있을까? 안타까운 애들의 심정을 저의 아구까지 채우셨습니다. 이 마음을 주님의 팔복으로 넘치도록 채우시고 주님의 걸어 다니는 성전 되어 하늘의 축복되십니다. 나를 주님의 마음을 인도록 축복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마음을 사랑으로, 비판의 마음을 이해함으로, 수치스러움, 열등감을 겸비한 감사로, 억울한 분노를 애들의 간구로, 불안하고 불안정한 마음을 평안으로, 불만과 짜증스런 마음을 자족함으로 바꾸어 축복합니다.

내가 먼저 주님의 마음으로 좁디좁은, 여전히 내 사역만 소중한 것으로 생각하는 그 마음을 넓혀보며 축복합니다. 주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길 간절히 염원합니다.

heeenlee55@hanmail.net

<h3>세계로 뻗어가는 교회</h3> <h2>동부(NY, NJ)교회</h2>				<h3>뉴욕갯세마네교회</h3> <p>담임목사: 이지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2:40 세월기도회: 오전 5:30 수요 저녁예배: 오후 8:30 금요 기도회: 오후 8:30 한국원고: 오전 9:30(토)</p> <p>Tel. (516)520-2004, nycg4tc@yahoo.com 2408 5th St., East Meadow, NY 11554 www.nygetsemane.org</p>	<h3>뉴욕목양장로교회</h3> <p>담임목사: 송병기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02:00 수요성경공부: 오후 08:00 금요찬양: 오후 09:00 세월기도회: 오전 05:45</p> <p>Tel. (718)361-9199 Fax. (718)361-9433 12-25 Clintonville St., Whitestone NY 11357 www.moakyang.org</p>	
<h3>뉴욕부르크린제일교회</h3> <p>담임목사: 이윤석 주일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02:00 수요예배: 오후 08:45 금요기도: 오후 08:45 세월기도: 오전 05:30 성경공부: 오전 10:00 화, 토</p> <p>Tel. (718)265-2684 14 Gravesend Neck Rd., Brooklyn, NY 11223 www.kfcb.org</p>	<h3>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h3> <p>담임목사: 김재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예배: 오후 8:30 세월기도: 오전 6:0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p> <p>Tel. (516)883-1977, Fax. (516)883-1961 2 Beacon Hill Road, Port Washington, NY 11050</p>	<h3>뉴욕새벽별장로교회</h3> <p>담임목사: 정기태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후 1:30 주일 3부예배: 오후 1:15 수요성경공부: 오후 8:00 세월기도: 오전 6:00(월-토) (화-토)</p> <p>Tel. (917)733-7387 45-16 162 St., #204, Flushing NY 11358 chungkita@yahoo.com</p>	<h3>뉴욕새생명장로교회</h3> <p>담임목사: 허윤준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주일 4부예배: 오후 8:30 금요기도: 오후 8:30 세월기도: 오전 6:00</p> <p>Tel. (718)637-1470 45-50 162 St., Flushing, NY 11358</p>	<h3>뉴욕새사람교회</h3> <p>담임목사: 이종원 주일 1부예배: 오전 10:30 영양예배: 오전 10:45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세월기도: 오전 6:00(월-토) 주일학교: 오전 10:30</p> <p>Tel. (718)1861-2810/Fax: (917)37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p>	<h3>뉴욕선서교회</h3> <p>담임목사: 김재열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세월기도: 오전 5:30(월-토)</p> <p>http://www.cpcofny.org Tel. (516)387-9940, 9942(EM) 154 Old Westbury Road Old Westbury, NY 11568</p>	<h3>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h3> <p>담임목사: 이만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1:30 수요예배: 오후 8:30 금요(안식)예배: 오후 8:30 세월기도: 오전 5:30(월-토)</p> <p>Tel. (718)7406-7577, (718)938-1777 188-12 73 Ave., Fresh Meadows, NY 11366 www.nyantioch.com</p>
<h3>뉴저지성도교회</h3> <p>담임목사: 허상희 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10 세월기도회: 오전 5:40(화-금) 금요기도회: 오후 8:30 (매주 주, 수)</p> <p>Tel. (201)342-9194, Fax. (201)943-5204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http://sungdochurch.org/</p>	<h3>리빙스턴교회</h3> <p>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50 주일학교: 오전 10:50 청년성경공부: 오후 1:30 주일학교찬양: 오후 12:30 주일학교성경공부: 오후 1:30 수요 찬양모임: 오후 8:30</p> <p>Tel. (718)961-2171, Fax. (718)961-3631 215-29 42 Ave., Bayside, NY 11361</p>	<h3>빛과소금교회</h3> <p>담임목사: 정순원 주일 오전 7:30분 주일학교: 오전 11:50분 주일학교 오후 1:50분 청년예배 오후 3:15분 세월기도: 매일 오전 6시 금요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7시 30분</p> <p>Tel. (347)513-1351, ccheongsnoon@yahoo.com 45-11 149 St., Flushing, NY 11355</p>	<h3>주비전교회</h3> <p>담임목사: 이규본 주일예배: 오후 12:30 세월기도(월-토): 오전 6:00 금요찬양: 오후 5:00 영양예배: 오후 1:00</p> <p>Tel. (718)787-8999, bonrhee@hotmail.com 70 Plandora Rd., Manhasset, NY 11030</p>	<h3>퀸즈장로교회</h3> <p>담임목사: 김성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12:15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예배: 오후 8:00 세월기도: 오전 6:00</p> <p>Tel. (718)866-4040, Fax. (718)358-7789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www.kapca.org</p>	<h3>퀸즈한인교회</h3>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절친이예배: 오후 1:30 NCF예배: 오후 1:30</p> <p>Tel. (718)672-1150 Fax. (718)672-1151 89-00 23rd Ave., East Elmhurst, NY 11369 www.kcny.org</p>	<h3>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회원을 찾습니다</h3> <p>■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h3>세계로 뻗어가는 교회</h3> <h2>하와이 및 북미 지역</h2>				<h3>밴쿠버빌라델비아교회</h3> <p>담임목사: 김성훈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공부: 오후 7:00 세월기도: 오전 6:00(월-토) 금요찬양: 매일 오전 6:00, 마태복음 23:37 금요찬양 7:30(매주 목요일) 오후 7:30</p> <p>www.pcov.org Tel. (604)584-5780, Fax. (604)584-5717 9135 132nd St., Surrey, B.C., Canada, V3V 5P6</p>	<h3>브라질 서울교회</h3> <p>담임목사: 하경남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세월기도회: 오전 5:40</p> <p>Tel. 3277-1489, Fax. 3209-9343 Rua Joaquim Piza, 281 Cambuci S. Paulo Cep 01528-010</p>	<h3>브라질 한인교회</h3> <p>담임목사: 한봉현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포아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8:00 세월기도: 오전 5:45</p> <p>Tel. 011-55-11-3270-9233, 3277-3141 R. Livreiro Alves 16 Liberdade SP CEP 01505-010</p>
<h3>브라질 새소망교회</h3> <p>담임목사: 박재호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5:00 주일학교: 오후 7:00</p> <p>Tel. (5511)6693-9754, 6692-1165 RUA SANTA RITA, 215-PARI-SAO PAULO-SP-BRASIL</p>	<h3>아르헨티나 제일교회</h3> <p>담임목사: 최광연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주일 4부예배: 오후 3:30 수요예배: 오후 5:00 주일학교: 주일 12:00</p> <p>Tel. (54)114-631-1788 AV. CARABOBO 1253 CAP. FED., B.S., A.S., ARGENTINA</p>	<h3>칠레 한인연합교회</h3> <p>주일 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 저녁예배: 저녁 7:00 수요기도회: 저녁 9:00 7:14분 주일학교: 아침 7:40 금, 수, 중, 고등부예배: 오전 9:30(주일)</p> <p>Tel & Fax. (562)556-7628, (562)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p>	<h3>토론토 기든교회</h3> <p>담임목사: 김성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예배: 오후 7:30 세월기도: 오전 5:30 금요예배: 오후 7:30</p> <p>Tel. (416)490-9060 http://www.torontogarden.org/ 260 Yorkland Blvd., North York, ON M2J 1R7</p>	<h3>하와이 행복교회</h3> <p>담임목사: 이남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성경공부: 오후 7:00 세월기도회: 오전 5:30(화-토)</p> <p>Tel. (808)585-1859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p>	<h3>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h3> <p>담임목사: 조일규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후 12:30(영어) 주일 4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9:00</p> <p>Tel. (808)947-5489, Fax. (808)947-5151 www.hawaiichurch.org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p>	<h3>멕시코 선교 분부 교회</h3> <p>선교사: 임한근 목사 멕시코 번역 신학교 교수</p> <p>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후 3:00 주일 3부예배: 오후 6:00 (1, 2부 스페인어 설교)</p> <p>E-mail: hanimkr@hanmail.net Goya 530 Manuel, Acuna, Guadalajara MEX(멕시코)</p>



목회서신



여승훈 목사

진리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와의 교제에 사활을 걸라

그리스도인이 열매를 풍성히 맺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다. 하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며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와의 교제이다. 먼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없이는 그분과의 교제는 결코 가질 수 없다. 그런데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이루어졌는데 그분과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 그리스도와의 연

합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께로 나아와서 모든 죄의 용서함을 받고 그분의 의로움을 전가 받아서 의인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한다. 그리스도와의 교제는 매사에 있어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끊임없이 성장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특권이다. 누군가가 어떤 나무에 정기적으로 물을 주고 있

다면 그 나무는 건강하게 성장해 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특권임에 틀림없다.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은 특권이다. 그러나 비록 특권이라 할지라도 사용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특권이 될 수 없다. 그리스도와의 교제는 억지로 해야 하는 의무가 아니다. 만약 억지로 해야 하는 의무로 여긴다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상

태를 진지하게 두들겨 보아야 할 것이다. 짧은 남, 여 두 사람이 양가 부모님의 결혼을 전제로 한 강제적 권유로 만남을 가진다고 가정해 보자. 두 사람이 서로의 만남을 억지로 의무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다. 만약 그 상태 그대로 결혼을 한다면 사랑 없는 결혼생활이 될 것이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받아들임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계속적인 목마름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계속적인 목마름이 우리를 그리스도와의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한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갖나가기 가 출생하는 상태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와의 교제는 계속 성장해 가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출생은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은 교제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오해하

는 일이 있다. 그리스도와의 지속적인 교제는 가지지 않는데 기독교적인 많은 활동을 하는 것으로 자신의 영적 성장이 이루어져가고 있다고 오해하는 것이다. 이것이 오해인 이유는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은 외적인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은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통하여 내면의 자아가 부서지고 깨어지고 죽어지는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통하여 내면의 자아가 부서지고 깨어지고 죽어져 가면서 나오는 기독교적인 모든 활동들은 과실나무에 과일들이 주렁주렁 열린 것처럼 풍성한 열매들이 맺히게 될 것이다. 사실 그리스도와의 교제만큼 크고 중요한 헌신은 없다. 그리스도와의 교제의 헌신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와의 교제의 헌신을 눈에 보이는 외적인 헌신을 보다 열정적으로 하고 보다 성숙하게 한다. 그러므로 날마다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누기 위하여 사활을 걸라. 성경책 혹은 말씀 묵상 교제 등을 펼쳐라. 그리고 잠깐이라도 생각과 몸의 모든 활동을 멈추고 말씀 속

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깨달음을 경청하라. 이렇게 하루에 최소한 7분의 시간을 가져 보라. 짧은 7분의 시간이 나머지 23시간 53분을 주관할 것이다.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가지는 시간을 통하여 당신의 무능함과 당신의 모순됨과 당신의 부족함과 당신의 연약함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다. 적어도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가지기 전에는 그런 깨달음을 가질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 지나온 기독교 역사 가운데 역사에 남는 훌륭한 신앙인들이 있다. 그들이 훌륭한 것은 그들의 자질이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사활을 걸고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가지므로 그들의 부족함을 지속적으로 깨달아갔다는데 있다. 자신의 잘난 부분이 부각되는 것보다 더 위대한 것은 자신의 부족함이 하나님 앞에서 깨닫아지는 것이다. 진리의 말씀 안에서 가지는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통하여 당신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는 겸허함과 함께 당신이 머무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물씬 풍기는 복된 삶이 되기를 소원해 본다.

북미주 한인교회 총체적 선교동원 제 1회 선교박람회 폐막...함께 가려하노라

한인세계선교기회운동(KWMO)가 주관하고 선미니스트리와 GMAN가 주최한 제 1회 선교박람회가 5일부터 7일까지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에서 열렸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하노라 할 때까지(숙8:23)"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박람회는 △북미주 한인교회 선교동원 △소중교회(소형+중형 한인교회) 선교운동 △황금기선교사(은퇴한 분들) 발굴, 동원, 파송 △선교사와 성도들의 만남 △선교지의 실제 필요인력동원이라는 목적으로 개최됐다.



KWMO주최 제1회 선교박람회가 은혜한인교회에서 열렸다

대회장 한기홍 목사는 "제 1회 KWMO 선교박람회를 허락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며 "북미주 한인교회들은 하나님께서 세계선교를 위해 세우신 선교교회로서의 우선적인 사명이 있다. 이번 선교박람회를 통해 참가한 선교사들로부터 선교에 대해 듣고 배워서 세계선교를 위한 선교사들의 동반자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찬영 선교사는 "우리 한국이 선교를 시작할지 100년이 지났다"며 "선교운동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교적 정신으로 부흥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라 말했다. 최 선교사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어디를 가든지 선교운동을 이루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5일 오후 7시 조현영 목사(큰빛 감리교회 담임) 사회로 열린 개막예배는 31개국에서 온 114명의 선교사들이 그들이 사역하고 있는 국가의 국기와 깃대를 들고 입장하며 시작돼 대회장 한기홍 목사가 개회를 선언했다. 찬양사역팀 쎬의장막의 특송 후 정금태 선교사의 기도, 한기홍 목사의 말씀이 있었으며 김상욱 선교사 축도로 개막예배를 마쳤다. 예배 후엔 쎬의장막이 출연한 가운데 찬양제로 이어졌다. 한편 하루 전인 4일에는 주님의 빛교회(담임 주혁로 목사)에서 전야제가 열렸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매일 아침 8시30분 경건회로 일과를 시작했으며 9시엔 선교포럼을 가졌다. (박준호 기자)



KAPC 상임교육위원회 주최 신학포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4개 발제, 1회 강연, 2회 토론... KAPC총회 상임교육위원회 주최 신학포럼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총회는 2018년 종교개혁의 날을 맞아 상임교육위원회(위원장: 김선중 목사) 주관으로 교단 사상 처음으로 신학 포럼을 주최했다. 필라델피아영생장로교회(담임 백운영 목사)와 기쁨의교회(담임 박성일 목사)에서 10월 31일 저녁 5시 30분부터 11월 2일 금요일 오후 1시까지 발제와 열린 토론이 이어졌다. 첫날 개회예배는 김선중 목사 인도로 영생장로교회에서 열렸다. 이어 11월 1일부터는 기쁨의교회에서, 박상목 목사(종교개혁사 전공, 거주 주님의교회, 개혁신학교 담당)의 인도로 경건회로 시작됐다.

4개의 발제와 1번의 강연 그리고 두 번의 토론으로 이어졌다. 모두가 전공분야의 학위를 소지한 목사들로 신학자로 활동하고 있는 15명이 참석했다. 15명 신학자들이 참여한 것은 집중 있고 밀도 있는 발표와 토론을 위해 다음과 같이 비공개로 진행했다. △1일 첫 번째 발제는 "KAPC 신학의 정체성과 그리스도 중심 설교"로 박성일 목사 진행으로 이윤석 목사(설교학, 부르르린제일교회)가 발표했고, △점심 후 박상목 목사 진행으로 조진모 목사(교회사, 필라한인연합교회)가 "신앙교백의 Subscription Issue"에 대해 발제했으며, △3번째 세션으로 김

동수 목사가 진행하며 홍승민 목사(해석학,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가 "현대 개혁교회의 성경해석학적 이슈들"에 대해, △4번째 세션은 이철희 목사 진행으로 최재만 목사(해석학, 한우리교회)가 발표했으며, △2번째에는 만찬장에서 강연인 교수(서강대 명예교수, 미국 칼빈신학교 철학신학교수)의 "현재 한국개혁교회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한 심도 깊은 강연이 있었다. 다음날 경건회는 백운영 목사(필라 영생교회)가 인도했다. △5번째 토론은 김선중 목사의 진행으로 교단내의 신학 공동체의 역할과 필요성을 중심으로 토론했으며, △6번째 마지막으로 박성일 목사(조직신학/변증학) 진행으로 "Where do we go from here?"이라는 학문적인 토론을 나누었다. 이 외에도 권오창 목사(해석학), 김동수 목사(해석학), 방삼성 목사(조직신학/현대신학), 조성윤 목사(해석학)가 참여했고 각 부문에 전공 박사 4명의 발제와 토론을 통해 교단의 신학적인 정체성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교백으로 재확인하며 이 행사의 중요함과 유익함을 나누었다. 참석자들은 무엇보다 교단 안의 신학적인 공동체의 필요성을 절감했고 가장 의미 있고 열매있는 모임이 됐다고 평했다. (7/14제공: KAPC총회 상임교육위원회)



미주장신대학교 개교 41주년 기념 후원의 밤이 성황리에 열렸다. 사진은 본교 합창단이 찬양하는 모습이며 우측 원안은 이상명 총장이 인사말하는 모습이다

"주님께서 주신 큰 비전 갖고 나가겠다" 미주장신대학교 개교41주년 기념 후원의 밤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총장 이상명 박사)는 개교 41주년 기념 후원의 밤을 5일 오후 6시 홀리톤장로교회(담임 노진걸 목사)에서 열었다. 이상명 총장은 "매해 거듭거듭 학생들의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며 "계속 주님께서 주신 큰 비전 가지

고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학생처장 김무빈 목사 환영인사와 개회기도로 시작된 후원의 밤은 심형진 교수와 찬양팀의 찬양인도로 시작돼 본교 연혁 영상소개로 이어졌다. 이어 '특목 튀는 이들'이라는 주

제로 토크쇼를 가졌는데 김용환 교수(크리스천상담심리학 디렉터), 박동식 교수(기독교인문학&평신도대학 디렉터), 김요셉(B.Th), 박현정(M.Div), 추지훈(M.Div) 학우들이 패널로 나서 학교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어서 찬양사역자 조수연 학생(MACCP)이 '하나님의 은혜'를 불렀으며 본교 홍보영상이 소개됐다. 또한 콘서트과이어(지휘 조혜정 교수)가 '그 사랑 이제 난 알았네', '주를 앙모하는 자', '주 은혜가 나에게 속하네' 등을 불렀다. 한편 전우진 학생회장(M.Div)의 후원회금 요청이 있었고 강우중 교수(원격교육 디렉터)가 인사말을 전했다. 또한 이상명 총장이 이재영 IT디렉터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날 행사는 유영기 목사(이사장)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월드미션대학교 아프리카학생 장학기금 후원의 밤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남가주여전도회연합회 후원금 전달 월드미션대 아프리카학생 장학기금 후원의 밤

월드미션대학교(총장 임성진 박사)는 아프리카학생 장학기금 후원의 밤을 3일 오후 6시 본교 강당에서 성황리에 열었다. 임성진 총장은 "아프리카는 복음 전하기는 어렵지만 바른 신학을 정립한 지도자가 세워지면 아프리카 지역 교회들이 건강하게 세워질 것"이라며 "모든 선교를 다 할 수

없지만 미래 교회지도자 양성하는 일을 감당함으로 아프리카 선교를 감당하려 한다"고 말했다. 임 총장은 "오늘 후원의 밤을 통해 아프리카를 바라보는 비전을 갖기 바란다. 10년, 20년 후 월드미션대학교가 아프리카에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는지 마음의 눈으로 그려 보면 의미 있는 행사가 될 것"이라

말했다. 이금희 교수 사회로 열린 후원의 밤은 임성진 총장 환영사에 이어서 음악과 연주의 시간을 가졌으며 테너 오위영 목사, 바리톤 장상근 전도사, 소프라노 김유리 자매가 나서 솔로와 듀엣 무대를 선보여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이어 아프리카 학생현황과 비전 나눔의 시간을 가졌는데 아프리카 말라위 학생들에 대한 동영상이 소개됐으며 최재노 선교사 '아프리카 학생 현황과 교육 지원의 필요성'이라는 제목으로 아프리카 신학교육에 대해 연설했다. 이어서 이금희 교수가 중국학생 장학기금 모금 보고 및 아프리카 학생 장학기금 후원안내를 하고 남가주여전도회연합회의 정지윤 목사가 임성진 총장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윤성환 이사장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아주사퍼시픽대학교가 주최한 제7회 목회자 컨퍼런스에서 이희문 목사가 강의하고 있다

'Forward' 주제...교수, 목회자 한자리에 아주사퍼시픽대학교 제7회 목회자 컨퍼런스

아주사퍼시픽대학교(총장 존레스 박사) 신학교 코리언프로그램(디렉터 변명혜 박사)이 주최한 제

7회 목회자 컨퍼런스가 'Forward'라는 주제로 10월 30일 오전 10시 가든스윗 호텔에서 열렸다.

앤리케 존 박사(도시와교차문화 프로그램 부학장) 환영사로 시작된 컨퍼런스는 변명혜 박사가 감사소개를 했으며 강준민 목사(새생명비전교회)가 격려사를 했다. 이어 김한요 목사(베델한인교회)가 'Moving Forward', 이희문 목사(LA기쁨의교회)가 '교회개혁: 이 시대에도 개혁교회는 필요한가?',

조나단강 박사(크리스천상담교과 교수) '목회자의 자기관리', 이상훈 교수(풀러신학교대학원)가 '교회갱신과 이민교회 목회전략'이라는 주제로 각각 강의했으며 강의 후엔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날 컨퍼런스는 강준민 목사 기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동부교계 기사판



창작뮤지컬 '드림어 조셉' 공연

뉴저지 이민자보호교회(위원장 손태환 목사)가 주최하고 뉴저지장로교회 청년부가 주관하는 창작 뮤지컬 '드림어 조셉'이 11월 10일(토) 오후 7시 팰리세이드 파크 고등학교 강당(1 Veterans Plz, Palisades Park, NJ 07650)에서 열린다. 모든 후원금은 다카 청년들 장학금으로 수여된다.

▲문의: 노재균 목사(978-473-4168), 손태환 목사(908-229-2966)

뉴저지권사합창단 11주년 감사 음악회

뉴저지권사합창단(단장 정성만 목사, 회장 한정례 권사, 지휘 조민형 장로) 11주년 감사 음악회가 11월 10일(토) 오후 5시 뉴저지 그레이스 베델감리교회에서 열린다.

▲문의: (201)599-3068

뉴저지 갈보리채플 개척예배

뉴저지 갈보리채플(담임 김주동 목사) 개척예배가 11월 11일(주일) 오후 5시30분 드려진다. 담임 김주동牧사는 2014년 뉴욕 온누리성결교회를 개척, 담임하다가 후임을 세우고 팰리세이드 파크(7 Broadway Palisades Park NJ 07650)에 갈보리채플을 개척했다.

▲문의: (636)579-0067

"경남 거창중앙교회 놀라운 이야기"

예수교장로회국제연합총회 직영 신학교 CTS(총장 황의춘 목사, 학장 이영훈 목사)가 주최하는 이병렬 목사 초청 강론 "경남 거창중앙교회 놀라운 이야기"가 11월 5일(월), 6일(화) 오후 6시 저녁식사 후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열린다. 장소는 제일감리교회(62 Cedar Street, Ridgefield Park, NJ 07660). 4일까지 전화 등록자에 한한다.

▲문의: (917)334-6333, (609)510-9800

뉴욕한인목사회 회장 부회장 입후보 공고

11월 17일 오후 5시 접수마감

뉴욕지구 한인목사회(회장 문석호 목사)가 제 47회 정기총회를 앞두고 회장 부회장 입후보 등록을 공고했다.

뉴욕목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송병기 목사)는 지난달 27일 일간지 광고를 통해 회장, 부회장 입후보 등록을 11월 12일(월)부터 17일(토) 오후 5시까지 마감한다고 밝히고, 후보자 심사 및 확정공고는 11월 19일(월)로, 후보자 홍보기간은 11월 19일부터 24일 자정까지로 발표했다.

입후보자 자격은 회칙 제 4장 7조에 명시된 ①목사안수 10년 이상 된 자 ②뉴욕지구에서 담임목사만 5년 이상 된 자 ③본회 회원 및

실행위원을 역임한 자 ④인격과 품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로 제한했다.

등록 접수는 선거관리위원회 서기 박시훈 목사(917-992-5200)에게 하면 된다.

한편 정기총회는 11월 26일(월) 오전 10시 뉴욕새침장로교회(담임 박태규 목사)에서 열린다.

뉴욕목사회는 본회 회원으로 등록이 돼 있어도 회칙에 따라 최근 3년간 총회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거나 최근 3년간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선거권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유원정 기자)



제 5회 ATS 한인동문회 정기총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회장 김연수 목사, 부회장 민병욱 목사 ATS 한인동문회 제 5회 정기총회

ATS(Alliance Theological Seminary) 한인동문회 제 5회 정기총회가 지난 5일 저녁 5시 뉴욕주교회의에서 열려 신임 회장에 김연수 목사, 부회장 민병욱 목사가 선임됐다.

김연수 신임회장은 "동문회 일감당이 쉽지 않다"며 "많은 분들이 양보하셔서 이 자리에 서게 됐다. 부족하지만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회장은 섬기고 심부름하는 자리"라며 "뉴욕에서 본을 보이는 동문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인사했다.

민병욱 목사는 "동문들을 만나는 게 좋아서 참석하게 됐다. 의미 있고 뜻 깊은 모임으로 힘을 얻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며, 선후배 동역자들과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우도록 많이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전임회장 오바울 목사는 "지난 2년간 동문회장을 하면서 1)동문 유대강화 2)재학생과의 유대강화 3)여성동문 모임 활성화를 염두에 두고 야유회와 여성동문 오찬 ATS커피 퍼스 런치 등의 행사를 해왔다"며 시원함(?)을 표했다.

회부에 앞서 드린 예배는 오바울 목사 인도로 기도 박근제 목사, 설교 이덕찬 목사, 헌금기도 박남순 목사, 광고 민병욱 목사, 축도 이덕찬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덕찬 목사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마5:14-16)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산상수(보)훈은 가장 근본이 되는 말씀"이라며 근본으로 돌아가자고 말했다.

이 목사는 "빛과 소금인 우리는 2개의 양면성을 가져야 하는데, 질이 좋은 소금은 흔적 없이 녹으며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없다. 빛을 비추는 것은 예수님의 품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의와 양심과 선에 대해서 본을 보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며 사명이다. 어디를 가든 주의 은혜를 전파해서 구원해주시는 목적을 이루자"고 역설했다.

회무는 오바울 목사 사회로 이민영 목사 개회기도 후 회원점명(25명 참석), 개회선언, 회순통고, 인원보고, 회장 부회장 선출, 안건토의, 회의록, 낭독, 폐회기도 순으로 진행됐다.

이재두 목사는 수입 3,010달러(이월금 8,812달러), 지출 3,838달러, 잔액 7,984달러로 보고 했다.

이어진 선거에서는 △회장 김연수 목사 △부회장 민병욱 목사 △총무 이재두 목사(남), 카렌오 전도사(여), 김바울 목사(EM) △서기 최은희 전도사 △회계 박남순 목사가 선임됐다.

(유원정 기자)

신임 이사장 손성대 장로 선출 제 32회 뉴욕교협 이사회 정기총회

뉴욕교협 이사회 제 32회 정기총회가 24명의 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11월 5일 저녁 7시30분 플러싱 금강산 식당에서 열려 신임 이사장에 손성대 장로가 선출됐다.

이날 총회 신임 이사장 선거는 박용기 장로가 손성대 부이사장을 추천해 이사회가 박수로 추대했다. 손 신임 이사장은 "총회를 10월에 했어야 했는데 오는 12일 뉴욕교협 회장 이취임식 광고에 먼저 나가게 돼 죄송하다"며 "앞으로 지도편달을 바라며 충성하겠다"고 인사했다.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손성대 장로 인도로 기도 백달영 장로, 성경봉독 정연오 장로, 말씀 정순원 목사, 축도 정순원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교협회장 정순원 목사는 "주님 뜻대로"(고전1:1-9)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명령을 이루는 일"이라며 "하나님의 일꾼들은 담대히 부르심을 입은 증거를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 이사로 부름 받은 이사님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며 교협과 뉴욕사회에서



제 32회 뉴욕교협 이사회 정기총회 1부 예배를 드리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헌신하며 충성하는 영적 공동체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교협 임원으로 정순원 회장과 서기 이창중 목사, 부회계 박정오 목사가 참석했다.

2부 회의는 이사장 김주열 장로 사회로 유일용 장로가 개회기도하고 이사장 인사, 회원점명, 개회선언, 회순제택, 전회의록 낭독, 사업보고, 감사보고, 회계보고, 신임 이사장 인사, 신임회원 인준 및 환영, 신안건 접수 및 토의, 광고, 주기도문, 폐회선언 순서로 진행됐다.

31회 뉴욕교협 이사회는 지난 회기 동안 △교협 터키전달 참석 △

신년감사예배 및 하례만찬 지원 및 참석 △부활주일 지역연합예배 참여 △할렐루야 대뉴욕목음화대회 준비기도회 참여 및 지원 등을 했다.

또 수입 7,550달러, 지출 9,220.55



뉴욕청소년센터 이사회 제 24회 정기총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새 대표 황영송 목사, 이사장 이주익 장로 뉴욕청소년센터 이사회 제 24회 정기총회

뉴욕교협 산하 청소년센터(AYC) 이사회 제 24회 정기총회가 지난 1일 저녁 6시 뉴욕교협에서 열려 새 대표에 황영송 목사, 이사장에 이주익 장로가 선임됐다. 이로써 지난 1년 동안 대표가 없었던 청소년센터는 새 대표를 맞아 생동력 있게 운영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회의는 강영규 장로의 개회기도 후 회원점명, 전회의록 낭독, 감사보고, 회계보고, 사역보고의 순서로 진행됐다.

감사는 김영철 목사가 했으며 회계보고는 최호섭 목사가 보고했다. AYC는 2017년 10월 1일부터 2018년 9월 30일까지 총수입 133,032.45달러(이월금 53,004달러 포함), 총지출 62,458.41달러, 잔액 70,574.04달러로 보고했다.

김준현 사무총장은 지난회기 프로그램 및 행사보고서에서 △성탄절 △컴퓨터 교실: 목회자 대상 △농구대회: 13개 팀 참가 △SAT △드림 토크쇼 △범죄예방 세미나 △목회자 컨퍼런스: 가정폭력 대체방안 △30주년 감사음악회 △유스

할렐루야대회 등을 보고했다.

김 사무총장은 다음 회기에는 직업소개, 리트릿 등 새로운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원선거에서는 황영송 목사(뉴욕수정교회 담임)가 대표로 선출됐다. 이사장에는 이주익 장로와 김주열 장로가 거론됐으나 김주열 장로가 후보 사퇴함으로 이주익 장로가 선출됐다.

이날 이사들의 참석 저조와 내년에는 실행임원 정비 등이 건의되기도 했다. 현재 청소년센터 이사회는 실행 임원으로 이사장, 서기, 회계, 후원위원장, 감사(교협감사)와 이사 21명으로 구성돼 있다.

총회는 이주익 목사(뉴욕주심교회) 폐회기도로 마쳤다.

한편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황영송 목사 인도로 교협회장 정순원 목사가 "주 안에서 자랑하는 삶"(고전1:26-31)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정리: 유원정 기자)



심령이가난한교회 설립9주년 감사예배 및 임직식을 마치고 노회 목사들과 임직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섬김, 나눔, 희생으로...장로 3명 임직 심령이가난한교회 설립9주년 감사예배 및 임직식

심령이가난한교회(담임 이종태 목사)가 설립 9주년을 맞아 본 교회가 소속된 KAPC 뉴욕서노회 주관으로 감사예배 및 임직식을 가졌다. 임직자는 이건우, 박권진 한성수 씨 등 3명.

지난 4일 오후 3시 본 교회당에서 열린 예배는 이종태 목사 인도로 기도 임동열 목사(부노회장, 엘립교회), 찬양 4중창, 말씀은 이종열 목사(노회장, 사랑의교회)가 전했다.

이종열 목사는 "사랑하라!"(요 13:34, 35)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사랑은 내가 하는 모든 것에 원동력이 되고 동기가 된다. 내 생명까지 불사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무의미하다"라며 "1)섬김 2)나눔 3)희생으로 본을 보이신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고 나를 사용해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감사패 증정, 장로서약, 성도서약, 안수식, 장로가운 착용식, 약수레, 공포로 이어졌다.

축가는 남상희 사모(든든한교

회), 권민 최광진 목사, 축사 이승원 목사, 임직패 및 선물증정, 인사 박권진 신임장로, 축도 김영민 목사(생명샘교회), 광고의 순서로 진행됐다.

박권진 신임장로는 하나님과 교회, 목사님께 감사한다며 "주신 직분이 과해서 기쁨보다 책임을 더 느낀다"며 "기도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겠다"고 다짐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교회를 바로 세우는데 책임을 갖고 낮아지고 겸손하게 섬기겠다"고 인사말을 했다.

최광진 목사는 베드로전서 4장을 소개하며 "믿음으로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하라"고 권면하고 이승원 목사는 1)교우들에게 인정 받을 2)교회를 앞장서 섬기게 될 3)장로 3명과 담임목사, 4기둥으로 든든히 서게 될 것을 축하한다고 말했다.

심령이가난한교회는 10월부터 더글라스톤에 있는 생명샘교회(243-01 Northern Blvd)와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

▲연락처: (718)749-8293, (917)386-8852

(유원정 기자)



2018세계찬양대합창제 해단식 및 감사예배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수익금 2만7천 달러 10개 단체 후원 2018세계찬양대합창제 해단식 및 감사예배

2018세계찬양대합창제 해단식 및 감사예배가 지난 1일 오전 11시 뉴욕그레이트네교회에서 열렸다. 이날 합창제 수익금 2만7천 달러를 10개 단체에 후원금으로 전달했다.

지난 9월 23일 뉴욕 카네기홀에서 열린 뉴욕기독교방송(CBSN, 사

장 문석진 목사) 주최 세계찬양대합창제는 9개 찬양단(한국에서 236명, 미국에서 325명)과 1200여 명의 성도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룬 바 있다.

(3면으로 계속)



새가나안교회 설립 35주년 기념음악회를 마치고 출연진들이 기념촬영 했다.

"찬송 가운데 계시는 주님" 새가나안교회 설립 35주년 기념음악회

새가나안교회(담임 이병홍 목사, 동사 최요셉 목사)가 설립 35주년을 맞아 지난 4일 오후 5시 기념음악회를 열었다.

음악회는 지현희 자매 사회로 최요셉 목사의 인사말, 수화찬양 새가나안 학생찬양, 말씀 이병홍 목사, 워싱턴 김영란 권사, 바이올린 트리오 장유미 집사, 이혜진, 이예진, 독창 김지성, 찬양 새가나안 성가대(지휘 김신옥 집사, 반주 박세현), 헌금기도 김희숙 목사, 감사의 말씀 이병홍 목사, 축도 정순원 목사(뉴욕교협회장) 순서로 진행됐다.

지현희 사회자는 순서가 진행될 때마다 상세한 곡 설명과 출연진들을 소개하며 분위기를 돋우었다. 이병홍 목사는 "찬송 가운데 계시는 주님"(시22:3)이라는 제목의 말씀에서 "찬양을 많이 하는 사람

이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이라며 더위를 소개하고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말씀처럼 살아있는 동안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고 말했다.

또 이 목사는 "갑자기 준비했지만 모두 잘 해냈다"며 찬조 출연자들에게 감사하면서, "음악회에서 모금된 헌금은 동 교회가 후원하는 국제사랑재단 기금으로 사용된다"고 설명했다.

국제사랑재단 미동부지회는 하이티 다니엘 미션스쿨과 자매결연 맺고 교실 3동을 지어주었으며 염소보내기 운동으로 가족 살리기 나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한편 새가나안교회는 최요셉 목사를 후임 겸 동사 목사로 맞아 이병홍 목사와 함께 동역하고 있다.

(유원정 기자)

탈북민목회자순례단, “남북통일은 복음통일로” 그날까지선교연합 주최, 북한교회 재건 및 이민교회 전략 특강



탈북민 목회자 순례단 북한교회 재건 및 이민교회 전략 특강을 위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우측원안은 강철호 목사가 특강 강의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날까지선교연합(국제대표 손인식 목사) 주최로 열린 탈북민 목회자 순례단 북한교회 재건 및 전략특강이 한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8명의 탈북민 목회자들이 초청돼 7일까지 남가주와 북가주 일대의 한인 교회들을 순회하며 강연했다. 이들은 지난 10월 30일 LA에 도착해 미주평안교회(담임 임승진 목사)에서 기자회견 및 특강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탈북민 목회자들은 현 북한실상을 알리며, 북한선교와 복음통일을 호소했다.

한국문화가 북한에 들어가고 있는데, 복음은 왜 못 들어가고 있는지 한국교회와 이민교회가 깊이 고민해야 한다”며 “이민교회가 탈북민교회와 같이 힘을 합해서 북한에 복음이 전해지는 길을 열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강철호 목사는 특강 시간에도 한반도는 복음통일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목사는 “복음통일 없이 평화로운 방법으로 남북이 통일이 되면 북한에는 이단들이 많이 들어

가게 될 것”이라 말하며 복음통일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송신복 목사는 여성과 차세대 집중선교가 절실히 필요한 가운데 북한선교에 사명이 있는 남한 성도들이 북한 실상을 알고 있는 탈북민과 연합해서 북한 선교 전략적 차원의 탈북민연합교회를 많이 설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목사는 “통일이 되면 아이들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탈북민이 운영하는 대안

학교들은 많지만 교회가 하는 대안 학교는 없다.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학교밖에 없다. 따라서 북한 땅이 복음화를 위해 다음세대를 세우는 데 함께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 목회자들은 이날 ‘북한교회 재건 미 목회전략’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가졌으며 △10월 31일 에브리데이교회(최홍주 목사), 남가주동신교회(백정우 목사) △11월 1일 베델한인교회(김환호 목사) △11월 2일 임마누엘장로교회(손원배 목사) △11월 3일 뉴비전교회(이진수 목사), 새누리교회(손경일 목사) △11월 5일 미주복음방송 특별방송간담회, UTD사무실 등에서 특강 및 간담회를 가졌다.

그리고 11월 4일에는 주일예배 설교사역을 가졌다. 설교사역은 다음과 같다.

△마요한 목사: 산호세은누리교회(김영련 목사) △송신복 목사: 조이플교회(이상준 목사) △김진 목사: 상향중앙장로교회(권혁천 목사) △김경민 목사: 몬트레이제일장로교회(이강웅 목사) △김이전 전도사: 임마누엘장로교회(손원배 목사) △송혜연 목사: 뉴라이프교회(위성교 목사) △강철호 목사: 베델연합감리교회(한인희 목사)

(박준호 기자)



제16회 예수교미주성결교회 총회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LA할렐루야교회 원로목사 추대 및 담임목사 취임식이 성황리에 열렸다. 사진은 이병호 담임목사 부부와 류종길 원로목사 부부 모습

예수교미주성결교회 총회장 박용덕 목사 제 16회 총회, 교단등록 및 신학교 설립 추진 결의

예수교미주성결교회(총회장 이남규 목사) 제 16회 총회가 지난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미국 서부지역에 있는 La Quinta Inn & Suites Hotel, Buena Park에서 ‘성결교회여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이번 총회에는 미주 및 캐나다 대의원 및 교단 총회장 윤기순 목사와 교단총무 이강준 목사, 성결신문사 편집국장 조석근 목사, 서울평화교회 최중인 목사 등이 참석했다.

미주 총회장 이남규 목사 사회로 시작된 1부 예배는 미국서부지방회장 이윤수 목사의 기도, 미국동부지방회장 김완균 목사의 성경봉독에 이어 올리브라이프교회 부목사 강정운 목사의 특별찬양이 있었고, 교단 총회장 윤기순 목사가 ‘선한목자 예수님은?’(요10:11-15)이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윤기순 총회장은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셨던 선한목자이신 예수님을 분반야 마음을 합하여 복음을 전하고, 죽은 영혼 살리는 일에 힘쓰고 애쓰는 총회가 되어 미전도 종족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교두보가 되기를 바란다”며 “미주총회가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총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캐나다서부지방회장 유상욱 목사의 헌금기도, 공로패수여, 개척교회지원금 및 선교비 전달식, 교단총무 이강준 목사와 성결신문사 편집국장 조석근 목사의 축사가 이어졌고, 교단 총회장 윤기순 목사의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쳤다.

이번 총회에서는 미국동부에 있는 윤광교회와 남가주빛내리교회의 후원금과 그동안 총회로 모아진 총회주일 헌금 등으로 5개 개척교회에 각각 1천불씩을 전달했으며, 도미니카의 김성근 선교사와 이영희 선교사, 멕시코 서경열 선교사 등에게 각각 1천불씩을 전달했다.

또한 15회기 지방회장을 비롯해 미군 군목 김상현 목사와 김효석 목사에게 공로패를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2부 순서로 진행된 성찬식은 미주지역 전총회장 최한호 목사의 집례로 거행됐으며, 바로 회부에 들

어가 16회를 이끌어갈 총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을 선출했다. 새로운 총회 임원은 다음과 같다.

△미주총회장 박용덕 목사(미국 서남, 남가주빛내리교회) △부총회장 박순탁 목사(미국동부, 섬기교회) △총무 양승민 목사(캐나다 동부, 토론토영양교회) △서기 김영일 목사(미국서남, 섬기교회) △부서기 김영갑 목사(캐나다 서부, 밴쿠버하모니교회) △회의록서기 이근영 목사(미국서부, 은혜성결교회) △회계 서정학 목사(미국동부, 하이커뮤니티교회) △부회계 김형민 목사(캐나다동부, 캐나다한빛교회).

(기사제공: 예수교미주성결교회)



크리스천 리더스 아카데미 개원예배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크리스천리더스아카데미 개원예배

“영적 은사를 권고하라” ...송정명 목사 설교

크리스천리더스아카데미(원장 김영대 박사) 개원예배가 지난 10월 22일 오후 7시 한민감사교회(담임 심명구 목사)에서 열렸다.

김영대 박사는 “제 일생에 교육에 대한 교육학을 생각하고 생을 마감하고 싶다”며 “하나님나라에 갈 때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으로 갈 수 있도록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단체를 설립하게 됐다”고 말했다.

심명구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개원예배에서 이호우 목사(부원장)가 대표기도하고, 주일업 교수(베스다대학)가 축가를 불렀다. 주교수는 “여기에 모인 우리,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등을 불러 큰 박수를 받았고 개원식 예배에 은혜로운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어서 송정명 목사(미주성시화 LA대표회장)가 ‘최선을 다하는 지도자’(딤후4:12-16)라는 제목으로

류종길 원로목사 추대 및 이병호 담임목사 취임 LA할렐루야교회... “모든 것이 은혜”

LA할렐루야교회는 류종길 원로목사 추대 및 이병호 담임목사 취임예배를 4일 오후 4시 성황리에 가졌다.

이병호 담임목사는 “LA할렐루야교회 성도들과 함께 기쁨으로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을 소망하며 담임목회자로서 감사함을 사역하겠다. 더 기도하고 더 감사 찬송하며 더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겠다.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류종길 목사는 “은퇴할 때 돼서 지나는 날을 생각하니 고마운 마음뿐이며 모든 것이 은혜”라고 말했다.

김중호 목사(지방회장, 예향선교

교회) 집례로 시작된 담임목사 취임식은 지방회장이 취임하는 목사와 성도대표(류호주 장로)에게 서약했으며 이병호 목사에게 치리권을 부여하고 공포했다.

이어 차광일 목사(한빛교회)가 격려사를, 김희창 목사(말씀새로운교회)가 축사를 했으며 한빛성결교회 성가대가 축가를 부르고 이병호 목사가 인사말을 전했다.

담임목사 취임식에 이어 열린 원로목사 추대식은 이병호 목사 집례로 열렸다. 류호주 장로가 원로목사 소개 및 추대사를 했으며, 이병호 목사가 공포를 한 뒤 류종길 원로목사에게 추대패, 축하패 및 공로패를 전달했다.

이어 총회장 최경환 목사(시온성결교회)가 축사했으며 류종길 원로목사가 안사했다. 이날 예배는 김응구 목사(섬광회 회장) 축도로 마쳤다.

한편 이날 취임식과 추대식 전에 열린 감사예배는 이상혁 목사(지리목사) 집례와 LA할렐루야교회 찬양팀의 찬양인도로 열렸으며 남성천 목사(지방회 서기, 제일교회)가 기도, 김시은 목사(지방회 서기, 웅기장이교회)가 성경봉독, 임마누엘성가대 찬양에 이어 김중호 목사가 ‘아름다운 마무리, 힘찬 새 출발’(신34:9)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병호 담임목사는 1994년 서울신학대학교를 졸업했으며 97년 동대학신학대학원을 졸업(M.Div)했다. 이후 2001년 목사안수를 받고 대전 목양교회, 백운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했다. 2007년 아주사과 시립대학교로 유학을 왔으며 동 대학에서 석사(MAR)와 목회학박사(D.Min) 학위를 취득했다. 이목사는 본 교회 담임으로 부임하기 전까지 10년간 한빛성결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했다.

(박준호 기자)



소망소사이어티 제7회 소망포럼이 열리고 있다

서부교계 게시판

제 2회 미주목회자자녀 세미나

제2회 미주 목회자자녀 세미나가 사랑의빛선교교회(담임 윤대혁 목사)에서 11월 21일(수)과 22일(목)에 열린다. 강사는 한국 전국목회자 자녀세미나 총괄 설동욱 목사(예정교회)를 비롯, 박태남 목사(벤엘교회), 윤대혁 목사(사랑의빛선교교회), 최중우 목사(달라스침례대학교 교수, 코스타 강사), 속소는 더블트리 호텔(몬로비아)이며 참가비는 60달러(호텔숙박 및 모든 식사제공). 지불방법은 check, venmo, paypal.

▲문의: (562)217-9196

시니어 감사축제

나성영락교회(담임 박은성 목사)는 시니어 감사축제를 10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본 교회 체육관에서 와이낫커뮤니티서비스 주관으로 개최한다.

▲문의: (323)227-1400

토크스조은교회 이동원 목사 세미나

토크스조은교회(담임 김우준 목사)는 이동원 목사(한국 지구촌교회 원로)가 강사로 나선가운데 공개세미나를 개최한다. ‘사역의 길’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미드웨스턴침례신학대학원이 주최한다.

▲문의: jhkim@mbts.edu

담임목사 청빙

치노 지역 동부사랑의교회가 2대 담임목사를 청빙한다. 자격은 정규신학대학원 졸업자로 5년이상 풀타임 목회 경험자, 합법신분자이다. 제출서류는 이력서, 목사안수증명서, 신학교 졸업증명서, 목회계획서, 자기소개서, 설교 2편, 추천서(3명) 등이며 12월 2일까지 이메일(escpc2@gmail.com)로 보내면 된다.

▲문의: (909)509-3722

남가주장로성가단 정기연주회

남가주장로성가단(단장 박영집, 지휘 조성환 목사) 제 25회 정기연주회가 11일(토) 오후 6시 나성한인교회(담임 신동철 목사)에서 개최된다.

▲문의: (818)523-1078, (213)434-8856



나침반교회에서 열린 목회자 세미나에서 강사로 나선 김선웅 목사가 강의하고 있다

‘요한계시록’ ...강사 김선웅 목사 나침반교회에서 목회자 세미나 개최

‘요한계시록’을 주제로 한 목회자 세미나가 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나침반교회(담임 민경열 목사)에서 겨자씨성경연구원(원장 김선웅 목사) 주최로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는 김선웅 목사가 강사로 나서 요한계시록에 대해 열띤 강의를 펼쳐나갔다.

김선웅 목사는 “계시록에서 휴거에 대해 전천년주의자와 후천년주의자 그리고 무천년주의자들의 입장이 다르다”며 “개혁신학은 무천년주의를 따라가는데 무천년에서 휴거는 성화의 과정을 다 마

친 신자들이 주님 오시는 날 영생으로 들어가는 상태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김 목사는 “계시록은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 본문이 이해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기에 이단이 나오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종말론에 대한 차이가 구원을 결정하는 요소가 되지 않는다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계시록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들을 충실하게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준호 기자)

샌디에고 지부 발족식도 가져 소망소사이어티 제 7회 소망포럼

소망소사이어티(이사장 유분자)가 주최한 제 7회 소망 포럼 및 소망소사이어티 샌디에고 지부 발족식이 지난 10월 27일 오전 샌디에고 한인연합감리교회에서 열렸다. 모든 지역을 커버할 수 없는 본부를 대신해 소망의 활동에 동참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위해 새로 개설된 샌디에고 지부에서는 초기에는 본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본부는 지부가 소망의 활동들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유인물을 배너등 기타 필요한 장비와 자료를 공유하고 제공할 예정이다. 샌디에고 지부를 위해 본부에서

는 회장에 박순빈씨, 총무에 탁은숙씨 그리고 고문으로 소망소사이어티의 교육부장으로 활동 중인 박혜수씨를 고문으로 임명했다.

이어진 포럼에서는 “여러분 준비되었습니까, 당하는 죽음에서 맞이하는 죽음으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UCI 의대 방문교수인 표성범 교수(고대안암병원 재활의학과 과장), 김이현 사회복지사(카이론 토털), 전달훈 박사(GIFT 상담치유연구원 원장)의 강연이 있었다.

이어서 소망소사이어티 실무자 및 자원봉사자, 참석자 중 한 명과 함께 한 상황극에서는 죽음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 생각해보며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준비되지 않은 죽음이 얼마나 남은 유족에게 고통을 줄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계기가 됐다.

마지막으로 후원원인 카이론 토털에서 준비한 2천불 상당의 치매 진단권을 추첨을 통해 참석자에게 전달하며 모든 행사를 마쳤다.

(기사제공: 소망소사이어티)

기감, 교단 개혁의 깃발 든다

제33회 총회...감독취임식, 여성총대 증가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감독회 장 전명구 목사) 제33회 총회가 30일 오전 인천 계산중앙교회에서 개최됐다. 총회는 31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기감은 이번 총회를 교단 개혁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1207명의 총대가 참석한 총회는 양각나팔이 연주되는 가운데 대회를 든 전명구 감독회장과 11개 연회 감독들이 입장하면서 시작했다. 개회예배에서 설교를 한 전 감독회장은 '회개와 비전'의 메시지를 선포했다. 전 감독회장은 "기감이 최근 겪은 아픔에 대해 나부터 회개한다"면서 "이 고통을 성장을 위한 통증으로 여기고 더욱 교화다운 교회가 되고, 성도다운 성도가 되기 위해 노력하자"고 했다. 이어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환난을 이기고 기감 150만 성도들이 말씀으로 무장해 당당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비전을 품자"고 권면했다.

예배에선 여전히 소송이 진행 중

인 현실에 대한 자성의 발언들이 이어졌다. 기도를 한 김진열 기감 주일학교연합회장은 "교단이 여전히 히 소송에 휘말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 모두의 죄이므로 함께 회개하자"면서 "기감이 다시는 소송으로 얼룩지지 않게 해 달라"고 호소했다.

산찬식은 엄숙하게 진행됐다. 전 감독회장이 감독들에게 먼저 성찬을 전한 뒤 감독들이 총대들에게 일일이 성찬을 나누는 방식으로 이어졌다. 헌금은 전액 기감 여선교회가 진행하는 '여선교회 안식관' 건축에 사용된다. 여선교회는 지난 25일 서울 성북구 보국문로8길 16에서 안식관 기공예식을 가졌다. 새 안식관은 1984년 건축된 안식관을 허문 자리에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세워진다. 안식관은 은퇴한 여성 사역자들이 입주한다.

가장 중요한 예식인 감독 취임식은 31일 폐회 직전 진행된다. 감독 중심제로 운영되는 기감에서는 감독 취임식이 갖는 위상이 크다. 감

독의 임기도 취임식을 기점으로 시작되고 '감독회의'도 이날 조직된다.

여성총대들이 늘어난 것도 눈길을 끌었다. 기감은 연회와 총회, 임법의회 대표 중 15.0%를 여성에게 할당하고 있다. 다만 이번 총회에 11.6%에 해당하는 170명이 여성총대로 파송받았다. 타 교단과 비교하면 굉장히 높은 비율이지만 교리와 장정에 명시해 놓은 원칙엔 미치지 못했다. 지난해 총회를 기준으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 여성총대는 31명(전체 1500명)으로 2.1%, 한국기독교장로회도 64명(전체 666명)으로 9.6%에 머물렀다.

여성총대들은 회무 중 총회 주요 부서에서 여성들이 참여해 활동할 수 있도록 공식 건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여성 할당제로 여성총대 수가 늘어난 것에 만족하지 않고 역할까지 부여해 활동할 기회를 주자는 의미다. 현재 총회와 연회 건의안심사위원회와 장정개정위원회 등 핵심 부서에 위원으로 참여한 여성은 전무한 상태다.

“이단 척결 사역에 역량 집중할 것”

한기부 정기총회...신임 대표회장 임준식 목사 선출

한국기독교부흥협의회(한기부·이사장 송일현 목사)는 지난 29일 서울 서초구 웨라튼서울플래스강남호텔에서 제50회 정기총회를 열고 임준식(서울 목양교회) 목사를 신임 대표회장으로 선출했다. 신임 대표회장의 임기는 1년이다.

임 대표회장은 취임인사에서 “한기부 50주년 ‘희년의 해’를 맞아 이단 척결 사역에 한기부의 역량을

집중하겠다. 이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단판별에 대한 시비를 줄여 교회의 권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회원들의 밀린 회비를 당감하고, 부부수련회와 체육대회를 열겠다. 회원교회를 방문해 교회 및 회원 간 연합과 협력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직전 대표회장 윤보환 감독은 이임인사에서 “민족의 암흑기 때 부

흥사들이 힘을 불어 넣었는데, 한기부 부흥사들이 그런 역할을 감당하길 기대한다. 한기부와 함께 한국교회의 발전과 민족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했다.

한기부는 1970년 고 박용목 신현균 목사, 조용기 목사 등이 창립한 부흥사연합단체로 한국교회 성장을 위해 설립됐다. 각종 부흥집회를 열고 있으며 사랑의쌀과 연탄 나눔, 노숙인 급식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

했다. 부산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손대식 부장판사)는 “31일 부산 금정구 부곡교회에서 부기총 정기총회를 개최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부기총 전 회장 A목사는 “최근 한국교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변화와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그러나 다음세대 부흥을 위해 모두가 자신을 주장과 기득권을 내려놓고 화합의 길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직 예수, 오직 감동, 오직 은혜, 오직 성령 등 500년 전 종교개혁 정신만이 부산교계, 나아가 한국교회가 살길”이라며 “부산지역 목사와 장로 등 모든 교계 지도자들이 분열을 막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기총 40여년 만에 분열 위기

“정상화위해 용서·화합을” ...이성구 전권위원장 호소

부산지역 1800개 교회가 참여하고 있는 부산기독교총연합회(부기총·대표회장 정성훈 동래중앙교회 목사)가 출범 40여년 만에 심각한 분열 위기를 맞고 있다.

부기총은 30일 오후 부산 당감동 부기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기총은 오래된 폐단 속에 정착 중요한 선교의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부산교계도 대변하지 못했다”며 “그런데도 지금 두 쪽으로 갈라지는 분열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부단한 개혁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앞장서 실천하고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일부

에서 획책하는 부기총의 분열 시도 중단을 촉구하고 부산교계의 단합과 평화를 호소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부기총 전권위원장이자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대표회장인 이성구(시온성교회) 목사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부기총 정상화를 위해 화합과 용서, 사랑으로 포용할 각오로 일하고 있다”며 “지금이라 도 잘못된 부분을 인정해 각종 오해를 풀고 화합의 장이 마련되길 기도한다”고 말했다.

부기총은 이날 일부에서 개최하려 했던 부기총 정기총회가 위법하다는 법원의 가처분결정문을 공개

과 기독교'를 발표한 송정연 연세대 박사는 “민중화단계 3·1운동에서 기독교의 역할을 살펴보면 교회나 기독교학교가 있으면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주동해 민세운동을 주도했다”며 “그러나 그곳에 천도교회가 있으면 기독교인과 천도교인이 제휴했고, 교회나 기독교학교가 없는 지역에서는 천도교 혹은 유생·농민 등이 중심이 되고 돕는 식으로 민세운동을 벌였다”고 말했다.

송 교수는 “3·1운동에 있어서 지역으로 내려갈수록 더 다양한 역할로의 기독교인 참여가 눈에 띈다”며 “그 규모와 강도도 중앙에 비해 감소한다”고 말했다. 교회와 교인이 3·1운동을 강하게 주도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보다는 지역교회가 다른 세력과 연합하는 사례가 더 많이 관찰된다고 했다.

김 소장은 이를 두고 “기독교인들이 3·1운동을 계획하고 적극 참여했던 건 자신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야말로 순수하게 해방·독립을 바랐던 것”이라며 “우리 민족 공공의 선을 위해서는 타 교파는 물론 타종교인과도 연대하고 협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는 “(민음의 선배들은) 복음과 정의를 위한 고난과 거기에 동참하는 것을 진정한 축복으로 여겼다”며 “이들이 가졌던 3·1정신이야말로 현재 우리의 민족사적 과제인 자주적 민주화와 평화적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절실히 요구되는 정신이다”고 말했다.

“3·1운동 확산은 기독교가 통로가 됐다”

한국기독교역사학회 학술심포지엄, 지역 미션스테이션이 거점 역할

“3·1독립운동의 전국적 전파에 각 지역 기독교 '미션 스테이션'이 거점 역할을 했다.” 내년 3·1독립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3일 서울 종로구 서울YMCA 건물에서 열린 한국기독교역사학회 학술 심포지엄에서 나온 얘기다. 그간 기독교인들이 1919년 3·1독립운동을 주도했다는 사실은 많이 알려졌다. 그러나 독립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던 민중화 단계에서의 기독교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가려진 편이었다. 주최 측이 '3·1독립운동의 지역적 전개와 기독교'를 이번 심포지엄 주제로 정한 이유기도 하다.

이날 '서울·경기지역의 3·1운동과 기독교'란 주제로 발표한 송현강 한남대 교수는 독립선언식과 관련된 기독교계 인사들의 참여 과정 역시 한국교회 조직이 활용됐다고 했다. 교파별, 단체별 인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3·1운동이 진행됐다고 말했다. 여기엔 선교사와 교회가 세워 운영했던 기독교학교와 병원들도 포함됐다.

그는 “평안도 지역과 서울 지역의 경우 당시 북장로교 선교부 담당으로 총회 활동이나 사업을 통해 목사나 장로들이 자주 만날 수 있었다”며 “남강 이승훈 선생은 이러한 네트워크를 활용해 3·1운동 코디네이터로 활약했다”고 말했다. 송 교수는 “교회 및 기독교학교를 중심으로 한 북감리교와 남감리교

역시 (3·1운동 태동의) 한 축이었다”고 덧붙였다.

‘충청지역의 3·1운동과 기독교’주제를 맡은 황미숙 목원대 교수 역시 “기독교인들이 3·1운동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던 데에는 이전시기부터 세워진 교회·학교의 조직망에서 연관이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3·1운동이 일어난 지역은 대체적으로 조선시기부터 존재해왔던 장터에 세워진 교회와 기독교 학교가 있던 지역”이라며 “충청지역은 중앙 주도 세력과 연계되지도, 독립선언서가 직접 전달되지도 않았지만 이미 민족주의적 사고를 바탕으로 교인과 주민들을 규합할 수 있는 조직망이 갖춰져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호남지역 기독교계 3·1운동도 미션스테이션이 있는 지역에서 활발히 일어났다. 기독교학교가 없는 지역에선 교회 직분자들과 교인들, 전도부인들, 병원 사무원들이 활발한 참여를 보였다고 한다. 영남도 마찬가지였다. 선교사들에 의한 교육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됐던 터라 학교를 통한 3·1운동이 활발했다고 한다. 이윤민 한국기독교역사학회 총무이사는 “대구·경북지역은 미국북장로회가, 부산·울산·경남지역은 호주장로회가 관할하는 선교구역으로 7곳에 스테이션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호남·제주 지역의 3·1운동

‘명성교회 사태’ 수습 대신 장기화 우려

“차라리 둘로 쪼개자” …서울동남노회 또 파행

명성교회 목회 대물림(세습) 문제로 갈등을 겪은 서울동남노회가 또다시 파행을 겪었다. 노회를 둘로 쪼개자는 제안까지 나왔다. 명성교회 사태 장기화 우려 역시 커지고 있다.

서울동남노회는 30일 오전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제75회 정기노회를 개최했다. 명성교회를 포함해 이 지역 130여 교회 소속 목사와 장로 등 300여명의 노회원이 참석했다. 노회 측은 예배와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했고 취재진과 참관인의 출입을 막았다. 이 과정에서 고성과 몸싸움이 오갔고 일부 기자가 폭행당했으며 경찰이 출동했다.

회의는 지난 9월 전북 익산 이리신광교회에서 열린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의 명성 세습 불인정 및 총회 재판관 불신임 결의를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쟁점이었다. 명성교회 세습에 반대해 노회장을 승계하지 못하고 서울대책위원회를 구성한 김수원 목사 측은 “총회 결의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명성교회 측은 “총회보다 법 해석이 우선”이라고 맞섰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차라리 노회를 나누자”는 분립 제안이 나왔고 사

회자는 즉각 산회를 선언했다.

비대위 측은 사회자의 일방적 산회 선언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면서 회의를 계속할 것을 요구했다. 결국 명성교회 세습을 반대하는 100여명 노회원만 남은 상황에서 김수원 목사를 노회장으로 추대했다. 이 과정에서 거친 몸싸움이 일었고 경찰이 출동했다. 절반 미만의 노회원만 남은 상황에서 집행부를 인선해 효력을 둘러싼 또 다른 갈등도 예고했다.

명성교회 측 한 장로는 “사안마다 사사건건 의견이 다르니 노회를 분리해 운영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앞으로 분립할 방법을 차분히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비대위 측은 “분립이 아닌 정상화만이 사태 해결의 대안”이라며 “총회 결의부터 준수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장외 공방도 치열했다. 교회세습 반대운동연대는 올림픽파크텔 밖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성교회 세습은 철저히하고 서울동남노회는 정상화하라”고 요구했다. 장외신학대 총학생회와 명성교회정상화위원회도 손팻말 시위에 동참했다. 명성교회 사태 해결의 종착역인 서울동남노회가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파행하면서 사태 장기화 우려

와 함께 피로감도 커지고 있다. 이날 노회 소속 목사들의 안수식이 취소됐으며 노회 산하 교회의 금융 관련 서류 발급도 중단되는 등 12개월째 불편이 이어졌다.

“갈등 멈추고 명성교회 치리하라”

세습반대운동연대 성명 발표

교회세습반대연대(세반연·공동대표 김동호 백종욱 오세택)는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등 9개 단체와 함께 ‘서울 동남노회는 갈등을 멈추고 명성교회를 치리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명성교회의 불법세습이 정의롭게 치리되기를 희망한다”며 “김수원 목사의 노회장직 승계는 본래 절차상 바로잡은 결의였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30일 파행된 서울동남노회의 행태에 대해서는 비판적 입장을 견지했다. 세반연은 “일부 노회원들이 총회 결정을 받아들이는 절차를 무효하고 소란으로 회의 질서를 마비시켜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세반연은 “동남노회의 정상화를 촉구하며 세습 반대 의견을 표명한 명성교회에 대해 적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거센 형평성 논란에도 종교적 병역거부 ‘무죄

교계 “특정 종교집단에 특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임역을 거부하는 ‘종교적 병역거부’를 처벌 대상으로 삼아선 안 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이 2004년 종교적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를 확정된 기존 판례를 14년 만에 뒤집은 것이다.

시민들과 종교계는 개인의 종교적 신념을 앞세워 국방의 의무를 회피하겠다는 것은 국가의 존립과 직결되는 위중한 문제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종교적, 양심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누가 군대에 가려 하겠느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여호와 증인’ 신도 오모(34)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창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오씨는 2013년 7월 육군 현역 병 임영통지서를 받고도 임영일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임영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종교적 병역거부가 병역법상 처벌의 예외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라고 판단했다. 또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을 인정해야 자유민주주의가 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그 신념에 선뜻 동의할 수 없더라도 관용하고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체복무제 도입 여부와 종교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형사 처벌은 별개라는 입장도 밝혔다. 대체복무제가 마련돼 있지 않아도 종교적 병역거부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에 적용되는 병역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다만 대체복무제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 보고 국회에 2019년 12월 31일까지 임법을 마련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종교적 병역거부를 무죄로 본 의견에는 9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4명의 대법관은 “개인적 신념이나

“北 전시용 교회 십자가만 보여도 주민들에 파급력”

태영호 전 북한공사, 서울신학대 세미나 강연

국민미션포럼에서는 11월 미국 중간선거 이후 열릴 가능성이 높은 2차 북미 정상회담과 연내 서울에서 열릴 4차 남북 정상회담 ‘향후 남북교류가 활발해질 때 한국교회가 북한에 교회당을 하나라도 더 세운다면 큰 소득일 겁니다. 전시용 교회로 지붕 위 십자가만 보일지라도 북한 주민에게 전달하는 파급력은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공사는 31일 “북한이 1988년 보수교회를 세웠는데 2005년 한국교회의 지원으로 이를 재건축했다. 그런데 북한이 세운 것과 재건축 이후 교회 모양이 다르다”며 “원래는 지붕 위 십자가가 사방팔방에서 보였는데 신앙이 생긴 주민들이 이를 보려고 매주 일요일 교회 주변을 빙빙 돌았다. 그래서 다시 지을 땐 정면에 서만 십자가를 볼 수 있게 십자가 양쪽에 기둥을 세웠다”고 말했다.

태 전 공사는 이날 경기도 부천 서울신학대 한국기독교연구원주 소(소장 박영환 교수)가 개최한 추계 세미나 및 간담회 강사로 초청됐다. 세미나의 주제는 ‘북한의 통일 이해와 남한교회의 역할’이다. 태 전 공사는 북한의 기독교 현황뿐 아니라 비핵화, 교향 방북 등 현안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태 전 공사는 “십자가만 보여도 북한 주민에게 미치는 파급력은 상당하다”며 “김씨 부자 초상화 없이 행사가 열리는 유일한 곳이 교회다. 비록 보여주기 식이라도 교회가 북한 세습 통치 유지에 어떤 영

가톨릭교회 소유권’ 문제에 북한이 사전 합의해야만 가능할 것으로 봤다. 그는 “북한이 외교적 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해 교향청의 권위를 인정하는 결심을 내렸다면 교향이 방북하는 게 나올 것”이라며 “환영 행사를 통해 북한 주민에게 자연스럽게 교향과 가톨릭이 알려지고 이것이 결국 모든 신자들의 신앙심을 불지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담을 앞두고 교계 내에서도 어떤 역할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빌딩에서 11일 오후 진행된 국민미션포럼 세 번째 세션에서는 월드비전, 기아대책 등 기독교 NGO들이 어떻게 북음으로 평화와 통일 이슈를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조용래 국민일보 대기자지는 ‘기독교 미디어, 세상을 품다 미래를 연다’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조 대기자지는 “국민일보는 기독교 이념을 기반으로 세워진 미디어 기업이지만 정체성을 구체화하기는 쉽지 않다”며 “복음(Good news)과 뉴스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일선교 사역에 앞장서고 있는 교회도 역할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도 가졌다. 정성진 거북한빛광성교회 목사는 현재 교회가 진행하고 있는 통일선교 사역을 소개했다. 교회는 2001년부터 17번째 북한선교를 진행하고 있다.

기독교 NGO들도 선교 사역 현장에서 얻은 노하우를 공유했다. 신대음 통일한국세움재단 이사장은 ‘통일한국세움재단의 통일운동’이라는 주제로 통일 과정에서 북음을 전하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교토소 선교칼럼 (50)



이영희 목사
교토소 교목, TPPM대표

섬김: 디모데 갈시아

“저는 목사님이 ‘최고의 성인들’ 책을 쓴 분인 줄 몰랐어요.” 디모데는 밝게 웃으며 말했다. 내가 그에게 세례증서를 주었을 때 한 말이다. “그 책은 실제로 재소자들이 썼죠. 전 단지 그들의 이야기를 모아 책으로 낸 것뿐이죠.”

“나는 오랫동안 사탄을 숭배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다녔어요. 사탄은 나에게 많은 것을 약속했지만 결과적으로 나는 계속 죄와 인성을 살았고 심지어 다섯 번째로 형무소에 가게 되었을 때는 자살충동까지 겪었어요. 자살 관찰 보호 구역에서 나왔을 때 ‘최고의 성인들’을 읽기 시작했고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후에 마귀가 그를 괴롭혔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귀신과 싸우는 법을 알게 된 그는 하루 종일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음으로 싸움에서 승리하고 있었다. 출소 후에는 목사가 되기 위해 신학공부를 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문신이 사탄의 흔적이라는 생각해서 괴로웠지만, 오히려 나는 그에게 사탄을 숭배하는 이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특별히 주신 것이라고 말해주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사탄에 대한 영적 지식을 통해 마귀의 공격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이다. 그는 사람들이 사탄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위

험한지를 경고하고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고 증거 하는 주님의 일꾼이 되었다. 디모데가 떠난 후에도 그의 간증과 다큐멘터리 영화는 많은 사람들을 도왔다. 그 한 예가 하루는 성령님께서 디모데의 간증을 예배시간에 보여주라고 말씀하셨다. 예배가 끝난 후에 한 남자가 자기도 마귀에게 2년 동안 공격을 당하고 있다고 했다.

“정신적인 혼돈 속에서 살고 있어요.” “마음에 평안도 없고 고통스럽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어?” “아니요.” “우리의 힘으로는 마귀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의지하면 그분의 힘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는 사탄도 있고, 지옥도 있고, 하나님도 계시다고 간증했어. 그가 사탄을 믿었을 때엔 고통 속에서 살았다고 했어요. 사탄에게서 이기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가 되었지요?”

그가 준비가 되었다고 하자 나는 예배에 참석한 사람 중에 그를 예수님께 영접하는 기도를 인도할 사람이 있느냐고 물었다. 한 재소자가 손을 번쩍 들고는 “제가 하겠어요” 하고 말했다. 우리는 원을 만들고 기도를 시작했다. 그래서 그날 한 사람이 디모데의 간증 때문에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시간이 되었다.

제가 만약 당신이라면 걸어 다니면서 주님 안에서 느끼는 기쁨을 선포할 거예요. 기쁨을 느낄 수 있을 때까지 선포할 거예요. 주님이 있기 때문에 기쁨이 있어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기쁨이 있어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쁨이 있어요. 주님이 나를 돌보시기 때문에 나는 기쁨이 있어요. 등등. 기쁨을 선포하는 동안 당신은 또한 기쁨으로 인해 춤출 수도 있어요.”

“나를 위해 춤출 수 있어요” 그녀는 나의 제안을 따라 그 자리에서 기쁨을 선포하기 시작하며 춤추기 시작했다. 즉시 그녀는 기쁨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 더 이상 기쁨을 구하는 기도를 할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이미 기쁨으로 춤만했다. 일주일 후 다시 그녀를 보았을 때 나를 향해 웃으며 손들이 인사했다. 나는 문틈을 통해 그녀에게 말했다.

“나를 위해 춤출 수 있어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춤추기 시작했고 그것을 보는 나와 교도관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하나님의 부름 받은 종으로 기도와 노래에 재능이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와 함께 있을 때 기쁨이 충만해진다고 고백했다.

그녀와 베스타, 이 두 자매와 함께 드린 예배는 지금까지 내가 경험한 최고의 성령 충만한 예배였다. 다나가 직접 만든 곡으로 특송을 하면 베스타는 주님을 향한 경외심에 무릎 꿇고 바닥에 엎드린다. 또 그녀는 방언하고 찬양하며 춤춘다. 나는 그때마다 천국의 기쁨과 성령님의 임재를 느끼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의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축복하셨다.

5월 22일 주일예배에서 다나가 베스타, 리사와 함께 연극을 했다. 다나는 조폭 역할을 한 베스타에게 성경을 읽어 주면서 전도를 했다. 리사는 예수님이 베스타를 돌보지 않는다고 빈정대려 했지만 다나는 포기하지 않고 베스타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다. 결국 베스타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간증을 노래하며 춤추기 시작했다. 나는 교도관들에게 이 연극을 와서 보기를 권유했다.

연극이 끝난 후 교도관들은 말했다. “모든 감방에 있는 사람들이 봐야 할 거 같은데.”

그녀들의 연극은 그 후 계속 되었고 많은 이들 앞에서 공연을 하게 되었다. 이것을 시작으로 다른 재소자들은 자신의 감방에서 또 다른 연극을 준비하기 위해 아이디어를 냈다. 이 모든 것은 놀라운 파생 효과를 가져왔다. 이 연극은 다나의 아이디어였다.

yonghui.mcdonald@gmail.com

“그의 영광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

제14회 글로벌국제선교대회... 한반도 문제 패널토의

제 14회 글로벌다민족 국제선교대회(G.I.M. 대회) 장 정윤명 목사, 월넛크릭 지아이엘교회 담임)가 Global International Missions Rally(글로벌국제 선교·교회연합) 주최로 지난 11월 3일 샌프란시스코 인근 San Lorenzo 지역의 cornerstone Fellowship Church(담임 Michael L. Wilson 목사)에서 열렸다.



제 14회 글로벌국제선교대회에서 패널토의가 진행되고 있다.

대회는 “Declare His glory among the nations(그의 영광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 지어다)”라는 주제로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및 미국 전역의 30민족 교회 성도들이 모여 미국과 열방의 회복을 소원하는 헌신의 결단과 결속의 시간을 가졌다.

미국 주류교회를 비롯 한국, 우간다, 하이라, 동유럽, 루마니아, 미얀마, 중국, 이란, 라티노, 아랍, 에티오피아, 필리핀, 인도, 뉴질랜드, 아프리카메리칸,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이스라엘(메시아니즘), 몽골, 톱 등 30여 여러 민족대표와 많은 다민족 성도들이 모인 가운데 미국과 열방의 회복을 간구하는 합심빌레이 기도에서 이어 12개국의 선교 보고가 있었다.

이어서 메시지, 패널, 찬양 페스티벌을 갖고 미국내 이반젤리컬 교회의 여러 민족들과의 연합과 협력을 통한 선교의 사명을 효과적으로 잘 감당할 것을 다짐했다.

특히 이날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민족 대표들의 합심 빌레이 기도에서는 미국의 중간선거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된 지도자선출, 한국의 교회와 자유민주주의 보호, 북한의 인권과 신앙의 자유,

열방의 회복을 위한 특별 합심기도 순서가 있었다.

국제 패널에서는 풀러신학교 설교학 교수인 케빈 머피 목사의 사회로 “Freedom of Captives”라는 주제로 각 지역 교회 대표들의 패널발표가 있었다.

이날 한반도 문제에서는 ‘간힌 자들을 자유롭게 하라’는 이사야 61장 1절 성경말씀의 패널 주제에 따라, 북한의 인권과 신앙의 자유와 함께 논의된 대한민국의 현 상황을 몹시 우려하며, 북핵정권의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박해하는 불의에 적극 대항해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를 유지하게 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위해 미국교회가 연합해서 기도하며 성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의 교회 보호를 위해 미국의 모든 교회들이 모여 단합기도에 한 목소리로 합류한 것이라면, 빌리지침례교회의 케빈 알트 립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려는 우리의 사명을 감안할 때, 하나의 교단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밝히는 이러한 국제선교대회의 교회간의 연합사역을 통해 기회를 갖고 포로 상태에 있는 그들에게 진정 복음만이 그들을 자유롭게 한다”고 밝혔다.

〈1면에서 계속〉

예배는 김경열 목사 인도로 기도 김동권 목사, 성경복동 정대열 장로, 특송 남상보 집사, 설교 김영식 목사, 합심기도, 축도 유상열 목사, 광고 문석진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김영식 목사는 “의인들의 찬송”(시 33:1-5)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성가는 누구를 위해 하는가 하는 목적이 중요하다”며 “하나님의 진실하심에, 하나님의 공의하심에, 하나님 말씀의 정직함에,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에, 하나님의 인자심이 충만하심에 대해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목사는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 의인의 찬양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죄인임을 고백하며 송구스런 마음으로 찬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합심기도는 △세계전양대합창제의 성공적인 연주를 감사하며 △세계전양대합창제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랑 나눔을 실천하게 된 것을 감사하며 △CBSN이 복음의 나팔수와 찬양의 도구로서의 역할을 크게 감당하도록 기도했다.

2부 해산식은 문석진 목사 사회로 홍보 영상 상영후 양민석 목사가 준비위원장

인사를 했다.

양 목사는 “임산케 하신 하나님께서 해산케 하셨다”(사16:9)며 “마음속에 비전을 임산케 하신 하나님께서 찬양을 통해 일치와 화합을 이루며 사랑의 열매를 맺어지도록 하심을 감사한다. 작은 물질이지만 후원받는 단체들 마음속에 큰 기쁨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문석진 목사의 경과보고, 후원금 전달, 감사패 전달, 축사(노기승 목사, 김에스터목사)가 있었다.

문석진 목사는 “2016년 처음 할 때는 참여할 합창단이 없었다. 2018년도 맨땅에서 시작했는데 상황을 이루게 하셨다. 2020년을 위해서 다시 제로에서 시작해야 한다. 기도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후원받은 단체는 국제장애인선교회, 뉴욕말알선교단, 뉴저지말알선교단, 새생명선교회, 뉴욕나눔교회, 뉴욕농아인교회, 미동부국제기아대책, 니카라과선교사협의회, 선한이웃어린이선교회, 니카라과 천사어린이합창단이다.

감사패는 9개 합창단과 뉴욕교회연합합창단, 양민석 준비위원장, 최재복 행사위원장, 이계훈 후원위원장, 뉴욕평화교회 등에게 수여했다.

(유원정 기자)

기쁨의 춤

다나 테볼의 삼촌이 그녀의 어머니를 벽돌로 살해했을 때 그녀는 겨우 6개월 된 아기였다. 그 후 고아원에서 자라며 성폭행을 당했고 커서는 섹스와 마약을 복용하는 것이 삶의 고통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러던 그녀가 하나님을 만난 후 변화되기 시작했다.

폭력에 노출된 힘든 삶 속에 자식을 입양시키는 아픔을 겪었지만 여전히 미소가 빛나고 긍정적인 마음을 잃지 않았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알게 된 것이다. 어느 날 이유를 알 수 없지만 기쁨이 사라져 그 기쁨을 되찾기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쁨을 잃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요. 제가 지금 나열한 것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지 생각해봐요. 첫째로 당신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봐요. 만약 하루 24시간에서 90%를 걱정하면서 보내고 10%만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시간에 쓴다면 기쁨을 잃게 될 거예요. 둘

째로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생각해 보세요. 만약 당신 시간의 90%를 당신에게 관심을 또 하나님이나 다른 것에 쏟고 10%만 성경을 읽거나 기도하는데 보낸다면 기쁨을 잃게 될 거예요.

셋째로 하나님을 믿는 행하는 일을 생각하는지 보세요. 만약 당신의 초점이 당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있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것을 믿고 있으면 기쁨을 잃게 될 거예요. 넷째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 보세요. 만약 당신이 자신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다른 사람이 기쁨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에 관심이 없다면 당신의 이기심 때문에 기쁨을 잃게 될 거예요.

다섯째, 당신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보세요. 당신 스스로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선포하지 않으면 기쁨을 잃게 될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주님 안에서 이미 받았던 것과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를 선포하기 시작하세요.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p>남가주주든교회 담임목사: 김현민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 Youth: 오전 11:00 주일 학교: 오전 11: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금) Tel: (213)481-2779 / Fax: (213)481-3761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facebook.com/srscsa</p>	<p>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20 젊은이 예배: 오전 11:20 젊은이 예배: 오전 11:20 금요찬양예배: 오후 9:15, 11:30 일요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 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p>	<p>대흥장로교회 담임목사: 권영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요예배: 저녁 7:30 Tel: (310)719-2244, Fax: (310)719-2229 15411 N.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www.dkpc.org</p>	<p>디아스포라선교회 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전영자 목사 “세계속에 흠뻑 젖어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주일예배: 오후 2:30 Tel: (213)559-7728 (전화 팩스 동일), Fax: (213)210-6890 2333 Beverly Blvd., L.A., CA 90027</p>	<p>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매일) Tel: (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www.youngnak.com</p>	<p>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임승진 주일 1부: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 3부: 오전 11:00 (형년부) 4부: 오후 1:45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www.mpcja.org Tel: (213)381-2202, Fax: (213)381-2535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p>	<p>빛과 소금의 교회 담임목사: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5(월-금) 오전 6:00(토) Tel: (310)749-4756 21519 S. Menlo Ave Torrance CA 90502</p>
<p>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김한호 주일 1부예배: 오전 7:15 주일 2부예배: 오전 9:1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찬양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일요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 Tel: (949)854-4010 / E-mail: betheh@bk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www.bkc.org</p>	<p>LA 복음연합감리교회 담임목사: 김효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아동부/성경공부: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성경공부(목요일) 오전 10:00 새벽예배: 오전 6:00 Tel: (323)641-0691 / ys2104@hotmail.com / www.lagumc.org 1200 S. Manhattan Pl., LA, CA 90019</p>	<p>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상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일요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예배: 오후 7:30 Tel: (562)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p>	<p>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213)745-9191(CH), 사택(818)893-8607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p>	<p>요셉선교회 담임목사: 정상기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저녁 7:30 금요예배: 저녁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Tel: (213)245-4090 Fax: (213)365-1670 1400 Alvarado Terrace, L.A., CA 90006</p>	<p>얼빈침례교회 담임목사: 임규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주일 5부예배: 오후 2:00(월-금)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수요점심기도회: 오후 7:30 www.irvinechurch.com Tel: (949)857-9425 / Fax: (949)857-9472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p>	<p>윌셔트리스천교회 담임목사: 임규서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영아)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전통) 주일 4부예배: 오후 2:00(다민족합창)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토) 주일 학교: 오전 11:00 토요점심예배: 오후 6:00 Tel: (213)384-2774, Fax: (213)384-8638 3435 Wilshire Blvd., #101 L.A., CA 90010</p>
<p>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찬양예배: 오후 2: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EM) 주일 5부예배: 오후 2:00(장년) 창세기기도회: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www.gracemc.com Tel: (714)446-6200, Fax: (714)446-6207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633</p>	<p>주님세운교회 담임목사: 박성규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영아) 주일 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성령강화회: 오후 7:20(금) Tel: (310)325-4020, Fax: (310)325-4025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www.junimchurch.com</p>	<p>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수요/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금) Tel: (213)749-4500, Fax: (213)749-6700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www.gicj.org</p>	<p>좋은마음교회 담임목사: 신현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아)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목회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www.socalsamsungchurch.org Tel: (714)646-9259 Fax: (714)646-9264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p>	<p>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아) 수요예배: 오후 7:30 수요/금요예배: 오후 5:30(월-토) www.cornerstonenyc.com / e-mail: pastor@iacornerstone.com Tel: (310)530-4040(CH), Fax: (310)530-8400 2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p>	<p>토렌스주교회 담임목사: 김우준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아)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EM) 주일 5부예배: 오후 2:00(장년) 창세기기도회: 오전 10:00 수요점심예배: 오후 8:00 www.trancegcc.org Tel: 310-370-5500, Fax: 310-370-2009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p>	<p>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들을 찾습니다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N.Y.: Tel: (718)896-4400 Fax: (718)89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가든지 보내든지 하자” ...10명 수료 27기 뉴욕실버선교학교 종강 및 단기선교 파송예배



27기 뉴욕실버선교학교 종강 및 단기선교 파송예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뉴욕실버선교교회(회장 김재열 목사)가 운영하는 뉴욕실버선교학교 종강 및 단기선교 파송예배가 10월 29일 오후 8시 친구교회(빈상석 목사)에서 열렸다. “가든지 보내든지 하자”라는 주제로 지난 8월 27일 개강한 27기 뉴욕실버선교학교는 10주간의 과정을 마쳤다. 예배는 김경열 목사 인도로 피어선신학교 찬양팀의 찬양, 기도 김경열 목사, 특송 김영환 전도사, 설교 한재홍 목사, 헌금 지인식 목사부부, 헌금기도 문삼성 목사, 수료증 및 감사패 수여 김재열 목사, 선서 및 스페니쉬 찬양 선교사 이동(단장 최윤섭 목사), 인사 27기 회장 이준희 전도사, 광고 김경열 목사, 축도 빈상석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이사장 한재홍 목사는 “본향을 향하여”(히11:13-16)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우리는 일회적인 삶을 산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사실이다. 이 세상에서 원

망불평하지 말라. 더 좋은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 우리 모두 하늘나라에 갈 준비를 해야 한다. 세상을 위해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한 도성인 하나님나라를 바라보며 살고, 오늘을 이기고 살아야 한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야 할 분향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라고 말했다.

27기 수료자는 박건일, 이준희, 이준기, 김성순, 한동수, 신경애, 곽용석, 지인식, 설금옥, 강아인 등 10명이다.

교육과정 후 가는 단기선교는 수료자 등 25명이 11월 5일부터 10일까지 온두라스로 가서 의료, 한방, 이마용, 안경, 사진, VBS 등 여러 사역을 펼치게 된다(문의 이형근 장로 646-220-8222).

(정리: 유원정 기자)

한국어 등 4개 국어로 함께 찬양 제9회 아가페열방찬양제...40%이상 타민족 회중



제 9회 아가페열방찬양제를 마치고 출연진들과 준비팀이 함께 기념촬영 했다.

제 9회 아가페열방찬양제가 지난 4일 저녁 250여명의 회중이 모인 가운데 뉴저지아가페장로교회(담임 김남수 목사)에서 열렸다.

미주 최대 규모의 찬양제로 매년 11월 첫째 주에 개최되는 열방찬양제는 엘리트크리스찬밴드의 웅장한 연주와 김남수 목사의 기도로 시작됐다.

세계국악경연대회 대상 춤누리무용단의 화려한 공연은 타민족 회중들에게 환호를 받았고 가스펠스타 대상 수상자인 백성화씨의 폭발적인 찬양으로 큰 감동을 주었다.

이어 아이리쉬 찬양밴드팀 7days, 레마네티 휘엘 스페니쉬 찬양팀, 러커스 중국인교회팀 등의 공연 때는 모두 박수를 치며 일어나 함께 찬양하며 은혜를 나누었다.

또한 초대교회 남성4중창단의 완벽

한 하모니에 의한 찬양에 큰 박수가 나왔으며 청소년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받고 있는 제이&자넷의 찬양에 모두가 함께 따라 부르며 시간도 가졌다.

이날 찬양제의 백미는 각각의 고유 언어로 중국어 싱어 율란차오, 스페니쉬 싱어 아리엘 벨트레, 한국어 싱어 한재덕, 영어찬양에 제이가 함께한 4개국어 연합찬양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와 “You raise me up” 찬양에는 감격의 눈물을 보이는 회중들도 있었다.

김남수 목사의 축도로 끝맺음을 한 이번 찬양제는 전체 회중의 40% 이상이 타민족 회중으로, 그야말로 열방이 함께한 ‘열방 찬양제’였다.

찬양제 후에는 한식으로 준비된 식사를 나누며 친교했다.

(기사제공: 뉴저지아가페장로교회)

기독교경영 전략

기독교경영 전략(Christian Business Strategy) 강의 (33)



제임스구 교수
(그레이스미션대학교 행정처장)

투자과 성경적 원리(2)

A. 위험과 수익을 평가하라

투자에서 중요한 고려 요인으로 위험 대 (vs) 수익 비율이 있다. 일반적으로 수익률이 높을수록 그에 상응하는 위험의 정도가 커진다. 위험은 교육과 세심한 분석으로 줄일 수는 있지만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다.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는 투자 대상이 투자를 유인할 수 있으려면 위험을 최소 수준으로 줄일 수 있어야 한다.

B. 자산 중의 일부는 부채 없이 유지하라

투자 금액의 일부는 부채 없이 유지되어야 한다. 즉 불경기에 돈을 빌려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느 정도의 현금을 예비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투자 금액 중의 최소한도의 금액만을 현금 준 현금성 형태에 투자한다. 환금성이 높은 투자 대상으로는

의 변동에 따라 계속적으로 분산투자를 수행해 나가야 한다.

전도서 11장 2절에는 “일곱에게나 여덟에게 나눠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라고 하였다. 적절한 분산 투자를 하려면 투자 대상을 알맞게 분류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 장기적 추세를 따라라

장기적인 경제 추세, 특히 인플레이션에 관심을 두고 투자해야 한다. 투자자들은 종종 단기적인 추세에 이끌려 행동하는 경우가 있다. 증권시장이 하락하고 투자자들이 적절한 시기에 매각을 하지 못했다면 이들은 어쩔 수 없이 하락한 가격에 매도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투자 자금을 어디에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를 결정할 때 장기적인 추세를 고려하는 것이 현명하다.

종종 이들의 자산은 채무에 의한 것이어서 장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종류의 자산은 경제적 변동에 약할 수밖에 없다.

재무 위기가 닥치면 순가치(Net worth)는 별다른 의미를 갖지 못한다. 중요한 것은 과연 실제로 얼마나 채무 부담 없이 소유하고 있는가에 있다. 신중한 투자자라면 궁극적으로 채무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투자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잠27:1).

G. 어디에서 매각해야 하는가를 알고 있 으라

매입하기 전에 먼저 어디에서 매각해야 할 것인가를 파악하라. 귀금속의 원석, 은, 금 혹은 수집품 등에 투자를 할 때에는 특히 이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많은 투자자들이 자신이 투자했던 것의 처분 방법이나 장소를

재물 이해에 성경적 원리 적용...복음전파에 필요한 도구로 사용 투자 대상 분류 계획 수립해 분산투자 계속 채무 탈피, 인플레이션 주시, 전문지식 조언

채권, CD, Treasury-Bill(T-Bill), MMF(Money Market Funds) 등이 있다.

C. 인내하라

인내는 투자를 할 때에 실수를 최소화시킨다. 대부분의 투자 안은 실제로는 좋지 않은 투자임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좋게 보인다. 어떤 투자안도 좋지 않다고 광고하지 않는다. 즉, 대부분의 세일즈맨은 자기의 상품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진정으로 그 상품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다. 현명한 투자자는 투자 목적과 목표를 확실히 설정하고 그에 부합하는 투자방안을 선택한다.

종종 탐욕은 사람을 서두르게 하므로 탐욕을 없애기 위해서는 인내해야 한다. 벼랑바자의 꿈은 대부분 탐욕과 선부른 의사 결정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다.

D. 분산 투자하라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속담이 있다. 이 말은 투자 전략에도 적용된다. 분산 투자는 한 번에 끝나는 것은 아니다. 일단 분산 투자를 하고 방치해두면 안 된다. 경제 상황

전도서 11장 6절에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라고 하였다. 물가가 안정된 경제 상황에서 T-Bill 혹은 CD에 투자한다면 경제 성장률과 비슷한 정도는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인플레이션 시기에 고정 수입 투자는 오히려 손실을 가져다준다.

과거 수십 년간 인플레이션이 가장 강했던 투자방안은 대지, 아파트, 빌딩, 개인 주택 등과 같은 부동산이다. 하지만 물가와 이자율이 하락할 경우 이러한 종류의 자산가격은 하락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이럴 때 투자자들은 주식이나 채권 등의 유가 증권으로 투자 대상을 바꾸게 된다.

F.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에 초점을 맞 추라

많은 투자자들이 상당액이 순자산을 소유하고 있어서 적어도 장부상으로는 거대한 부를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들 자산의 거의 대부분이 채무에 묶여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들이 충분한 유동 자금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

알지 못해 결국에는 큰 손실을 입는 경우가 있다.

H. 좋은 조언자를 구하라

투자에 있어서 전문 지식보다 중요한 요소는 없다. 최선의 지식은 직접 자신이 습득한 것이다. 개인적 지식을 얻는 차선의 방법은 타인의 조언을 듣는 것이다. 잠언에서는 종종 조언 받는 것을 지혜의 척도라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조언이 현명한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다.

투자는 그리스도인이 재물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는데 중요한 성경적 원리를 적용해야 한다. 재물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사업과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도구로 사용해야만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서 부산물로 재물이 따라오는 것이다.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명심해야 할 성경적 원리이다.

dr.jameskoo@yahoo.com

초특가 온라인 판촉물 전문기업

핀촉상인 US
us.87sangin.com

FREE SHIPPING!

※현수막, 단체T셔츠 주문 환영



신속 정확 착한가격

기독교 서적 및 일반 서적

45% OFF+tax

—• 한국서적 •—
HANKOOK BOOKS

Food in Bible(II)

육류 및 가금류(Meats & Poultry) (하)



최성은 (Ph.D, RD, 퀸즈칼리지 교수)

정결한 음식, 부정한 음식

유대인들의 코셔(Kosher) 음식이 요즘 매출량과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할랄(halal) 음식만큼 먹는 이슬람교도를 포함한 비유대인들조차도 이 코셔(Kosher) 음식을 찾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코셔란 유대인의 음식규율에 맞는다는 의미로서 이들 음식에 관한 규정들을 유대인들은 수천 년간 충실하게 준수해왔다. 유대인들의 음식 규례의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다.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짐승의 고기만 먹을 수 있다.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물고기만 먹을 수 있다. 육식조와 섞은 고기를 먹는 조류는 먹을 수 없다. 스스로 죽은 것, 혹은 다른 짐승들에게 죽음을 당한 것은 먹을 수 없고 죽인 뒤 피를 모두 뽑아낸 짐승만 먹을 수 있다.

이들 기본 원칙에 더하여 두 가지의 중요한 원칙이 더 있는데 이는 고기와 유제품을 섞어 먹지 말라는 것과 육류와 생선을 물과 소금으로 씻어 깨끗하게 하라는 것이다.

외적 정결 통해 자연스런 내적 정결 겸비하도록 피의 섭취금지 남의 생명 먹는 잔학성 금한듯

이 같은 음식 규례의 제정 취지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여러 가지 해석들이 제시되어 왔다. 하지만 그 본래의 위치가 어디 있던 간에 거기에는 그 당시의 식품 위생 및 의료의 원리들이 함축되어 있음이 사실이다. 돼지고기, 조개류, 썩은 고기를 먹는 조류 등 금지된 음식들 중 다수가 질병을 전달할 위험성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 규례들은 종교적, 영적 이유에서 주어진 것이기도 하다. 곧 이 음식 규례들은 외적인 정결을 통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내적 정결을 겸비하게 하기 위한 의도를 표명하며, 모든 부정한 것들의 오염과 부패로부터 선민 된 자로서의 성결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세상적 죄악에 대한 성별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또한 백성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식생활에서조차도 이방인들과 철저히 구별된 삶을 살게 함으로써 항상 자신들이 하나님께 구별된 거룩한 백성임을 상기하도록 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었다.

이 규례들은 유대인들을 다른 민족과 구별 짓고, 그들을 단일한 민족, 단일한 신앙 공동체로 유지시켜 주는데 나름대로의 역할을 수행해왔다. 예를 들어 이 규례가 제정된 지 수 백년이 지난 후, 바벨론의 궁전에서 포로민이었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죽음을 무릅쓰면서까지 이 음식 규례를 준수함으로써 자신의 신앙적 양심을 사수하려 하였던 것이다.

레위기 11장에서는 짐승의 정, 부정의 기준이 나와 있는데 이는 노아 당시 제물의 효용성(창 7:2, 3, 20)과는 달리 식물(food)의 효용성에 준한다(레11:2). 육지 짐승의 식용 가능 기준은 굽이 갈라져 족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이어야 했다(레11:3). 그런 조건에 해당되는 동물들은 소, 양,

염소, 사슴, 영양, 노루, 산양, 산염소 등(신14:4-6)으로서 이들 동물들은 풀만 먹고 사는 초식 동물들로 깨끗한 것으로 간주되어 인간이 먹을 수 있는 동물로 생각되었다.

그 외에 낙타(레11:4), 사반(너구리 목 '뒤'의 대표적인 짐승이며 발굽이 있는 작은 포유류, 레11:5), 토끼(레11:6), 돼지(레11:7),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뱀장어, 가재, 새우, 조개류 등(레11:10, 11), 독수리, 솔개, 물수리(물고기를 잡아먹고 사는 새)와 말뚝가리와 말뚝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 타조, 타흐마스(올빼미나 매 비슷한 야행성 육식조로 속독새를 말함), 갈매기와 새매 종류, 올빼미, 가마우지(철새의 일종), 부엉이, 흰 올빼미와 사다새와 너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쥐(레11:13-19), 두더지, 쥐, 큰 도마뱀 종류, 도마뱀붙이, 육지 악어, 도마뱀, 사막 도마뱀, 카멜레온(레11:29,30), 땅에 기어 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 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짐승이 부정한 식품으로 언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기준을 오늘날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적용

하도록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규례들을 지킬 영양학적 근거들도 명확하지 않다. 또한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신앙적인 의미로 적용한다고 해도 그것은 각자의 결단에 맡길 문제가 아닌가 생각된다.

성경에서는 또한 피를 먹지 말 것을 가르치고 있다("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이 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창9:4, 레17:26; 레17:10; 신12:23-25; 신15:23; 렘15:20). 피의 섭취를 금하는 데는 과학적인 이유보다 영적인 이유가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피를 먹는 것은 잔학성을 뜻하는 것으로 피의 섭취가 권장되면 잔학성을 부채질하여 생명을 경시하는 경향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남의 피를 먹는 것은 남의 생명을 먹는 것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고기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 하는 문제보다는 어떤 고기를 어떻게 먹느냐가 하나님의 주관 심사이신 것 같다. 윤리적으로, 영적으로 바르게 판단하여 다른 이를 시험 들게 하지 않고 너무 욕심내지 않으며 하나님께 감사하게 먹을 수 있다면 무엇을 먹든지 하나님께 용납될 것이다.

"그러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전10:31).

이번 육류 및 가금류 편을 마지막으로 7편의 Food in Bible 연재를 마치려 한다. 그간 부족한 글에 대해 보내주신 구독자 여러분의 과분한 성원과 사랑에 무한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의 끊임없는 성경 연구에의 도전을 다짐해 본다. <끝>

cse1001@gmail.com

전화령 목사(캠보디아선교사)

whiteyou1@yahoo.com

매일가정예배

월 진리의 사람(고후13:8-10)찬92장

새 언약집권이 누릴 복된 세계를 열어주는 고린도후서의 마지막은 교회가 진리 위에 서야 할 것을 가르칩니다. 왜 그는 이 자리로 이 옵니까? 첫째, 진리를 거스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8). 진리이신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을 거스릴 수 없기에 교회는 그 위에 서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때 교회는 어두움의 세력 앞에 굴하지 않고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둘째, 진리를 위해 바로 서야하기 때문입니다.

니다(8). 진리는 어느 누구의 도움 없이도 견고히 스스로 섭니다. 이 복된 일에 쓰임 받도록 직분을 주신 것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셋째, 온전함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10). 온전은 진리를 떠나 존재하지 못합니다. 진리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해 그 안에 거하는 자만이 진리를 알고 그 진리로 인한 자유를 얻습니다. 이런 진리에 견고한 교회를 이룹시다.

화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고후13:11-13)찬23장

새 언약 백성의 절정에 해당되는 삶은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삶입니다. 어떤 삶을 살라하십니까? 첫째, 기쁘고 온전하게 되고 위로를 받는 삶입니다(11). 하늘의 은혜로 충만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위로로 충만하게 됩니다. 이것은 새 언약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로 오는 열매 외에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항상 기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의 자세가 바로

이것입니다. 둘째, 거룩한 입맞춤이 일어납니다(11). 이 은혜는 고인 물처럼 한 곳에 머물 수 없습니다. 문지방에서 나온 물이 성령을 채운 후에 밖으로 흘러간 것처럼 그리스도인끼리의 거룩한 친밀함이 표현됨이 당연합니다. 셋째, 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따릅니다. 이것은 별다른 어떤 새로움이 아니라 그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은혜와 평강입니다. 이것이 지배하는 교회가 새 언약 백성입니다.

수 세 가지 복(딤후1:1-2)찬1장

목회자신인 디모데전서에서 사도는 인사로 시작합니다. 그 인사는 모든 교회의 받은 복을 요약합니다. 첫째 은혜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공로로 얻는 구원에서 나오는 모든 신적 호의를 가리킵니다. 이 은혜가 교회가 누릴 모든 복의 근원입니다. 둘째, 긍휼입니다. 은혜에서 나온 구체적인 치료의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이 적용되는 것 곧,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교회를 지배할 때 교

회는 주님의 형상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의와 사랑이 구체적으로 교회에 나타나고 이웃에게 나타남이 긍휼로 표현되어 합니다. 모든 착함이 빛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평강입니다. 은혜와 긍휼이 지배하는 마음과 교회는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나타납니다. 그때 평강이 지배합니다. 믿음의 간구로 모든 생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것입니다(빌4:6-7).

목 다른 교훈(딤후1:3-4)찬79장

문안을 마친 사도는 교회의 기초인 바른 교훈을 세우기 위해 그것을 대적하는 거짓교훈에 관해 분별해 그 근원을 보여주면서 경계하라고 가르칩니다. 거짓교훈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첫째, 신화입니다. 스토리텔링인 신화는 진리를 대적해 인간의 탐욕에서 발생함으로써 교회를 어지럽게 합니다. 둘째, 전통적인 족보입니다. 인간의 부패성은 자기주의로 기울어져 개인의 어떤 집단을 만들어 하

나님을 이용하고 대적하려는 교묘한 수법으로 바벨탑을 쌓습니다. 이것이 유대인이 수천 년간 하나님을 떠나는 동기가 됐습니다. 셋째, 육적 욕심입니다. 바른 교훈의 대적은 교훈의 형태 이전에 인간 속에 깊이 자리 잡은 부패성 곧, 욕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는 욕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대적하기에 영의 생각을 따라라고 가르칩니다. 거짓교훈의 뿌리를 제하시라.

금 바른 교훈의 목적(딤후1:5-7)찬9장

이제 사도는 교회의 존재목적이며 그 시작이 바른 교훈 곧, 복음임을 밝히면서 그 지리에서 더욱 권면합니다. 교회의 바른 교훈은 그 목적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공동체에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어디서 나오니까? 첫째, 청결한 마음에서 나옵니다(5). 그리스도의 피로 씻은 받은 교회는 그 마음을 잘 지켜야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 받은 자리에 늘 있어야합니다. 둘째, 선한

양심에서 나옵니다. 양심은 선악을 분별하는 기준인데 이것 이 왜곡되면 모든 혼란에 떨어 집니다. 선한 양심을 힘써 지킬 때 진정한 사랑이 나타납니다. 의가 없는 사랑은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앞서 말한 죄사함과 선한 양심은 우리로 참 믿음으로 나아가 해 참 사랑을 누리게 합니다. 이것을 향해 교회는 바른 교훈인 복음이 지배해야 합니다.

토 율법이 가리키는 복음(딤후1:8-11)찬96장

사도가 생각하는 본문의 율법과 복음은 별개의 것이 아니고 서로 연결돼 있습니다. 이 연속성을 사도가 강조함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려는데 있습니다. 그때 사도는 율법의 실상을 어떻게 말합니까? 첫째, 율법은 선한 것이라고 합니다(8). 선하신 하나님에게 나온 것이기에 모두 의인 신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자비하심, 신실하심이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으로 우리로 그 위에 서

게 하려고 주신 것입니다. 둘째, 율법은 거울의 역할을 합니다(9). 그 앞에 설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죄인임을 알고 그 자리로 나가려는 믿음을 갖게 합니다. 셋째, 율법은 복음을 섬깁니다(11). 이 율법을 결국 복음으로 이끌어 죄를 깨닫게 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를 전적으로 믿게 하십니다. 마침내 성령은 율법의 근본인 하나님의 성품을 온 세상에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합니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

금란교회  담임목사: 김정민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www.kumnan.org Tel. (82)2-490-7000, Fax. (82)2-436-5770 서울시 중랑구 불모동 340-1(131-231)	든든한교회  담임목사: 장향희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금요철야예배: 오후 9:00 Tel. (031)977-8383~9, Fax. (031)977-8382 (우)410-83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670-1	로마한인교회  담임목사: 한평우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4:00 수요일예배: 오후 8:00(매일) 새벽기도: 오전 6:00(매일) Tel. 39-06-827-3585, 39-348-339-1726 39-06-945-8678(교우실) 경기도 양주시 수주동 옥산동 1312번지 VIA DEI QUINTILI 32-38 00175 ROMA, ITALY	새이덴교회  담임목사: 소강석 주일1부: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 오전 11:00 주일4부: 오후 2:00 주일5부: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매일) 대표전화 (031)896-1000, 팩스(031)896-6077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옥동 1312번지	성문교회  담임목사: 황정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3:30 새벽1부예배: 오전 5:00 새벽2부예배: 오전 6:30 Tel. (82)2-2646-3181~3, (82)2-2646-3184 서울시 서초구 목동2동 520 (158-608)	성실교회  담임목사: 김영복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3:00 www.seongsil.or.kr Tel. (82)2-988-9999, Fax. (82)2-987-1008 서울 강북구 수유동 221-49 (142-073)	성일교회  담임목사: 윤상욱 주일1부예배: 오전 5: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토요일은 쉰다) Tel. (82)2-2643-8553~4, Fax. 2648-4662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30-10
수정교회  담임목사: 이성준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Tel. (82)32-568-0191, Fax. (82)32-562-2738 인천시 서구 불모동 416-1(404-270)	승등교회  담임목사: 김철승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9:30 주일4부예배: 오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3:00 수요일예배: 저녁 7:00 Tel. (02)732-2341~3, Fax. (02)739-2235 (110-290) 서울시 중랑구 인사동 137번지	시온소교회  담임목사: 김철승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일예배: 저녁 7:00 새벽기도: 오전 5:00(일-토) Tel. (031)253-1004, Fax. (031)253-101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인왕동 419-2	신길교회  담임목사: 이기용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오후예배: 오후 7:00 Tel. (82)2-842-1968, 새벽(011)82-2-842-1968 서울 영등포구 신길 1동 63-3, (150-051)	신천교회  담임목사: 박영석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2:50 주일5부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00(6:00) Tel. (02)418-0481, Fax. (02)422-0751 서울시 중랑구 불모동 17길 28(131동) www.shincheon.org	신촌교회  담임목사: 박노훈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7:30 주일3부예배: 오전 9:3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3:00 Tel. (82)2-3142-6080, Fax. (82)2-336-4188 서울 마포구 신촌동 48-45 www.esincheon.org	안암 제일교회  담임목사: 이준호 주일1부예배: 오전 9:2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2:3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금요기도회: 오전 8:00 Tel. (82)2-926-4508 서울시 용인구 용인동 50-1 www.anamjeil.or.kr
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수 주일예배1부: 오전 7:30 주일예배2부: 오전 9:00 주일예배3부: 오전 11:40 주일저녁예배: 오후 7:30 수요일예배: 오전 10:30/오후 7:3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5:30/6:30/9:00 Tel. (055)210-5500, Fax. (055)210-5510 (641-370)경남 창원시 성산구 불암동 415 www.yangkog.org	왕성교회  담임목사: 길요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82)2-988-4913, 331-284-7204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041-24 (151-029)	장위제일교회  담임목사: 신일권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금요심야기도회: 오후 9:30 Tel. (02)942-6881, Fax. (02)942-6882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 79-12	주안교회  담임목사: 주승중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전 12:0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주일6부예배: 오후 4:00 주일7부예배: 오후 7:00 Tel. (82)32-527-1009 인천광역시 부평구 신곡4동 294-10(403-838)	창대교회  담임목사: 최용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2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3:00 Tel. (82)2-482-3536, Fax. (82)2-488-4508 서울시 중랑구 원당동 448-23	청주주님의교회  담임목사: 최현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저녁 9: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Tel. (043)275-9191, Fax. (043)273-6114 361-833 흥국 향우시 흥국구 사당동 239-12	충신교회  담임목사: 이준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Tel. (82)2-793-7740 서울시 용인구 이문동 302-67 (140-031)

인/터/뷰

김토마스(만규) 목사

찬양 통해 선교하는 그리스도중심선교교회 설립, 선교네트워크로 운영

미국에서 유명 한인 성악가로 교회음악가로 활동하다 10여년 전 귀국해 총회신학교에서 공부한 후 총신 교수를 역임하고 찬양선교 사역을 하다가 2년 전 CC(Christ-Centered) Mission교회(그리스도중심선교교회)를 설립한 김토마스(만규) 목사가 장남 결혼식 참석차 뉴욕을 방문했다.

김 목사는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에서 12년간 찬양대 지휘자로 사역하며 고든 콘웰에서 Th.M(설교학) 과정 중에 학원 복음화의 소명을 받고 한국으로 갔다. 1989년 도미, 줄리아드 석사과정, 예일대 AD, 샌프란시스코 오페라센터 연주, 1998년 스토니브룩 박사과정, 동부개혁신학교 교수 등을 역임했다. 현재 서울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토마스&프렌즈 대표, 교회멤버들과 음악사역과 여러 세미나에서 강의하고 있다.

총신대(대학원)에서 예배음악철학과 설교음성학 강의를 한 김 목사는 예배음악에 대한 실제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또 말하기(발성)에 대해 체계적인 이론을 소개했다.

예배음악에 대해

예배학은 신학교에서 마지막에 배우는 과정이다. 그 예배에서 음악이 차지하는 부분이 많은데 예배학교수들은 예배에서 음악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또 예배음악을 검증되지 않은 음악가들에게 맡겨버리거나 음악이 예배와 따로 가게 된다. 이런 문제는 사실 제대로 된 책을 몇

하나님께 있고 예배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다.

설교음성학에 대해서

총신에서 설교음성학을 가르쳤다. 음성학은 실제로 표현하는 법은 말로 하기 때문에 말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는 배울 기회가 없다. 반쪽짜리 강의이다. 그 두 부분을 통합해서 강좌를 개설해서 강

생킨다. 설교자들은 설교를 하면서 많이 느낄 것이다.

말은 에너지와 영성과 관계가 있다. 발성으로 보면 말과 노래는 같다. 벨칸토 발성의 기본은 말하는 법을 먼저 배우는 것이다. 말은 자기 생각의 표현인데, 그 감정이 같이 녹아져서 발성 마지막 단계에는 느끼는 대로 소리가 나와서 자연스럽게 노래하게 된다.

창조 때에 하나님과 대화하던 그 언어(말), 표현하는 단어에 맞는 퀄리티로 나와야 하는데, 그걸 인간이 잊어버렸다. 오히려 언어가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그 언어는 생각하는 대로 느끼는 대로 모든 기관들이 움직여 가장 영적인 소리를 냈는데, 바벨탑 사건 이후 언어가 달라졌다. 바라기는 에덴동산에서 하던 그 언어로 돌아가고 싶다. 한국에서 언어운동을 하고 싶다. 비교 언어로 9개 언어를 공부했다.

CCM교회는 선교교회

CCM교회는 북한선교와 중국 선교를 타깃으로 한다. 2002년 2월 김정일 환갑



김토마스(만규) 목사

그 경험으로 교회를 설립하고 음악인들 중에 같은 비전을 가진 사람들과 선교 준비를 하고 작년에 마닐라로 단기선교를 갔다. 교도소와 어린이집, 한글학교 등 필리핀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찬양집회를 했다.

올 7월 10-20일에는 러시아로 20여명이 갔다. 시베리아와 모스크바의 러시아인 교회 10여 곳을 순회하고 찬양집회를 했다. 그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우리도 은혜 받았다. 비용이 많이 들었지만 팀들이 너무 은혜 받고 사역의 방향성을 찾게 됐

건강 길라잡이



이영직 내과전문의

호흡기 질환

유행성 감기부터 폐 질환까지 다양

호흡기 질환은 전염성 질환의 대표적인 유행성 감기부터 합병증인 폐렴이나 결핵 등 전염성 호흡기 질환도 있고 흡연이나 화학물질 등에 만성적인 노출로 인한 만성 폐쇄성 폐 질환, 외부에 대해서 기관지가 과민하게 반응하는 폐의 염증 질환인 기관지 천식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감기는 바이러스가 코 점막이나 눈을 통해서 전염되는데 대부분의 건강한 사람은 제대로 휴식을 취하고 증상 치료를 받으면 일주일 내에 완치된다. 하지만 이를 적절히 다스리지 않으면 급성 부비강염(축농증)이나 폐렴 등의 합병증으로 진행할 수도 있다. 특히 암이나 신장 투석, 기관지 천식과 같은 폐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는 이런 위험이 더욱 크다.

폐결핵은 과거에 한국인들에서 매우 흔한 질환이었는데 심하게 결핵을 앓고 나면 폐에 상처를 남기고 기관지 확장증과 같은 후유증으로 평생을 고생할 수 있다. 요즘은 내성결핵으로 기존 항결핵제가 듣지 않는 경우를 자주 본다.

만성 폐쇄성 폐 질환은 폐기종과 만성 기관지염을 합쳐서 부르는 용어인데 가장 주된 원인은 흡연이다. 성인이 되면 정상적으로도 폐 기능이 일 년에 1% 정도 감소할 수 있는데 흡연을 하게 되면 3퍼센트 이상 폐기능이 줄어서 결국 심한 호흡 곤란 등을 겪게 된다. 따라서 만성 폐쇄성 폐 질환의 치료는 금연이며 담배를 피우면서 치료를 받을 때는 그 효과가 50%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담배를 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흡연은 또한 폐암을 일으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폐암은 현재 한국인의 암 사망 원인 중 가장 흔하다. 폐암은 조기(1기)에 발견하면 완치율이 90퍼센트 이상이지만 조기 검진 방법은 아직까지 나와 있지 않다. 아시아계 비흡연 여성에게 발생하는 폐선암(adenocarcinoma)은 말기 폐암이라 하더라도 탈시바(tarceva)라는 경구용 정제로 만들어진 항암제를 사용하면 생존율을 연장시킬 수 있다.

총신에서 예배음악철학과 설교음성학 강의

예배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는 이상적 예배모범 보이는 교회로 말은 영적인 소리... 에덴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던 말하기 소망

권만 읽어도 알 수 있는데 안타깝다. 예배음악의 선택은 담임목사가 음악담당자에게 말할 수 있는데, 만일 음악담당자를 경쟁상대로 여기게 되면 원활한 선택이 이뤄지지 않게 되는 것이다.

어쨌든 예배 총책임자는 담임목사이다. 예배 사용 음악에 대한 책임이 담임 목사에게 있는 셈이다. 그러므로 담임목사는 성가대나 찬양팀이 사용하는 음악에 대해 가이드 할 수 있는 것이다.

예배 디자인은 목사가 성경적인 음악관을 갖고 지시해야 한다. 신학을 기반한 성경적 예배학에 대한 기본을 담임목사가 가져야 한다. 옛날 감목이나 주교들은 거의 모두 음악 전문가였다. 어거스틴, 루터 등 목회자에게 음악은 필수적이고 전문성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한인)교회는 음악목사 시스템도 아니고 혹 있다 해도 담임목사가 정확한 방향성과 지침을 갖고 있어야 한다. 신학교에서 교육을 시켜야 한다.

예배에 맞는 악기선택도 중요하고 예전도 중요하다. 가장 이상적인 예배를 추구하는 모범을 보여주도록 디자인하는 교회를 지향하고 있다. 예배의 주도권이

의했다. 호응이 좋았다.

음성 공부하는 성악을 하면서 일대일로 배웠는데, 학생 70명을 일대일로 할 수 없어서, 클래스에 맞춰서 강의를 했다. 충분하지는 않았지만 설교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설교의 내용이 아무리 중요해도 표현을 무시하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

소리는 하나님이 주신 값진 선물이다. 특히 목회자에게 툴(tool)이 필요하다. 인도에서는 소리만으로 도를 닦기도 한다. 사실 소리는 서양철학적(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동양철학적(소리로 듣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소리, 느낌, 무의식 세계를 중시한다. 기독교적 믿음과 일맥상통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소리를 통한 영성이다. 한국어는 음성학적으로 문제가 있어, 영성을 담기에는 부족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소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공명인데, 이 공명 안에 스피릿이 들어간다. 그런데 한국말은 공명이 없어 말을 할수록 피곤해진다. 이에 반해 서양언어들은 공명이 있어 듣는 이를 기분 좋게 하며 말할수록 목이 풀리면서 에너지가

에 초청돼 국립교향악단과 평양에 갔었다. 고려호텔로 일주일 머물면서 북한선교에 대한 기도를 하게 됐다. 서울음대 교수직이 예정돼 있었는데, 비서울대 티오로 바뀌어 가지 못하게 되고 총신대 신대원으로 방향을 바꾸게 됐다.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셨다고 생각한다.

한국을 선교지로 여기고 사랑하려고 갔다. 지금 바뀌는 중이라고 생각한다. 영적으로 보면 쓰나미가 밀려오는 느낌이다.

CCM교회는 음악을 위주로 하는 문화선교를 하고 있다. 선교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 툴이 음악이라는 것이 15년간 찬양선교하면서 내린 결론이다. 선교지에서 말도 안 통하고 기간도 충분하지 않은데, 찬양만큼 좋은 게 없다.

북한이나 중국에 가면 직접적인 복음 전파는 할 수 없지만 노래하는 것은 허락한다. 찬양가사에 대해서 컨트롤 안한다. 봉사교회에서 찬양했는데, 참석한 사람들이 처음에는 까만 표정들이었는데, 1절을 부르고 나니 얼굴들이 바뀌었다. 메시지가 전달되는 것을 확인했다.

다. 내년에도 러시아를 가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악기나 인적 협력 등 지원사역을 하려고 한다. 러시아 개신교회들은 재정 부족으로 음악수준이 너무 낮다.

CCM교회는 선교네트워크로 운영하려고 한다. 찬양을 통해 선교하는 극화된 교회로, 한국내 사역은 아직도 찬양집회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지역교회를 방문하거나, 지역주민 초청 찬양집회를 한 달에 1-2회 하고 있다. 야외에서 교회에서 아파트 단지에서 찬양집회를 한다. 좋은 음악당에서 하는 것보다 더 은혜가 된다.

중국어를 배우고 있는데, 요즘 중국정세가 조심스럽다. 시간을 두고 전문적으로 접근하기위해 학교로 들어가서 네트워킹하면서, 한국의 음악선교사를 보내려고 준비 중에 있다.

(유원정 기자)

초대합니다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후원 감사의 밤

Bread and Gospel Eastern America

I · N · V · I · T · A · T · I · O · N

당신은 행복을 주는 사람입니다 !

< 초청의 말씀 >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 사역에 동참하여 주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지난 한해 동안 이 사역에 동역해오신 후원자 가족 여러분들은 세상의 그 어느 선교사 사역자들 보다도 아름답고 훌륭한 사역자들입니다. 말없이 꾸준히 함께 사역해오신 여러분들이 참으로 고맙고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한해를 보내며 여러 후원자 가족 분들과 이 사역에 관심 있는 이웃을 함께 초청하여 사역의 열매들을 서로 나누고 우리의 정성이 담긴 작은 만찬을 대접하고자 합니다. 꼭 오셔서 서로를 격려하고 새해의 사역을 함께 다짐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 사: 2018 해외아동결연 "후원자의 밤"

일 사: 2018년 11월 25일 주일 오후 5시 30분

장 소: 에벤에셀선교교회 (최장섭목사 시무)

220-16 Union Turnpike, Oakland Gardens, NY 11364)

문 의: 917-862-0523, 646-270-9771, 917-656-0176

Email: breadngospel@gmail.com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회 장 유상열 목사

사무총장 전희수 목사